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09. 11 Vol. 215

유키 구라모토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국제신문 창간 62주년 기념공연

미샤 마이스키 첼로 리사이틀

Mischa Maisky Cello Recital

피아노 : 릴리 마이스키

2009. 11. 23(월) 오후7시30분

부산문화회관대극장

공연문의 582-2026(예성), 607-6058(부산문화회관)

주최 :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 국제신문 주관 :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 공연기획 예성

협찬 : 한진중공업 |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 정신과 전문병원 의료법인 양산병원

티켓 : R석 15만원 | S석 12만원 | A석 8만원 | B석 5만원 | C석 3만원 예매처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인터파크

華嚴

화 엄

생명의 축제 – 깨달음의 소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48회 정기연주회

객원지휘 김영동
노 래 박성진
합 창 남성앙상블 VOCE
일렉트릭 기타 장성환
베이스 기타 유성호

11.19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 할 인 | 50% 할인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족
2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 인터넷 예매 | 부산문화회관 www.culture.busan.go.kr
티켓링크 ticketlink www.ticketlink.co.kr
콜센터 1588-7890
| 예 매 | BS 부산은행 전지점
|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051)607-312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051)607-3100
부산문화회관 051)607-6045

| 주 최 |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야마하
피아노/악기
전문 판매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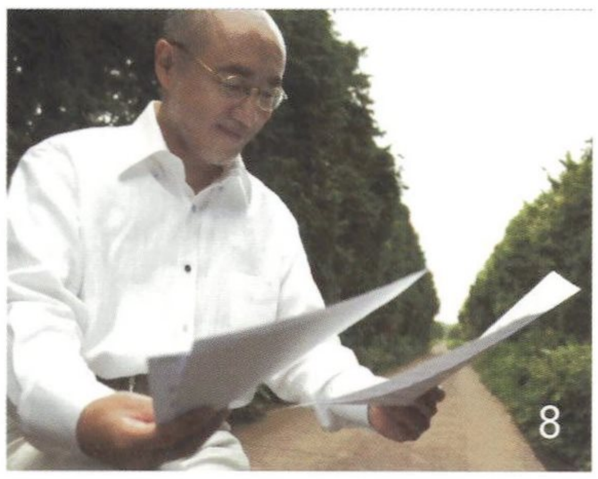
피아노 10~30% 할인 및 중고피아노 보상판매

피아노 조율 전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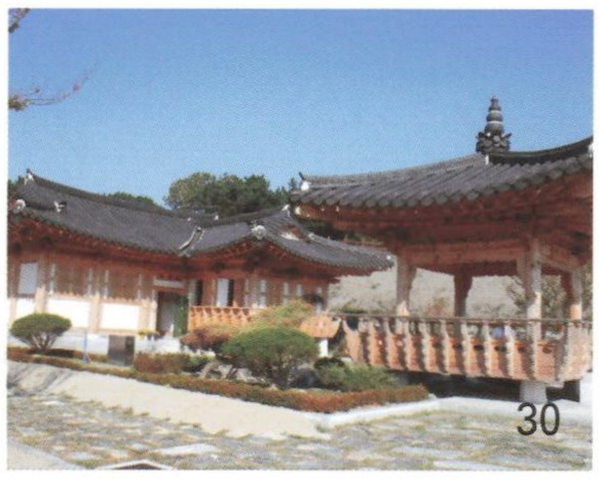
- 국가공인 1급 피아노 조율사의 집
- 일본 YAMAHA본사(하마마츠)조율학교 수석졸업
- 제 5회 부산국제음악제 공식 지정업체

야마하 피아노사 부산본점	051-863-0900
현대백화점 7층	051-667-0747
신세계백화점 7층	051-816-0089
메가마트 피아노사 남천점(4F)	051-622-0815
사직동 홈플러스 피아노사(후문입구)	051-506-7332
해운대 홈플러스 피아노사(수영만)	051-743-7785
장림 홈플러스 6층	051-266-4747

www.**busanyamaha**.com **부산야마하 피아노사** 부산진구 양정 1동 353-2번지 T.051-868-5551 F.051-868-5552


8

18


30

예술에의 초대

2009. 11 Vol.215

Contents

8 커버스토리 _ 한국 데뷔 10주년 기념 유키 구라모토 피아노 콘서트 'Romance'

10 프리뷰

15 문화가 화제 _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전하는 가을의 낭만

16 반갑습니다 _ 부산연주회 갖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장한나

18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_ 영자 아줌마네 · 이재걸

21 불멸의 거장, 말러 _ 말러 교향곡의 소나타 형식 · 김문경

22 행복한 오페라 여행 _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 김홍승

24 생활속의 판화이야기 _ 초상판화의 지평을 열다 '척 클로스' · 채경혜

26 황윤기의 월드뮤직 여행 _ 메르쎄데스 소사(Mercedes Sosa)
라틴아메리카의 어머니, 대지에 잠들다 · 황윤기

27 우리는 문화가족 _ 시청자미디어센터 시민제작단

28 리뷰 _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Opera in Concert Tosca · 김성경
부산국제비디오페스티벌 · 김만석

30 그곳에 가면 _ 기장의 청학동을 꿈꾼다 '기장문화예절학교'

32 프로그램 가이드

51 나의 애청음반 _ The Chess Game Based on J.S. Bach's
'골드베르그 변주곡' · 김중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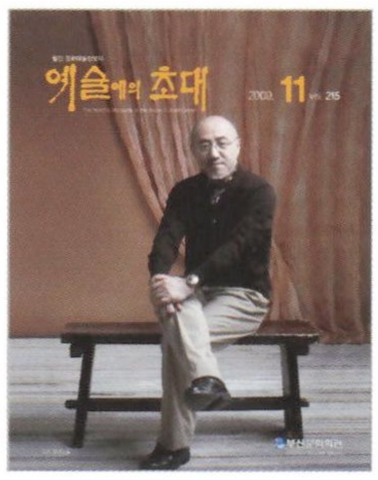
52 새로 나온 음반 · 책

54 부산문화회관 소식

55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56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58 100자 토크



2009. 11 Vol.215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1(야간) FAX. 051-607-3109

발행인 최성달 **편집인** 박원철 **편집장** 백경옥

발행일 2009년 10월 25일

인쇄처 한글그라픽스 TEL. 051-632-7842 FAX. 051-639-0305

표지설명
1999년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첫 콘서트를 전석 매진시키며 성공적인 한국데뷔 무대를 가진 유키 구라모토 한국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가 11월 24일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펼쳐진다.

2009. 11 NOVEMBER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Sunday 일요일	Monday 월요일	Tuesday 화요일

01

중 | 부산시립극단 제 36회 정기공연 '변신-꿈의 기록' 16:00
균일 1만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소 | 운성피아노 정기연주회 16:00
이승희(011-9309-0561)

02

대 | 이태리음악연구회 제 30회 정기연주회 '한 · 일 교류음악회' 19:30
김태형(010-2339-1973)

중 | 노엘합창단 제 50회 정기연주회 19:30
김성만(010-4183-2293)

소 | 국악실내음악단 산 · 바다 · 해 제 4회 정기연주회 19:30
송강수(017-576-9117)

03

대 |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부울경 지역본부 창립 17주년 기념 생명나눔 사랑의 콘서트 '기적' 19:00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부울경지역본부
(808-0131, 017-552-1000)

중 | 소프라노 김현숙 독창회 19:30
동아대학교 음악학과(240-2827)

08

대 | 세계무대 데뷔 20주년 기념 백혜선 피아노 독주회 19:00
5만원 · 4만원 · 3만원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소 | 부산팬플릇사랑 제 4회 정기연주회 16:00
김철우(010-6561-3435)

09

중 |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피아니스트 페스티발 '박지나 피아노 독주회' 19:30
1만원 · 7천원/조윤선(010-7739-0035)

10

중 |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피아니스트 페스티발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기념 멘델스존의 밤' 19:30
1만원 · 7천원/조윤선(010-7739-0035)

소 | 동요사랑회 제 16회 창작동요의 밤 18:00
류지원(011-864-9889)

15

대 | 제 9회 대학교향악축제-인제대학교 19:30
부산음악협회(634-1295)

중 | 부산아카데믹오케스트라 제11회 정기연주회 19:00
초대/장은정(017-842-6688)

소 | 문향예술연구회 정기연주회 18:00
초대/김미옥(900-1388, 017-540-5558)

16

대 | 제 9회 대학교향악축제-신라대학교 19:30
부산음악협회(634-1295)

중 | 2009 부산국제전자음악축제 및 제 15회 부산전자음악협회 정기공연 19:30
이동관(011-873-7983)

17

대 | 대학교향악페스티발-동아대학교 19:30
부산음악협회(634-1295)

중 |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오페라 음악극 '윤동주 그 아련함을 기억하며' 14:00,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22

대 | 뮤지컬 '아이 러브 유' 15:00
6만 6천원 · 5만 5천원 · 4만 4천원
SPA엔터테인먼트(055-262-0117)

중 | 제 16회 신정희 발레공연 19:00
3만원 · 1만5천원
신정희(620-4963, 011-875-4963)
예은예술기획(632-6904)

23

대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적인 거장 미샤 마이스키 첼로 리사이틀 19:30
15만원 · 12만원 · 8만원 · 5만원 · 3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7)
공연기획예성(582-2026)

소 | 박현정 클래스연주회 19:30
조희경(010-4578-8973)

24

대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한국데뷔 10주년 기념 유키 구라모토 피아노 콘서트 19:30
7만원 · 6만원 · 4만원 · 3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8)

소 | 테너 김동국 독창회 19:30
김동국(010-2650-9582)

29

중 | 2009 매구놀이마당 정기연주회 18:00
강신일(327-7100, 010-5488-5941)

소 | 정안회 제 2회 정기연주회 18:00
이구일(011-864-0291)

30

중 | 심어라 첼로 독주회 'Musical Journey to Sonatas' 19:30
균일 1만원/아트뱅크코레아(442-1941)

소 | 비손음악회 19:30
최숙정(010-8205-7999)

12/1

대 | 최은희 창작춤 '화신(化身)'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안주현(010-8553-3665)

국제회의장

▶ **서예비엔날레 시상식**
11월 6일(금) 15:00~17:00

전시실

▶ **2009 부산서예비엔날레** - 대 · 중전시실
11월 2일(월)~11월 18일(수)
박후상(863-8177, 011-557-7791)

▶ **제 29회 부산미술제** - 대 · 중전시실
11월 23일(월)~11월 27일(금)
부산미술협회(632-2400)

▶ **동아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졸업 작품 발표회** - 대전시실
11월 30일(월)~12월 3일(목)
제슬기(010-7324-5333)

▶ **제 26회 경성대학교 졸업작품 발표회** - 중전시실
11월 30일(월)~12월 3일(목)
김잔디(010-2558-0826)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을 click하세요.

Wednesday 수요일	Thursday 목요일	Friday 금요일	Saturday 토요일

04

중 | 이기녕 작곡발표회 19:30
이기녕(010-2210-0900)

소 | END…AND 19:00
정희영(010-9882-6182)

05

06

대 | 2009 부산국제합창제 특별행사 '세계 정상급 합창단 초청공연' 19:30
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07

11

중 |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피아니스트 페스티발 '솔로와 듀오의 밤' 19:30
1만원 · 7천원/조윤선(010-7739-0035)

12

중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근대 낭만음악의 밤'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13

대 | 부산시립무용단 제 61회 정기공연 '유랑(流浪)-NOMAD노마드'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중 | 제 5회 밀양검무 정기공연 19:00
균일 1만 5천원/밀양검무보존회(016-645-0220)

소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3 심현보 콘서트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14

대 | 부산장로성가단 제 13회 정기연주회 19:00
부산장로성가단(010-3320-1179)

중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27회 정기연주회 '추억의 음악여행' 17:00
균일 2천원/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2)

소 |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합창단 '가을의 기도'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18

대 | 2009 김복선 발레공연-차이코프스키 발레페스티발 19:30
3만원 · 1만 5천원/김복선발레단(200-7823)

중 | 연제여성합창단 소년소녀가장 돕기 및 독거노인 돕기 제 9회 정기연주회 19:30
최갑순(010-3242-2626)

소 | 김은희 클래스연주회 19:30
김은희(010-9269-5567)

19

중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48회 정기연주회 '華嚴(화엄)' 생명의 축제-깨달음의 소리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소 | 이태희 클래스연주회 19:30
이태희(010-5299-7446)

20

대 | 뮤지컬 '아이 러브 유' 20:00
6만6천원 · 5만5천원 · 4만4천원
SPA엔터테인먼트(055-262-0117)

중 | 장인숙 전통춤 공연 19:30
균일 2만원/장인숙(010-8508-4602)

소 | 이영지 & 안수빈 듀오리사이틀 19:30
이유진(010-8543-7903)

21

대 | 뮤지컬 '아이 러브 유' 15:00, 19:00
6만6천원 · 5만5천원 · 4만4천원
SPA엔터테인먼트(055-262-0117)

중 | 2009 타로-온고지신 16:00, 19:30
3만원 · 2만원/이일록(010-3282-8014)

소 |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극단 '거미줄'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25

대 | 제 9회 대학교향악축제-부산대학교 19:30
부산음악협회(634-1295)

소 | 가야금 앙상블 '현의 사랑' 세번째 정기연주회 19:30 강봉천(010-5355-4833)

26

소 | 김남희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김남희(010-9485-7388)

27

대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4회 정기연주회 'Beethoven Symphony VII'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소 | 한새오카리나 제 8회 정기연주회 19:00
황미경(010-5036-4787)

28

중 | 국공립극단 교류 기획특별공연 전주시립극단 '춘향은 울지 않는다' 15:00,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소 | 토요상설무대-퓨전시나위 '예타래'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12/2

12/3

대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장한나 초청 첼로독주회 19:30
5만원 · 4만원 ·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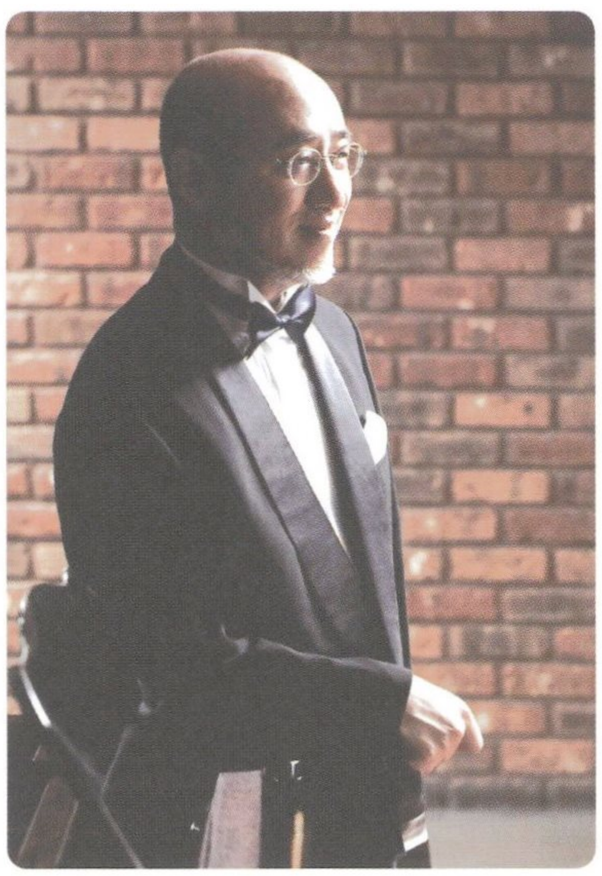
소 | 2009 춤패 연분 · 홍 '춤에서 길을 찾다' 20:00
박은영(010-575-3664)

12/4

소 | 2009 춤패 연분 · 홍 '춤에서 길을 찾다' 20:00
박은영(010-575-3664)

12/5

소 |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1999년 5월 예술의 전당에서 가졌던 한국 데뷔 무대는 결코 잊을 수가 없는, 뜻깊은 공연이었습니다. 공연장이 관객으로 꽉 차있어 벅찬 감동을 받았었지요. 어김없이 2009년에도 한국 콘서트 투어를 할 수 있게 된 건 제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입니다."

– 유키 구라모토

1999년 예술의전당에서 가진 첫 콘서트를 전석 매진시키며 성공적인 한국데뷔 무대를 가진 유키 구라모토 한국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가 11월 24일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펼쳐진다.

매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에 뉴에이지 붐을 일으킨 유키 구라모토의 음악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 드라마 음악으로 다수 소개되면서 큰 인기를 모았다. 199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식 라이센스 음반이 제작(C&L 뮤직)되면서 서정적이면서도 감성을 자극하는 유키 구라모토의 멜로디는 각종 광고와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다.

1951년 사이타마현 우라와시에서 태어난 유키 구라모토는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하면서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였다. 학창시절에는 라흐마니노프와 그리그 등의 피아노 협주곡에 심취

하여, 아마추어 교향악단에서 독주자로 활동하는 등 클래식 피아니스트로서 발군의 솜씨를 보였다. 그러나 유키 구라모토는 정작 일본의 명문 도쿄공업대학에서 응용물리학 석사학위를 받은 공학도이다. 음악가와 학자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과감하게 음악가의 길을 선택했고, 이후 피아노 연주는 물론 클래식 작곡과 편곡, 그리고 팝 음악 연구에 몰두했다.

1986년 첫 피아노 솔로앨범 〈Lake Misty Blue〉를 발표한 유키 구라모토는 수록곡 중 '루이스 호수(Lake Louise)'가 크게 히트하면서 데뷔에 성공했다. 구라모토는 오리지널 음반 발매 이외에도 아사히 TV '호텔', NHK '한번 더 키스를(쿠보즈카 요스케, 윤손하 주연)' 등의 드라마와 영화 음악, 케이블 텔레비전이나 레이저 디스크 등에서의 영상음악, 나아가서는 일본항공 등 항공회사의 '인 플라이트 뮤직(In flight Music)'으로도 각광 받았다.

국내에서는 1998년 발매된 첫 앨범 〈Reminiscence〉에서부터 2008년 〈Piano Nostalgie〉까지 C&L 뮤직을 통해 총 13장의 라이선스 앨범을 발매한 유키 구라모토는 현재 연주 음악가로서는 케니G, 야니 등과 함께 총 100만장이 넘는 판매 대기록을 수립하였다. 1999년 예술의전당 콘서트 홀에서 가진 첫 내한 연주회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10차례 내한공연을 가진 유키 구라모토는 서울 공연 전석매진을 기록하는 등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로 사랑받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과 한국에서 연간 총 50 여 회에 달하는 콘서트와 신승훈 등 한국 대중가수와도 음악적 교류를 하며 활발한 음악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2006년 9월에는 음반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드라마 주몽 OST 중 조수미가 노래한 '사랑의 기억'을 작곡하여 드라마 못지않은 큰 인기를 얻었다.

유키 구라모토는 지난 10년 한국 활동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한국에서 받은 많은 사랑을 팬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1999년 5월 예술의 전당에서 가졌던 첫 한국 콘서트가 아직도 기억에 깊이 남아 있다는 유키 구라모토는 한국 팬들의 성원에 매번 크게 놀란다고 밝힌 바 있다. 첫 콘서트 외에 지난 10년간 조수미의 갈라 콘서트를 위해 '사랑의 기억'을 작곡했던 일, 2006년 콘서트에서 직접 나타나 공연에서 노래해준 신승훈 등 한국을 생각하면 모두 고맙고 좋은 추억들이 떠오른다고 한다.

"어김없이 2009년에도 한국 콘서트 투어를 할 수 있게 된 건 제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덕분입니다. 대부분의 곡들이 작곡할 때 힘든 고생의 과정 끝에 완성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주회장에 와서 연주가 끝나고 박수를 보내주시면 제 자신의 고생이 보상받은 것 같은 감동을 받습니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무대에서 유키 구라모토는 그의 음반 수록곡인 Timeless Love, Meditation, Look Down The See, Sonnet Of Fountain, Virgin Road For Celebration, Romance, Invitation to Sweet Dream, Second Romance, Soaring 등을 부산시민들에게 들려줄 예정이다.

부산시립무용단 제 61회 정기공연

유랑(流浪)-NOMAD노마드

●11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수석안무가 홍기태

특별출연 배혜경

특별출연 김진홍

전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창작춤을 선보여온 부산시립무용단이 오는 11월 13일 춤으로 구도행을 살아가는 예인(藝人)의 삶과 깨달음을 표현한 창작춤 '유랑(流浪)-NOMAD노마드'를 무대에 올린다.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인 홍기태가 안무, 구성한 '유랑(流浪)-NOMAD노마드'는 우리 춤 언어의 풍부하고 다양한 미의식을 현대적으로 재구성, 천년의 맥을 이어온 신명나는 우리춤판이다. 공연 타이틀인 '노마드'는 공간적인 이동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불모지조차도 새로운 생성의 땅으로 바꿔가는 것, 곧 한자리에 앉아서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만 매달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어가는 창조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새로운 삶을 탐구하는 사유의 여행을 의미한다.

전체 다섯 춤판으로 구성된 이번 무대는 다섯 개의 대북이 빚어내는 역동적인 북소리와 몸짓을 통해 새 생명의 에너지가 움트는 듯한 기운과 역동성을 오고무로 표현한 우주홍황(宇宙洪荒)으로 공연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서 박연폭포, 서경덕과 함께 '송도 3절(松都三絕)'로 일컫는 황진이의 애뜻한 정념(情念)을 한국춤의 우아함과 정중동 선의 미가 살아있는 허튼춤으로 표현한 둘째 판 '명월연가(明月戀歌)'와 검무를 추다 백제왕을 죽인 신라의 화랑 황창을 기리는 검무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한 셋째 판 '황창랑무(黃倡郎舞)'를 선보인다. 넷째 판 '영가무도(靈駕舞蹈)'에서는 망자를 위한 무속의례인 씻김굿에 등장하는 지전춤을 통해 물질문명으로 사라져가는 자연과 인간성 상실을 애도하고, 마지막 춤판인 '천지현황(天地玄黃)'에서는 영남 덧배기춤의 담백함과 흥겨운 배김새의 다양한 몸짓을 대동굿판으로 구성해 흥겨운 농악가락을 타고노는 상모놀음과 함께 신명난 생춤의 세계를 펼쳐보인다.

이번 무대에서는 현재 (사)국제예술문화원 이사장 및 (사)국제예술문화원 무용단 단장으로 있는 배혜경과 중요무형문화재 제 97호 살풀이춤,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이수자로, 현재 김진홍전통춤연구회 예술감독으로 있는 김진홍이 특별출연한다.

· 안무, 구성/홍기태(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 대본, 연출/황해순
· 특별출연/배혜경, 김진홍

오고무

▶ **관람료** _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9월 1일 이전 가입자는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 가능합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_ 부산시립무용단(051-607-3131~2)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오페라 음악극 윤동주, 그 아련함을 다시 기억하며…

●11월 17일 화요일 오후 2:00,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김강규

윤동주 최춘식

윤동주 이재원

2009년의 메시지로 '희망'을 노래했던 부산시립합창단이 지난 4월 부산 초연으로 무대에 올려져 호평받았던 오페라 음악극 '윤동주' 앵콜공연 '윤동주, 그 아련함을 다시 기억하며…'를 갖는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했던 민족시인 윤동주의 삶을 그린 '윤동주'는 지난 2007년 시인 윤동주 탄생 90주년을 맞아 작곡가 이용주가 작곡한 창작 오페라 음악극이다. 독립된 가곡들을 드라마와 함께 구성한 '오페라 음악극'은 기존 오페라에 연극적 요소가 더해지고 뮤지컬보다는 품격있는 예술가곡과 합창음악이 더해져 일반 관객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다.

그동안 윤동주의 시에 곡을 부쳐왔던 작곡가 이용주가 자신이 작곡한 가곡을 다양한 형태로 편곡, '서시' '별헤는 밤' 등 윤동주 시인의 주옥같은 대표작들을 가사로 한 예술가곡으로 윤동주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한다.

오페라 음악극 '윤동주'는 지난 4월 부산 초연무대에서 '연주자들의 혼신적인 무대로 깊은 감동을 이끌어냈다'는 언론의 호평에 이어 음악평론가 탁계석으로 부터 '전국 시립합창단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부산시립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고통속에서도 사랑을 노래했던 시인 윤동주의 삶을 통해 메말라가는 현대인들에게 아름다움과 사랑,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윤동주 역에는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최춘식, 이재원, 윤동주의 동갑내기 외사촌형 송몽규 역에는 김창돈, 김태우가 맡아 지난 4월에 이어 다시한번 감동을 전한다.

특별연주회에 이어 11월 24일 청소년들에게 윤동주의 민족정신을 알리기 위해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무대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 작곡/이용주
· 지휘/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
· 연출/정순지
· 출연/최춘식, 이재원(윤동주), 김나영(윤혜원), 김창돈, 김태우(송몽규), 최영수(윤동주 부), 최선희(윤동주 모), 강은태(강태식), 남순천(시즈코), 엄남이(친구 여), 구명금(친구 남), 오승중, 이연기(형사) 외

▶ **관람료** _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9월 1일 이전 가입자는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 가능합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_ 부산시립합창단(607-3141~3)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48회 정기연주회

華嚴(화엄) 생명의 축제-깨달음의 소리

●11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김영동

순수와 대중음악의 세계를 넘나들며 끊임없는 실험정신을 보여준 작곡가 김영동이 오는 11월 19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객원지휘자로 오랜만에 부산국악애호가들과 만난다.

'華嚴(화엄)'을 부제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창작국악의 신선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을 담은 무대로 편안하면서도 친근하고, 때론 엄숙하고 장중한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들려준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경기도립국악단 지휘자를 역임한 김영동 지휘자는 대한민국 작곡상(1981), 벨기에 국제영화제 음악상(1986), 제 39회 아·태 영화제 최우수음악상(1994)을 수상하고 다양한 창작음악을 발표해 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전통시나위적 어법으로 연주자의 기량이 요구되는 현대 관현악의 시나위라 할 수 있는 김희조 '협주곡 1번'을 시작으로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에 나오는 신비스러운 요정을 상상하며 작곡된 황호준의 '비밀의 숲', 분단된 우리조국의 슬픔을 대변하는 애절하면서도 힘이 있는 김영동 곡 '하나', 독경소리부터 반야심경까지 총 8부분에 걸쳐 불교의 일상적인 챤트를 각 의미별로 풀이한 김영동 곡 '화엄(華嚴)'을 들려준다. 김희조 곡 '합주곡 1번'을 제외한 3곡은 모두 부산 초연곡들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해 부산, 울산, 창원, 마산, 진주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함도관 교수의 제자들로 구성된 '남성앙상블 VOCE', 경남무형문화재 판소리 '수궁가' 이수자 박성진이 협연하고, 베이스 기타리스트 유성호, 일렉트릭 기타 장성환이 객원 출연한다.

연주회의 하이라이트가 될 '화엄(華嚴)'은 작곡가가 대웅전 앞마당에서 새벽 예불을 드릴 때 들었던 느낌을 표현한 곡으로 2007년 국립국악관현악단 국가브랜드 공연 '네 줄기 강물이 바다로 흐르네' 무대에서 초연되었다.

범패와 같은 불교음악과는 달리 덧붙이거나 화려하지 않는 예불소리를 중심으로, 사찰에서 들리는 모든 사물의 소리를 표현해낸 '화엄(華嚴)'은 깊은 산사의 새벽 예불을 대하는 듯 편안한 느낌과 염불과 단음의 사물(법고, 운판, 목어, 범종)과 화합하는 관현악의 합주가 새벽을 깨우는 산새울음처럼 듣는 이의 가슴을 흠뻑 적시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남성앙상블 VOCE

▶ **관람료** _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9월 1일 이전 가입자는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 가능합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_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4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심포니 VII

● 11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곽승

피아노 플로리안 울리히

신임 수석지휘자 리신차오 취임 이후 다양한 시도를 통해 부산 음악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베토벤 교향곡 7번' 으로 가을 무대를 연다.

2010 BBB(Beethoven & Brahms in Busan)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베토벤 작품에 있어 최고의 해석을 보여주고 있는 지휘자 곽승을 초청, BBB 프로젝트의 전주(前奏) 무대를 펼친다.

베토벤 교향곡 7번은 베토벤의 유명한 교향곡인 영웅, 운명, 전원, 합창 등과 같이 별도의 표제가 붙어 있지 않으면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 전체에 전쟁과 실연을 극복한 베토벤의 밝고 즐거운 기분이 반영되어 격동과 힘이 넘쳐 리스트는 '리듬의 화신', 바그너는 '무도의 신화' 라고 격찬하기도 했다.

객원지휘를 맡은 곽승은 한음도 소홀히 하지 않는 엄격한 지휘자로 정평이 나 있다. 뉴욕의 아메리칸 발레단 지휘자로 데뷔, 뉴욕 시티센터 조프리 발레단 지휘자(1970-1977), 뉴욕 에글레프스키 발레단 지휘자(1975-1977), 애틀랜타 심포니 부지휘자(1977-1980, 상임지휘자 로버트 쇼),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부지휘자(1980-1983, 상임지휘자 로린 마젤), 오스틴 심포니 상임지휘자(1982-1996), 오리건 선리버 뮤직 페스티발(1983-1993) 예술감독을 지냈다. 국내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1996-2003),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고문 및 음악감독(2002-2003), KBS 교향악단 수석 객원지휘자(2004-2006) 등을 역임하였고, 2008년부터 대구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활동 중이다.

이번 무대는 독일 출신의 피아니스트 플로리안 울리히(Florian Uhlig)가 협연자로 부산을 찾는다. 바흐에서부터 현대음악에 이르는 그만의 창조적이고 풍부한 자원과 방대한 레퍼토리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플로리안 울리히는 1997년 런던의 바비칸 센터에서 데뷔한 이후 베를린, 브뤼셀, 케이프 타운, 카라카스, 쾰른, 드레스덴, 이스탄불, 요하네스버그, 런던, 뮌헨, 뉴욕, 파리, 프라하, 잘츠부르크, 서울, 베니스, 비엔나, 워싱턴 등 세계 유수의 공연장에서 연주하였다. 작곡을 비롯하여 즉흥음악, 음악학 연구, 문학 기획 등에도 열정을 쏟고 있는 플로리안 울리히는 유럽 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유럽 문화상, 잉글랜드 국립 오페라에서 수여하는 스티븐 알렌 기념상과 퀸 엘리자베스 로즈 보울 등 수 많은 국제적 상을 수상했다.

플로리안 울리히는 이번 무대에서 대규모 편성이 주는 음향의 풍부함과 독주 악기의 풍성한 선율, 단조라는 조성이 주는 깊고 웅대한 분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향곡적인 협주곡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 24번 다단조 작품 491' 을 들려준다.

▶ **관람료** _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9월 1일 이전 가입자는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 가능합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_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국공립극단 교류 기획특별공연

전주시립극단 춘향은 울지 않는다

● 11월 28일 토요일 오후 3:00,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전주시립극단

지난달 제 36회 정기공연으로 '변신-꿈의 기록' 을 무대에 올렸던 부산시립극단이 11월 28일 2009 국공립극단 교류 기획특별공연으로 전주시립극단을 초청, '춘향은 울지 않는다' 를 부산무대에서 선보인다. 국공립극단 교류 기획특별공연은 부산시립극단이 2008년부터 지역간 문화예술교류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지난해는 순천시립극단과 교류공연을 가진 바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전주시립극단의 '춘향은 울지 않는다' 는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있는 곽병창이 극본을 쓰고 전주시립극단 상임연출가 조민철이 연출한 창작극으로, 고전 '춘향전' 을 현대적 가치로 새롭게 창작한 세태풍자극이다. 자기희생을 감내하는 지고지순한 사랑과 문제해결의 만능열쇠인 권력, 그리고 신분상승의 기적을 고난극복의 유일한 출구로 여겼던 그 시대의 가치를 의심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원작 '춘향전' 을 오늘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 흐르는 시간과 인간의 욕망 앞에서 사라지는 권력과 사랑의 부질없음을 그려낸다.

'만약 21세기에 춘향이 살았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 '춘향은 울지 않는다' 는 이몽룡을 포기하고 월매 일행과 함께 유랑극단에 들어간 춘향과 권력 핵심의 총애를 등에 업고 부임한 신관사또 변학도와의 갈등으로 극이 시작된다. 변학도는 춘향에게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 며 구애공세를 펼치지만 춘향은 이를 거절하고, 수배자로 단원이 된 북두칠이 춘향을 돕다가 함께 옥에 갇힌다. 변학도의 생일날 이몽룡이 어사출도를 외치지만 이몽룡에게는 새로 사귄 여자가 있다. 과연 4각 관계 속에서 춘향은 어떤 선택을 할까, 공연을 보는동안 관객들은 그 선택의 결과를 각자 유추해볼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은 현재와 과거, 원작과 상상을 자유롭게 오가며 코미디로 세태를 풍자한다. 노래와 춤, 검무 등이 어우러지는 버라이어티 쇼에 비약과 함축, 과장, 형식과 시점에 갇히지 않는 분방함이 관객에게 웃음과 재미를 선사한다.

이번 전주시립극단의 부산 공연은 지난 7월 부산시립극단이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가진 연극 '무엇이 될꼬하니' 에 대한 답방으로 이뤄진다.

· 작/곽병창(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창작극회 · 창작소극장 예술감독)

· 연출/조민철(전주시립극단 상임연출가)

· 작곡/허귀행

· 출연/고조영, 국영숙, 김경민, 김영주, 김정영, 김종록, 백민기, 서유정, 서주희, 서형화, 소종호, 안대원, 안세형, 염정숙, 이병옥, 전춘근, 정경림, 최균, 홍자연, 홍지예

▶ **관람료** _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9월 이전 가입한 정기회원은 회원카드로 관람가능 합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_ 부산시립극단(607-3151)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전하는 가을의 낭만

- 11월 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세계무대 데뷔 20주년 기념 백혜선 독주회
- 11월 2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미샤 마이스키 첼로 리사이틀
- 11월 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유키 구라모토 피아노콘서트
- 11월 28일 KBS부산홀 ●2009 폴모리아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백혜선

미샤 마이스키

부산국제영화제가 끝난 11월의 가을 무대는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내한공연으로 음악애호가들이 어느 때 보다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

오는 11월 8일 섬세함과 열정을 겸비한 우리시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백혜선의 세계무대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독주회를 시작으로 23일 첼로의 거장 미샤 마이스키, 24일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 28일 7080 세대에게 아련한 향수를 전해주는 폴모리아 오케스트라 부산무대가 펼쳐진다.

음악이 흐르는 행복한 11월의 성찬, 첫 무대를 여는 백혜선은 지난 2005년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한 후 미국에 거주하면서 해외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이다. 일본 사이타마현 문화예술재단이 선정한 현존하는〈세계 100대 피아니스트〉에 라두 루푸, 랑랑, 엘렌 그뤼모 등과 함께 선정된 백혜선은 1989년 미국 메릴랜드 윌리암 카펠 국제 콩쿠르 1위를 시작으로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1위 없는 3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은상, 메릴랜드 윌리암 카펠 국제 콩쿠르 1위 등 세계무대에서 주목받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데뷔 20주년을 맞아 보다 성숙된 백혜선만의 음악세계를 한국의 팬들과 나누기 위해 특별한 무대를 갖는다.

우리에게 장한나의 스승으로 친근한 미샤 마이스키는 11월 23일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로스트로포비치와 피아티고르스키를 사사하며 이 시대 최고의 두 거장에게 모두 가르침을 받은 유일한 첼리스트인 미샤 마이스키는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반체제 인사로 간주되어 2년간의 옥중생활을 했고 1972년, 24세 때 출국허가가 내려져 이스라엘로 이주하면서부터 서방세계에 이름이 알려졌다. 미샤 마이스키는 이번 무대에서 퍼셀 음악원에서 학위를 받고 Ilana Davids, Simon Colam에게 재즈 피아노를 사사한 딸 릴리 마이스키와 호흡을 맞춘다.

매회 전석 매진의 신화 유키 구라모토는 11월 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콘서트를 갖는다.(9page 커버스토리 참조)

2005년 내한 공연 당시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계층에게 감동을 선사한 폴모리아 오케스트라는 28일 KBS부산홀에서 만날 수 있다.

폴모리아 오케스트라

1968년 당시 무명의 여가수의 노래인 'Love is blue'를 폴모리아 자신의 스타일로 편곡, 레코딩해 빌보드 챠트 5주 연속 1위의 기록을 세운 폴모리아 오케스트라는 빌보드 1위에 오른 유일무일한 프랑스 아티스트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명곡 'Love Is Blue'를 비롯해 I Will Always Love You(영화 '보디가드'의 메인테마),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영화 '라이온킹' 주제곡) 등과 '아리랑', '돌아와요 부산항에' 등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들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신동들은 어디가 달라도 다르다. 11살의 나이로 로스트로포비치 첼로 국제 콩쿠르에서 거장 로스트로포비치를 비롯한 심사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대상과 현대음악상을 수상했던 첼로 신동 장한나가 세계 정상급 첼리스트로 성장, 대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장한나는 여섯 살 때부터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다. 어린시절 장한나는 자클린 뒤 프레의 '엘가 협주곡'을 듣고 자클린 뒤 프레의 연주에서 뿜어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 듣는 이를 끌어들이는 강한 흡인력에 매료되어 첼로와 사랑에 빠졌다.

지휘자로 음악인생 제 2막을 열어가고 있는 장한나가 12월 3일 스물일곱의 성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부산 음악애호가들을 만난다. 3년 만에 '브람스 첼로 소나타'로 전국 투어 리사이틀을 가지는 장한나와 이메일로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 얼마만의 부산 공연인지, 부산공연에 대한 소감?

아마도 3~4년만인 것 같습니다. 부산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시원한 바다와 맛있는 음식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에너지가 넘치는 계속 성장하는 도시라는 인상이 깊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점점 더 다양한 문화들이 모여서 새로운 부산을 만들어 가는 것 같고 아름다운 바다 옆에 바로 이런 문명의 발달이 있다는 것이 참 매력적입니다. 지난 3~ 4년간 또 얼마나 변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 신동에서 이제 성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부산시민들과 만납니다. 어린 시절과 지금, 음악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에 변화가 있습니까?

연주자로서의 자세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작곡가 앞에서 겸손하고, 최선을 다한 감동있는 연주가 지금도 역시 제 목표입니다. 대학입학 후 그 전과는 달리 더 많은 어린이들, 청소년들과 클래식음악의 감동을 아낌없이 나누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휘공부를 시작하면서 음악에 대한 시야가 훨씬 더 넓어졌고, 그 만큼 하고 싶은 공부도, 도전하고 싶은 음악적인 꿈도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교향곡을 공부하며 작곡가의 내면에 훨씬 더 깊숙히 빠져 들고, 무엇보다 한 작곡가의 음악관을 통째로 공부할 수 있어서 음악가로서 제 자신의 성장과 성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무릎팍도사에서 연주자 장한나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방송출연이 부담스럽지 않았는지, 방송 이후의 주변 반응이 궁금합니다.

워낙 진행을 편안히 하셔서 부담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지만 재미있게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방송을 재미있게 보시고 클래식 음악에도 재미라는 것이 있구나, 연주자는 저런 생각을 하는 구나, 하며 보신 것 같습니다.

◎ 20대의 보통 젊은이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보통 젊은이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보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보통'은 연주자로 열심히 살고, 또 아낌없이 나누는 음악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끔씩은 친구들과 함께 히말라야나 북극 같은, 문명과 떨어진 머나먼 곳으로 배낭여행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요!

◎ 지휘자로 변신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휘자로서 변신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순간에 이루어지며,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변신'은 지금 저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음악가로서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지휘를 통해 저는 음악가로서 성숙하고,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지휘를 통해 첼로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위대한 음악들을 청중들께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무대 뒤에서나, 무대 위에서나, 음악가로서 지휘를 통해 저의 생각과 활동범위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지휘자와 첼리스트는 결국 음악을 청중에게 전하는 음악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단지 첼리스트로서 저는 제 손으로 연주를 하고, 지휘자로서는 100여명에 달하는 오케스트라의 다른 연주자분들의 마음을 통해 연주하는 차이점 뿐입니다.

◎ 또 다른 장한나를 꿈꾸는 꿈나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음악가가 되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자기 스스로 하기 바랍니다. 본인이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훌륭한 음악가를 꿈꾼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음악에서는 진심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 부산에서 연주할 연주곡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감상 포인트를 알려주십시오.

이번에는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브람스는 낭만(개인)과 고전(형식)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 작곡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첼로 소나타에는 브람스의 노스탈지아, 열정, 그리고 사랑이 진하게 배어있습니다. 부담 없이 브람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연주회가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콩쿠르에서 최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로스트로포비치와 장한나를 실질적으로 발굴하여 데뷔시킨 가장 큰 후원자인 미샤 마이스키, 세계적인 지휘자 로린 마젤 등 많은 거장들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음악가로 성장한 장한나. 그는 이제 스승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로 환원하며 '아낌없이 나누는 음악가'가 되고 싶다는 아름다운 꿈을 그려나가고 있다.

(정리/백경옥, 사진/PMG KOREA 제공)

파리를 구성하고 있는 20개 구청의 맏형 격인 파리 시청 본관의 모습

영자 아줌마네

이 재 걸 _ 파리 소르본대학 예술사 박사과정

프랑스에 오는 한국 분들께서 자주 건네는 질문이 있다.

"길가의 수 많은 식당 중 chez로 시작하는 이름이 많은데 한국말로 하면 무엇 입니까? "

오랜 프랑스 생활로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질문이다.

"chez란 프랑스어로 누구 누구의 집, 쉽게 말해서 누구 누구네라는 뜻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식당은 까트린 아줌마네 식당 정도로 이해 하시면 되겠네요."

대답을 하고도 어색하다. 기대한 것 보다 그다지 멋스럽지 않은 말 뜻이라 그런지 대다수의 분들이 내 대답에 겸연쩍어 하신다. 그

러나 무언가 화려하고 세련된 것들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은 파리에서 이런 종류의 상호는 드문 것이 아니다. 파리의 어디든 잠깐만 걸어봐도 온통 우리나라 1960-70년대 재래시장 상호들을 연상시키는 순박한 이름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퉁이 빵집〉, 〈시장 까페〉, 〈파란문 식당〉, 〈뒤퐁네 열쇠〉, 〈멋쟁이 양복〉, 〈12번지 금은방〉, 〈소피네 반찬가게〉 등등…….

더 재미있는 것은 그 가게들의 간판을 조금만 유심히 살펴 보면 글자 한자 한자에 온갖 애정을 다 쏟아 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눈에는 띄되 다른 가게들과도 어울리며, 개성 있는 도안으로 차별은 하되 이웃들을 방해하지 않는… 아무튼 도시 환경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름답고 소박한 간판들은 오랜 시간동안 한결같이 이어온 프랑스 정부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는 간판 하나에도 과도하게 강력하고 복잡한 법적 규제를 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쉽게 말하겠지만 도시 환경도 자연 환경과 동등한 중요성을 띈다는 선진 시민의식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 했으리라.

정성껏 표현한 까트린 아줌마네 식당의 간판만으로도 그 안에서는 즐거운 일로 가득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 뿐만이 아닐 것이다.

오래 되어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무엇이라기 보다는 오래가는 유행을 만들고 그 것을 잘 가꾸어 나가는 정성이 지금 프랑스 문화의 밑거름인 것이다.

연어와 바이올린 그림이 그려진 유태인 식당의 벽면

1946년부터 대를 이어오는 빵집. 가게 입구에 쓰여진 여러 종류의 빵 이름들이 정겹다

가벼운 유행들의 변화무쌍함 속에서도 꿋꿋이 자존심을 지켜온 그 이름들은 그래서 세계 유행의 중심에서 프랑스 문화의 민간 사절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이 컬리티가 돋보이는 쉬크하고 모던한 유러피안 오리지날 럭셔리 스타일……??' 이라는 국적 불명의 언어로 한국에서 포장되는 소위 유럽의 명품이라 불리우는 것들도 알고 보면 샤넬 모자가게, 뷔통씨 가방, 까르티에 보석방 등 장인들의 작은 가내 수공업 수준의 상점에서 시작되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작은 비록 작고 초라했지만 자신만의 영감으로 모든 열정을 다 쏟아 부었던 그 모자가게, 가방가게, 보석방의 주인들은 지금은 죽고 없지만 그 후로도 변치 않는 그들만의 양식(style)은 여전히 세계인을 사로 잡는다.

chez Marianne 식당

카페 〈철학자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모든 것이 빠르게 시작되고 사라져 버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문명들과 계층간의 문화 충돌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건전한 정서를 갖기 위한 노력은 아직 미약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그렇지 않은가.

우리말 사랑, 우리 문화 사랑이란 구호는 넘쳐 나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신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적 풍토는 찾아 보기 힘들다. 비판 앞에 귀가 멀고 내 자랑에만 입을 여는 그릇된 애국심도 구호뿐인 나라 사랑의 부산물인 것이다. 외국 대중문화 모방자들의 음악을 듣고, 프랑스인들도 잘 모르는 명품 가방들을 줄줄이 외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 그들의 뒤에는 금전 만능주의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는 어른들의 욕심이 늘 도사리고 있다. 우리 모두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프랑스의 〈철학용어 사전1〉을 한국어로 번역한 이정우 선생은 옮긴이의 말에서 이런 글을 남겼다.

'진리의 여신 아테네는 완전 무장한 채 제우스의 머리 위에서 튀어나왔다. 진리를 찾는다 라는 것은 거짓과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 진리는 투쟁해서 얻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전은 고상한 액세서리가 아니다. 모순된 현실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살아가기 위한 무기인 것이다.'

여러 번 곱씹어 들어도 옳은 말이다.

소박함 속에 묻어 나오는 진실성, 그것은 거짓과 모방과 타협하지 않는 노력 없이는 이루어 낼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좀 더 많은 애정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뷔통씨 가방을 메고도 영자 아줌마네 순대 국밥을 먹는 장면이 어색해지지 않을 그날을 기다려 본다.

말러 교향곡의 소나타 형식

김 문 경 _ 음악 칼럼니스트, '구스타프 말러' 3부작 저자

소나타 형식은 고전음악만이 지니고 있는 유니크한 형식이자 가장 고차원적으로 평가되는 형식이다. 소나타 형식은 크게는 3부형식으로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섹션은 두 개의 주제가 각각 으뜸조와 딸림조로 제시되는 제시부, 주제가 모티브적으로 분해되어 전개되는 발전부, 두 개의 주제가 모두 으뜸조로 재현되어 갈등의 완벽한 해소를 보이는 재현부로 구성되어 있다. 교향곡, 협주곡, 실내악곡, 소나타는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개시악장이 모두 소나타 형식으로 시작한다. 비록 베토벤이 코다를 제2발전부 수준으로 확장하는 개혁을 하기도 했지만 19세기 말까지 소나타 형식의 기본 룰은 비교적 엄격하게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기말의 심포니스트인 말러는 소나타 형식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모험을 서슴지 않았다.

말러의 첫 교향곡 '거인' 의 제1악장은 고전적 소나타 형식에 결코 들어맞지 않는다. 이 곡의 형식분석은 기본적 틀에 단련된 음대생에게는 거의 재앙이나 다름없다. 처음에는 자연을 묘사하는 길고 지루한 도입부가 있으며 제시부에서는 주제가 둘이 아닌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발전부에서는 주제를 전개하지도 않으면서 '생뚱맞게' 이질적인 주제를 도입하다가 재현부에서는 이들 모두를 뒤죽박죽 섞어 재현한다. 게다가 재현부는 너무 짧아 균형이 맞지 않으며 성급하게 서둘러 곡을 끝내려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소나타 형식이라기 보다는 자유로운 환상곡이나 랩소디에 가깝다.

교향곡 3번의 제1악장은 1번보다 더욱 심각하게 뒤틀린 형식을 보인다. 일단 곡의 길이가 35분에 달하기 때문에 간결한 구성과 미학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좋다. 이 곡의 악곡분석은 섹션의 경계가 플로러스, 그랑쥬, 데이빗 B.그린 등 유명한 말러 음악학자마다 제각각이다. 주된 주제는 둘 이상을 가뿐히 넘어서며 발전부는 도저히 교향곡의 범주로 볼 수 없을만큼 난잡하고 충동적이다. 교향곡 5번의 제2악장 또한 랩소디 풍의 소나타 형식을 보이고 있다. 교향곡 9번 제1악장에 오게 되면 이제는 '소나타 형식과의 이별' 을 감수해야 한다. 주제는 등장할 때마다 그 모습이 심하게 변형되어 감상자가 반복여부를 인지할 수 없을 정도이며, 차라리 전곡을 폭발과 소멸을 반복하는 일종의 화산구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구스타프 말러

말러가 고전적인 소나타 형식을 구사할 줄 몰랐던 것은 물론 아니다. 그가 악상을 전개하는 방식이 고전형식의 틀에서 많이 벗어나 있으며 내면의 충동이나 세부적인 아이디어가 형식미보다 더욱 중요할 뿐이다. 따라서 말러에게는 '여기가 발전부다, 여기가 제2주제이다' 라는 식의 명확한 섹션 구분이 큰 의미가 없다. 말러의 교향곡 중에서 상대적으로 고전적인 소나타 형식은 짝수번호에서 발견된다. 교향곡 2번이나 6번 '비극적' 은 베토벤이나 브람스에 익숙한 애호가에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으며 6번의 경우에는 18세기 소나타 형식의 잔재인 제시부 반복도 존재하여 보수적인 느낌마저도 받는다. 고전적인 형식에 익숙한 감상자라면 입문곡으로 유명한 1, 5번보다 오히려 2, 6번을 먼저 권하고 싶다.

마스카니((P.Mascagni))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Cavalleria rusticana)

김 홍 승 _ 대구 오페라하우스 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오페라 교수

마스카니

19세기 후반 이탈리아의 문학에서는 현실주의, 진실주의라는 뜻의 베리즈모(Verismo)라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운동은 이탈리아 오페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낭만주의 오페라 때의 특징이었던 신화에 나오는 인물, 황제, 귀족중심의 내용에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인물들의 일상을 담은 내용으로 주제가 바뀌어가고 있었다. 현실주의, 진실주의라는 말뜻과 같이 옆집에서 일어날 것 같은 이야기, 나에게도 일어 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공연되면서 오페라는 관객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끌게 되었다.

물론 내용상의 변화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음악면에서도 아름답기만 했던 아리아들에서 벗어나 대본에 맞게 음악의 양식(레치타티보, 중창, 합창 등이 많이 사용됨)이 변하면서 오페라는 또 한번의 큰 변화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베리즈모 오페라는 최초의 작품부터 큰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까지도 널리 공연되고 있는데 이 베리즈모 최초의 오페라가 바로 이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이다.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는 총 1막 2장이며 공연시간 1시간 20분정도의 아주 짧은 오페라이다. 1890년 5월 17일 로마의 콘스탄치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초연부터 아주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던 이 오페라는 지오반니 베르가(G.Verga)의 원작으로 귀도 메나시(G.menasci)와 조반니 타르조니 토체티(G.Targioni-Tozzetti)가 대본을 작성하였다.

- 뚜리뚜(Turiddu):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한국말로 해석하자면 '촌스러운, 촌사람+기사' 정도의 뜻이 나오겠다. '촌(村)'이라는 말 뒤에 붙을 만한 단어라면 '농부' 정도가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바로 주인공인 뚜리뚜를 표현하는 아주 적절한 단어가 아닌가 보여진다. 뚜리뚜, 그는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시칠리아 섬에 사는 전역한 군인으로 입대 전 로라와 사랑하는 사이였으나 그가 군대에 간 사이 그녀는 알피오와 결혼을 한다. 상심한 그는 산뚜짜를 만나게 되고 뚜리뚜는 그녀와 결혼을 약속하게 된다. 하지만 마음은 로라에게서 떠나지 못한다.
- 산뚜짜(Santuzza): 마을의 아가씨이다. 뚜리뚜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그녀이다. 하지만 자신이 아닌 알피오의 아내가 된 로라를 아직도 사랑하는 약혼자 뚜리뚜 때문에 그녀의 마음은 상처투성이이다.
- 로라(Lola): 뚜리뚜의 옛 애인이었지만 현재는 알피오의 아내. 그녀는 아름다운 얼굴과 애교로 남자들의 마음을 녹였고 그러한 행실은 결혼하고 나서도 쭉 계속되어 이후 사건의 발단이 된다.
- 알피오(Alfio): 로라의 남편이다. 그의 직업은 마부. 현재로 치자면 운송업 정도의 일이 되겠다. 힘도 세고 씩씩한 그에게는 딱 맞는 일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잦은 출장으로 사랑하는 로라와 집을 자주 떠나 있을 수 밖에 없다.
- 루치아(Lucia): 뚜리뚜의 어머니. 산뚜짜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얼마든지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을 법한 인물들이지 않은가? 바로 베리즈모 오페라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는 오페라가 되겠다.

P.Mascagni
Cavalleria rusticana

이제 이런 인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자!

1막 1장 시칠리아 마을, 부활절 날

너무나 아름다운 서곡이 흐르고 어둠 속 보일 듯 말듯 한 남자가 노래를 부른다. '오~로라여~ 나는 죽더라도 널 사랑한다.' 알피오의 노래일까? 아니다. 그것은 로라의 옛 연인이었던 뚜리뚜의 노래이다.

그러던 중 날이 밝았다. 오늘은 부활절 날이다. 모두 부활절의 즐거움에 들떠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사람 산뚜짜만이 이리저리 사람들을 피해 어두운 얼굴을 하고는 루치아를 찾아간다. 루치아도 그녀의 방문이 달갑지는 않은 모양이다. 그녀가 무엇을 물을지 알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어머니, 뚜리뚜는 어디 갔나요?' 라며 뚜리뚜의 행방을 묻는다. 거짓말을 해봐도 그녀는 간밤에 그를 본 사람이 있다며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알고 있다 한다. 그러던 중 알피오가 마을로 돌아와서는 신나게 노래한다. 자신의 일과 로라를 찬양하는 노래를 말이다. 그 후 루치아에게 다가가 술을 달라하지만 술이 떨어져 뚜리뚜가 술을 사러갔다 말한다. 알피오는 의아해 한다. 아침에 자신의 집 주변에서 그를 봤기 때문이다.

예배시간이 다가오니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찬미가를 부르며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때의 이 찬미가(Regina coeli)가 아주 아름답다. 모두가 예배드리러 간 후 혼자 남은 산뚜짜. 때마침 그때 뚜리뚜가 나타난다. 그녀를 보고 적잖게 당황한 뚜리뚜. 그는 로라와 만나다 온 사실을 숨기지만 그녀는 알피오도 아침에 당신을 보았다는 말을 하며 제발 정신차리고 나에게 돌아와 달라고 한다.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언쟁을 벌이다가 둘은 다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마침 하필이면 로라가 교회 앞의 그들과 마주치게 된다. 로라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예배드리러 안가시나요?' 하며 교회로 가며 뚜리뚜에게 눈짓하고 뚜리뚜는 바로 따라가려 한다. 하지만 산뚜짜는 그를 막아서며 또다시 다툼을 하게 되고 뚜르뚜는 로라를 못 따라가게 하는 산뚜짜를 밀어버리고 교회로 들어가 버린다.

울고 있던 그녀 앞에 알피오가 나타나자 감정이 격해진 산뚜짜는 로라와 뚜리뚜 사이의 일을 모두 말해버리고 알피오는 복수를 맹세한다. '아! 이 무서운 사람에게 난 무슨 말을 해버린거지?' 라는 생각이 뒤늦게 산뚜짜에게 들 때쯤 알피오는 격분하여 사라진다.

간주곡 (Intermezzo)

앞의 내용이 너무 극적으로 흘러감에 놀란 가슴을 달래주듯 마스카니는 간주곡(Intermezzo)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지금도 따로 인기리에 연주되고 있는 이 곡은 영화 '대부3' 에 배경음악으로 나온 적이 있어서 아마 누구나 들으면 알 정도의 명곡이다.

1막 2장

예배가 끝나고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건배를 한다. 뚜리뚜도 집으로 가려는 로라를 불러 함께 즐긴다. 때마침 알피오가 싸늘한 얼굴로 나타나 뚜리뚜의 건배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버린다. 둘의 사이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고 뚜리뚜 또한 화가 난 상태로 그에게 결투신청을 한다. 결투를 받아들인 알피오가 떠나고 혼자 남은 뚜리뚜. 사실 뚜리뚜는 자신이 알피오에게 상대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 뚜리뚜는 술에 취해 어머니 루치아를 찾아간다. 횡설수설하며 어머니에게 이별을 고한 뚜리뚜는 결투장소로 가고 루치아는 직감적으로 알아챈다.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루치아 앞에 산뚜짜가 나타나는데 산뚜짜 역시 겁에 질려 어찌할 줄 몰라한다.

그때 한 여인의 비명소리. '뚜리뚜가 죽었어! 뚜리뚜가 죽었어!' 그 소리를 들은 둘은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초상판화의 지평을 열다 척 클로스

채 경 혜 _ 한국판화예술연구원 대표

척 클로스〈알렉스, 리놀륨판화〉, 성곡미술관 전시실

20세기 들어와 현대미술은 모더니즘의 물결에 밀려 액션 페인팅으로 대표되는 추상미술이 주류를 형성하면서 상대적으로 사실주의나 구상주의가 위축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유행하기 시작한 팝 아트는 회화 · 재현 · 구상이라는 반 모더니즘적 개념들을 불러들이고, 이어서 극사실주의라는 신경향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추상표현주의의 반작용으로도 볼 수 있다.

척 클로스(Chuck Close, 1940~)는 국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대중적인 작가는 아니지만 1960년대 후반 극사실주의 인물화가, 사진가로서 세계미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1972년 이래 지금까지 대형판화작업을 30년 이상 해오고 있는 판화가로 전후 작가들 중 특출한 작가로 손꼽힌다.

척 클로스는 워싱턴주 재활용공장이 있던 에버렛이란 가난한 백인마을 출신으로 열한 살 때 부친을 여의고 곧이어 어머니는 암에 걸리고, 본인은 난독증 때문에 학교생활의 적응조차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리며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으며, 14살의 나이에 잭슨 폴록의 추상화를 보면서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워싱턴 주립대를 졸업하고, 예일대 판화과에서 조교로 일하면서 정통 판화기법을 익혀 현재의 판화작업의 기초로 삼았다.

1960년대 후반 척 클로스는 주관적인 관점을 배격하고 사진과 같은 극명한 화면을 구성하면서 친구, 가족 등을 대상으로 도저히 육안으로 알 수 없었던 점이나 흉터까지 클로즈업함으로써 감상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는데 이러한 극사실주의적 인물표현은 충분히 미술계의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카메라가 인간의 눈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상을 바라본다는 데 착안해서 인물 자체를 그리지 않고 인물사진을 찍어 작품의 밑그림으로 애용했으며, 특히 얼굴 사진만을 일관되게 소재로 삼았다. 또한 인물사진을 격자무늬의 구획으로 나누어 손가락에 잉크를 묻혀 점으로 찍는 기법으로 대형초상화를 극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1970년까지 모두 8개의 초대형 흑백 초상화를 제작하면서 똑같은 크기(270×210㎝)의 캔버스에 머리 부분만 확대해서 머리카락 한 올, 모공, 솜털, 미세한 피부주름 등 실제 사람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알아채기 힘든 미세한 부분까지 적나라하게 노출시켜 본래의 인물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생경스러운 느낌을 만들어내었다.

이러한 완성된 초상화를 바탕으로 1972년부터 판화로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척 클로스의 판화작업과정은 말 그대로 고난과 모험의 행로라고 표현할 수 있다. 100가지 색을 내기위해 100개의 판을 만들고, 또 그 한 작품을 위해 판화공방의 장인들과 2년 이상 공동작업을 하기도 했으며, 메조틴트, 에칭, 실크스크린, 펄프페이퍼, 일본식 목판화, 유럽식 목판화, 리놀륨판화 등 다양한 판화기법을 통해

판화매체로서의 한계를 뛰어 넘었다. 그리고 실제인물이 아닌 인물 사진을 모델로 삼아, 실제 크기보다 몇 배 더 큰 대형 사이즈로 다각적 실험을 통해 제작한 초상판화는 단순히 한 인간의 모습을 재현한 '초상화' 가 아니었다.

척 클로스의 작품은 뉴욕현대미술관, 구겐하임미술관, 런던데이트갤러리, 뉴욕휘트니미술관 등 세계 유명미술관에 소장되었고 생존 작가로서 판화 한 점에 수십억 원에 팔리는 등 판화예술에 대한 일반적 통념을 뒤집고 판화를 건축, 조각, 회화와 함께 4대 조형예술의 한 장르로 끌어 올리는데 기여했다.

2008년 여름 성곡미술관에서는 '위대한 모험, 척 클로스' 전(2008.6.19-9.28)을 개최했다. 성곡미술관에서의 전시는 휴스턴대학 블래퍼갤러리 관장 테리술탄이 기획해 2003년 블래퍼갤러리를 시작으로 뉴욕메트로폴리탄, 켈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미술관을 순회한 그 열두 번째 전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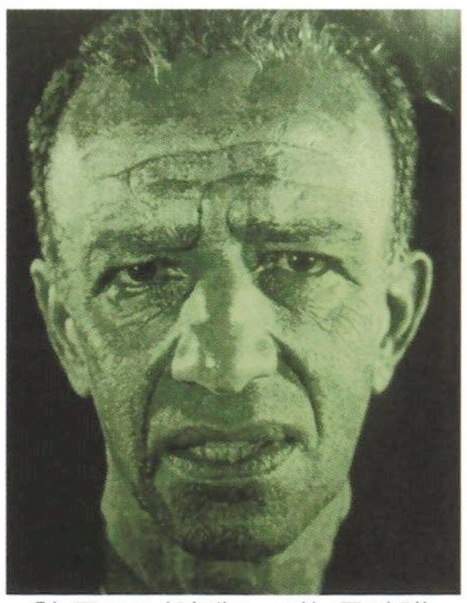
전시된 작품 중 메조틴트기법의 대표작 〈Keith, 1972〉는 그리드 시스템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Heads 시리즈〉 중 첫 작품이다. 메조틴트기법이란 판면을 검게 만든 다음 다시 밝은 부분을 깎아내고 문질러서 명암을 표현하는 것으로 기법의 특성상 메조틴트작품들이 판화작품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소형일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의미가 남다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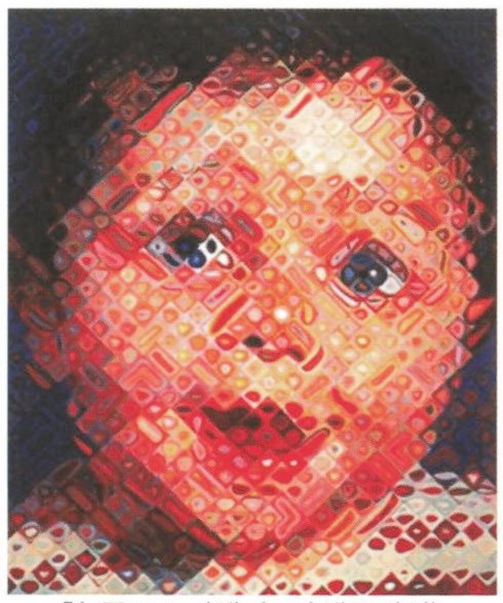
또 자신의 조카를 표현한 대표작 〈엠마, 2002〉는 일본식 '우끼요에' 다색목판화기법으로 모두 25개의 목판과 113개의 색을 사용해서 수성목판화기법으로 찍었는데 제작기간만 2년이 소요되었다. 수성목판화기법이란 먹 또는 수성안료와 풀을 판면에서 섞어 먹솔로 잉킹하고, 흡습성이 좋은 얇은 종이를 촉촉하게 한 후, 바렌으로 종이 뒷면을 문질러 찍는 방법이다. 전시장에는 제작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엠마의 회화작품(35억 추정)과 판화, 그리고 사용된 목판 8개를 함께 전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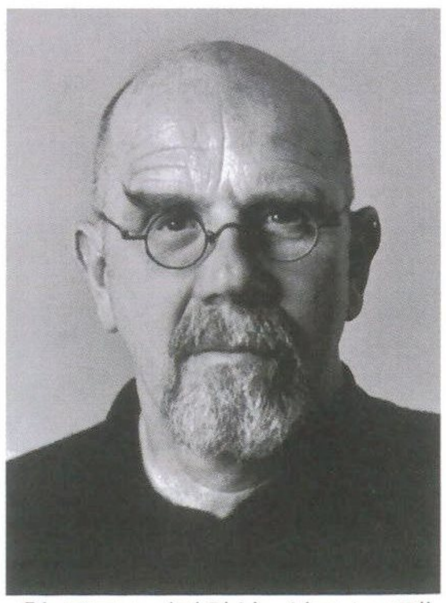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에칭 및 실크스크린기법의 척 클로스의 거대한 자화상이었다. 안경을 쓴 채 정면을 응시한 나이든 남자의 얼굴, 전시장의 작품들은 제작단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찍어낸 시험쇄들로 디지털의 빠르고 현란한 이미지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진중하고 느린 속도로 진행되어 수작업이 이루어낸 땀의 결정체인 이 얼굴들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반문하게 만들었다.

척 클로스는 작품 뿐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사람을 사로잡는다. 난독증에 이어 안면인식장애로 사회생활에 고통을 겪고, 48세에 척추장애까지 와 휠체어에 앉아 붓을 손에 묶어 작업하지만 여전히 밝고 낙천적이다. "나는 앞뒤 따지지 않고 한 가지 일에 매진해 왔다. 고속도로에 올라선 채로 거길 벗어나려는 진출로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작업에 몰두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차별화시켰다." 그의 표현처럼 줄 이은 불행을 한탄하지 않고 모험을 즐기듯 정면대결로 장벽을 넘어왔던 척 크로스! 창의와 혁명적 사고로 그의 모험가로서의 행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척 클로스〈키이스, 메조틴트〉


척 클로스〈알렉스, 리놀륨판화〉


척 클로스 〈엠마, 다색목판화〉


척 클로스 〈자화상, 실크스크린〉

메르쎄데스 소사(Mercedes Sosa)

라틴아메리카의 어머니, 대지에 잠들다

황 윤 기 _ 음악 칼럼니스트, 국악방송 '황윤기의 세계음악여행' DJ

'아르헨티나 음악의 대모', '라틴아메리카 희망의 전령사',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 '누에바 깐씨온의 거장'. 아르헨티나의 여성 가수 메르쎄데스 소사에 대한 찬사들이다. 이는 노래뿐만 아니라 그가 걸어 온 인생에 대한 표현들이기도 하다. 소사라는 이름은 격동의 1960~70년대를 보냈던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에게 삶의 위안이었으며, 미래를 꿈꾸게 하는 희망이었다. 또한 월드뮤직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이름으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월드뮤직계의 살아있는 신화 같은 존재였다. 그런 그가 지난 10월 4일 세상을 떠났다. 전 세계의 음악팬들, 음악가들,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 특히 라틴아메리카 민중들이 품었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뒤로한 채.

신대륙을 찾아 온 스페인 사람들에게 잉카제국의 영광을 빼앗기며 시작되었던 라틴아메리카 고난의 역사는 20세기 중반에도 이어졌다. 제국주의의 수탈과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며 독재정권까지 난립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의식있는 음악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음악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기치를 내건 '누에바 깐씨온(Nueva Cancion:새로운 노래)'이라는 노래운동이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확산되었다. 민속음악을 발굴하는데 평생을 바친 아르헨티나의 아따왈빠 유빵끼(Atahualpa Yupanqui)와 칠레 민속음악의 어머니로 불리는 비올레따 빠라(Violeta Parra), 두 사람의 노력이 초석이 된 누에바 깐씨온의 노래들은 전통음악의 계승과 함께 시대정신을 표현하며 저항음악으로 발전해 나갔다. 누에바 깐씨온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지면을 통해 자세하게 소개하겠지만, 이 새로운 물결 속에서 단연 빛나는 존재로 활동했던 인물이 바로 메르쎄데스 소사였다.

1976년 아르헨티나에는 호르헤 비델라(Jorge Videla)의 군부정권이 들어섰다. 당시 민중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던 소사도 그 독재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1979년 유럽으로 망명의 길을 떠났다. 하지만 독재정권이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1982년, 그는 목숨을 걸고 조국으로 돌아와 아르헨티나의 청중들과 뜨겁게 조우했다.

'En Argentina(아르헨티나에서)'라는 제목의 실황 앨범이 당시의 감동을 담고 소사 최고의 명반으로 남아있다. 이후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라틴아메리카의 정신을 담은 노래들로 위로와 감동을 전하며 라틴아메리카 음악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해 왔다.

메르쎄데스 소사는 누에바 깐씨온을 대표하는 다른 음악가들처럼 작사, 작곡이나 연주에 뛰어난 능력을 지니지는 못했다. 화려한 테크닉으로 노래하는 가수는 더더욱 아니었다. 하지만 소사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포근하지만, 안으로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대지의 힘이 느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사의 음악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곡에 대한 탁월한 해석일 것이다. 조부로부터 인디오의 피를 이어받아 검은 머리카락에 보름달처럼 둥근 얼굴을 가진 소사는 늘 별다른 치장을 하지 않은 촌부의 모습이었다. 겉으로는 소박했지만 노래 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말과 감동을 전했던 그였기에, 라틴아메리카 민중의 어머니로 불리기도 했다.

소사가 노래했던 최고의 명곡 'Gracias a la Vida(생명에 대한 감사)'는 너무 많은 것을 준 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는 노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라틴아메리카의 자연과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빛나는 두 눈과 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소리와 문자, 뛰는 심장, 그리고 내 노래를 만드는 울음과 웃음을 준 생에 감사해…" 그는 이제 잠들었지만 생명의, 인간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던 그 목소리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영상, 내 맘대로 찍어봐!

시청자미디어센터 시민제작단

시민제작단은 실무에 도움되는 각종 워크샵과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더불어 창작에 대한 일반인들의 욕구가 늘면서 최근 들어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인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에 일반인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07년 2월 결성된 시청자미디어센터 시민제작단(이하 시민제작단)은 다양한 주제와 이슈로 각 방송사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우리사회에 적극적인 발언을 해오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운영하는 시민제작단은 현재 1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기존의 영상제작단, 라디오제작단, 스튜디오제작단과 함께 지난해 장애인영상제작단, 주부영상제작단이 추가로 꾸려지면서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최초로 결성된 장애인영상제작단은 시민제작단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수준높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 지난 9월에는 '실버영상제작교실' 수료생들이 배출되면서 노인영상제작단 결성도 추진되고 있다.

"시민제작단 회원이 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퍼블릭 액서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작품제작에 많은 관심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제작단을 담당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정순영 씨는 연령과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작품제작을 위주로 제작단 활동이 이루어지는만큼 한 작품을 탄생시키기까지 무엇보다 회원 개개인의 끈기와 열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 기본적인 제작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했거나 작품제작을 해본 경험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초보자라면 제작단 지원에 앞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시민제작단에 가입하면 영상 제작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지원은 물론 제작실무에 도움되는 각종 워크샵과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아이템 선정에서부터 기획과 구성, 촬영, 편집에 이르기까지 다큐멘터리 감독, 영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작지원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매년 회원들이 직접 제작해 방송되는 작품 수는 30여편. 올해 역시 31여편의 작품이 KBS 열린채널, 부산MBC TV시민세상 등 공중파방송과 케이블TV 등을 통해 방송되었다. 비만인 초등학생 자녀로부터 아이템을 얻어 초등학생들의 비만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최복희 씨의 '비만위험군', 일반인들의 무관심 속에 장애인들만의 축제로 열리는 제 3회 부산장애인영화제의 이모저모를 영상에 담은 강우영 씨의 '그들만의 축제', 비정규직 여성들의 인간적 박탈감과 고용불안문제를 짚어본 안지숙 씨의 '지금 여기서 비정규직으로 산다는 것은' 등 그 주제와 내용이 아주 다양하다. 작품 완성도면에서도 호평을 받아 지난해에는 부산시민영상제, 2008 시민영상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글/정복엽, 사진제공/시청자미디어센터)

■문의/시청자미디어센터 시민제작단(749-9524)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Opera in Concert Tosca

대중에게 오페라에 대한 관심 증대시켜

김 성 경 _ 오페라 연출가

부산시립교향악단 Opera in Concert Tosca 연주장면

10월 16일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로 열린 〈Opera in Concert Tosca〉는 오페라의 가장 큰 에너지는 음악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하는 연주였다. 타이틀에서 명시한대로 연주는 무대 상부에 음향판을, 하부에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배치한 전형적인 콘서트 형식을 띄나 실질적으로 오페라 한편을 본 듯한 느낌이었다.

사실 오페라의 구조는 상당히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있다. 장기대관, 제작진, 기획진, 공연스탭, 무대장치, 조명, 분장, 의상, 소품, 자막, 가수, 합창, 오케스트라 등등 세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합예술이다. 그런 만큼 재정적인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세계적인 대세 또한 콘서트 오페라를 통하여 오페라 저변 확대의 기회로 삼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첫 오페라 콘서트는 지역민들에게 오페라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킨 좋은 기획이었다.

'토스카' 는 '라보엠' '나비부인' '투란도트' 와 더불어 푸치니의 4대 걸작으로 꼽히는 오페라이다.

베르디의 음악과 바그너의 형식을 잘 결합시킨 푸치니의 작품 성향은 토스카에서 음악과 드라마가 완벽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오페라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음악 상식으로 알고 있을 만큼 극중 아리아 '예술에 살고 사랑에 살고(Vissi d' arte, Vissi d' amore)' 와 '별은 빛나건만(E lucevan le stelle)' 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곡이다.

이야기는 침략으로 불안에 떨던 로마를 배경으로 가수 토스카와 그의 애인 카바라도시, 토스카를 차지하려는 경시총감 스카르피아 사이의 사랑과 증오, 탐욕 등을 그리고 있다.

1막이 시작되자 성당지기 역의 베이스 함석헌이 생동감 넘치는 연기와 가창으로 관객을 집중시켰다. 하부 low 조명으로 기둥 분위기를 낸 간접 효과는 성스러운 성당 분위기를 묘사하는데 적절했다. 제한된 조명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보면 등을 무대에 배치함으로 음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었고 프로시니움까지 연장한 기발한 조명디자인은 콘서트 오페라의 완성도를 높여주었다.

2막으로 넘어가자 가수들의 열연과 함께 극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지만 무대 전면을 다 씀으로서 등 · 퇴장이 원활하지 못한 점과 걸어 들어오며 레치타티보를 해야 하는 장면이 아쉬웠다. 동선의 즉흥성과 약속이 되어 있지 않음이 들키는 것은 연출의 부재를 느끼게 해주는 안타까운 부분이었다. 막마다 자리를 옮기며 감상해보았는데 오케스트라의 사운드가 전반적으로 크며 몇몇 가수들의 소리가 원활히 전달되지 않은 장면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는 좋았으며 관객들의 호응 또한 열광적이었다.

새로운 시도와 기획의 노고가 돋보이는 공연이었다. 오페라 하우스는 커녕 변변한 예술의전당 하나 없는 국내 유일의 광역도시 부산!! 필자는 전국의 공연장을 다니며 공연하면서 문화회관에서 클래식 공연하는 것이 어떠한 어려움에 부딪히는지 잘 알기에 이번 공연을 성공작으로 이끌어낸 부산문화회관의 공연기획팀과 극장 무대, 조명 관련 기술진들 뿐 아니라 의상, 소품, 분장, 공연진행, 철수팀 등 공연에 수고하신 모든 스탭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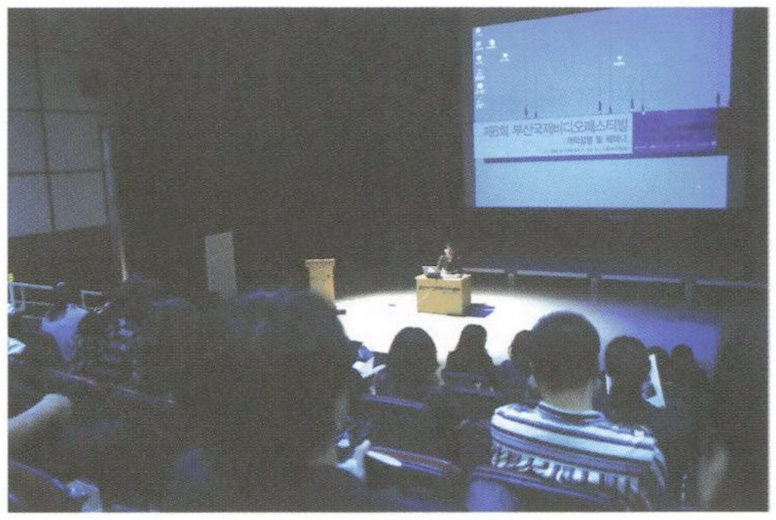
비디오와 영화
대안공간 반디 〈부산국제비디오페스티벌〉

김 만 석 _ 미술평론가

잘 알다시피, 영화(film)는 두 가지 큰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하나가 라이브 액션(live action) 필름이고 다른 하나가 애니메이티드(animated) 필름이다. 물론 영화를 나누는 방식은 이 범주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범주적 구분이 완전히 부당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분류 방식이 '영화'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토대로 기능하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부산국제영화제〉와 달리 〈부산국제비디오페스티벌〉이 선택한 '비디오'는 엄밀한 규정이 불가능하고 이를 분류할 수 있는 '범주'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흔히 일상적으로 '비디오'란 영화가 '극장'에 상영되고 난 뒤 이를 집에서 다시 상영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로 이해되고 있는 것을 보라.

사실 〈부산국제비디오페스티벌〉이 '비디오'라는 모호한 대상을 문제삼는 것은 미술이라는 예술분과의 규칙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달리 말해, '비디오'의 범주와 분류가 모호할 때, 사실 '비디오 아트'도 역시 모호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비디오'를 통해 이루는 '예술'은 기술과 예술의 결합을 통해 비디오와 예술의 확장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지 비디오를 통해 예술을 하는, 그러니까 예술의 규칙에 충실하게 부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디오가 모호한 대상이 됨으로써 예술 자체의 규칙과 규범 자체도 모호한 방식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디오-아트' 현존하는 예술 장르와 규칙을 지속적으로 뒤흔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산국제비디오페스티벌〉에 제출되었던 수백편의 비디오 작업들은, 비록 단채널 영상에 국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디오'가 지닌 특정한 기술적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미디어와의 결합에 지속적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부산국제비디오페스티벌〉에서 제출된 작업들이 하위문화의 영향들,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 다른 미디어를 비디오를 통해 재해석하고 매체가 지닌 문제를 적극적으로 탐색했던 것은 '비디오'가 가진 개방적 속성에서 혹은 확장적 성격에서 기반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아니, 비록 '비디오'가 명백한 대상으로 주어질 수 없거나 규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찰이 가능할 터이다.


부산국제미디어페스티발

한편으로 지역미술이 전통적인 예술의 분류 규칙을 따르고 있는 것이 부정적일 것은 아니지만, '비디오'를 성찰하는 지역미술의 예술적 과정이 지극히 미약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하나는 변화하는 매체환경에 대한 대응이 예술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미술이 소통되고 유통되는 장 자체가 지극히 협소하거나 거의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예술에 '대한' 문제의식이 정태적으로 주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데, '지역미술'의 토대와 기반 자체가 취약함과 폐쇄성을 지시해줄 가능성이 있다. 기왕의 지역미술 장이 몇 가지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비디오페스티벌'을 하고 있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은 부산이라는 지역적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즉, 미술이라는 전통적인 규칙의 변화를 모색하고 예술적 과정이나 예술의 소통방식을 모색하는 일련의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비디오의 이른바 잡종적 성격과 지역이라는 잡종적 장소의 행복한 조우가 될 수 있다는 것. 물론 최근 급격하게 줄어든 지역의 비디오 아티스트들의 응모가 부산의 현재성을 잘 대변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행사임에도 비디오와 영화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상이한 태도도 함께.

기장의 청학동을 꿈꾼다

기장문화예절학교

민속전시관

청소년들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배울 수 있는 청소년 문화예절학교가 전국 최초로 기장군에 문을 열었다. 지난 9월 장안읍 월내리에 문을 연 기장문화예절학교는 문화예절을 특성화한 전국 최초의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로, 5,850평의 넓은 부지에 생활관, 강의동 등의 현대식 건축물 2개동과 민속전시관, 생활관, 혼례관, 예절관, 다도관, 선비관 등 전통한옥을 본뜬 11개동의 목조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입구에 세워진 정자 '예지정'을 지나 처음 만나는 곳은 다도관. 다도례(茶道禮)를 배우고 익히며 실습할 수 있는 장소로, 40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중간 대문인 '외삼문'을 지나면 예절관과 체험관, 교육관이 한 자리에 모여있다. 넓은 대청마루의 예절관은 생활 속 예절교육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공간이며, 체험관과 교육관에서는 서예, 국악, 한지공예, 천연비누 만들기 등 체험실습이 펼쳐진다. 마침 찾아간 10월 15일 예절관에서는 가을소풍을 대신해 이 곳을 찾은 개금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예절교육을 받고 있었다. 명절때가 아니고는 좀처럼 입기힘든 한복을 입고, 서툰 솜씨로 옷고름을 직접 매어보는가 하면 바로 옆 체험관에서는 흥겨운 북가락 장단에 맞춰 우리민요 '아리랑'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기장문화예절학교 가장 안쪽에 자리잡은 혼례관과 선비관, 민속전시관에는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생활용품과 전통의상, 전통놀이기구를 전시해 전통문화와 더불어 선조들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곳 앞마당에서는 전통혼례와 성년식 시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밖에 260명이 숙박 가능한 생활관과 1층 식당,

2층 강의실로 구성된 강의동이 자리하고 있다.

기장문화예절학교에서는 '지덕체(智德體)'를 겸비할 수 있는 인성, 예절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학교나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수련 캠프에서는 당일, 1박2일, 2박3일 등 일정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예절, 다도를 통한 인성, 예절교육과 함께 국악, 서예, 한지공예, 천연염색, 천연비누 만들기 등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우리문화의 향취도 직접 느껴볼 수 있다.

캠프 외에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도교실, 예절교실, 국악 · 서예 · 공예교실 등 문화교실 '놀토, 문화야 놀자!'가 운영된다. 문화교실에서는 '기초교양반'과 함께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심화자격증반' 강좌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여름, 겨울방학 기간에는 문화예절학교 캠프와 가족캠프, 청소년수묵화 사생대회, 시조백일장 등 다양한 특성화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기장문화예절학교는 지난 9월 개관한 이후 개금여자중학교 학생들을 시작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원아들과 국제고등학교 외국인학생 등이 이 곳을 방문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장문화예절학교는 당분간 학교와 청소년단체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비롯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국제교류에 참여하는 국내외 청소년들에게도 우리문화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한국문화예절교실과 한옥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장문화예절학교 청소년지도사 유성경 씨는 기장문화예절학교가 앞으로 참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참된 교육의 장이자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전통문화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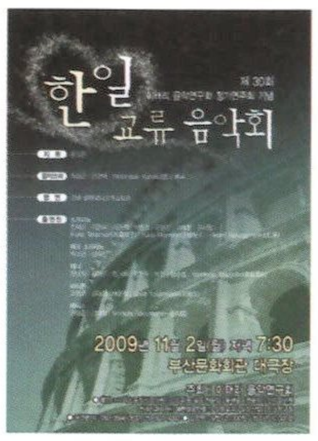
(글, 사진/정복엽)

■ 문의/기장문화예절학교(728-8020~1, www.gijangcmc.or.kr)

〈사진제공 : 기장문화예절학교〉

이태리음악연구회 제 30회 정기연주회 한 · 일 교류음악회

11월 2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이태리에서 음악 수업을 한 부산의 음악인들로 구성된 이태리음악연구회의 제 30회 정기연주회.

1987년 창단 이후 이탈리아 가곡과 오페라를 연구해온 이태리음악연구회는 올해 한 · 일 우정의 해를 맞아 한국에서 강학윤, 전혜란, 박소년, 김대성, 김태형 등과 일본의 성악가 Iko Takamori, Shinichi Sakuma 등이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를 비롯한 유명 오페라 중창을 들려준다.

· 반주/김해필하모니오케스트라(지휘/윤상운)

■ 문 의 김태형(010-2339-1973)

노엘 합창단 제 50회 정기연주회 '노엘! 그 50번째 노래 소리 찬 양소리……'

11월 2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김강규

김성호

1961년 창단된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합창단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노엘합창단이 들려주는 제 50회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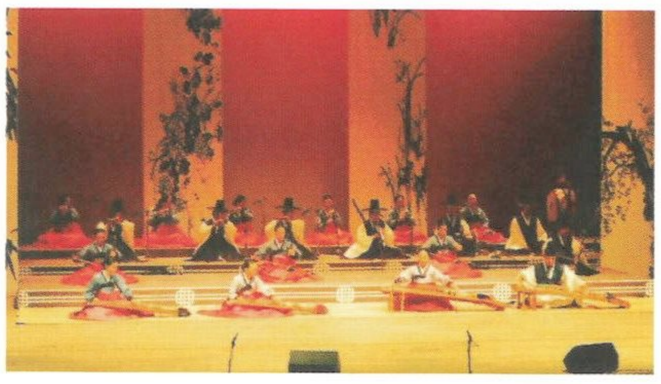
'노엘! 그 50번째 노래소리 찬양소리…'라는 제목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르네상스 무반주 다성합창과 엘렉톤과 함께하는 성가, 그리고 영국이 자랑하는 세계최고의 아카펠라그룹 킹스 싱어즈의 멤버였던 밥 칠콧이 작곡한 '작은 재즈 미사(A Little Jazz Mass)' 등 성가합창, 추억의 동요합창 등 다양한 합창을 들려준다. 모스크바음악원에 재학중인 김성호가 특별출연한다.

· 지휘/김강규 · 피아노/윤민화 · 특별출연/김성호

■ 문 의 김성만(010-4183-2293)

국악실내악단 산 · 바다 · 해 제 4 회 정기연주회

11월 2일 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전통음악의 보급과 현대화 작업등 국악실내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3년 젊은 전문 연주인들로 창단된 국악실내악단 산 · 바다 · 해가 들려주는 제 4회 정기연주회.

산 · 바다 · 해는 창단연주회를 비롯하여 삼광사 동지예술제, 국립국악원 부산설립기념연주회, 김해시립가야금 연주단 신년음악회, 부산문화회관 토요상설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국악과 클래식의 만남 등 년 20여회의 크고 작은 연주회를 가져왔다.

프로그램

대풍류, 지영희류 해금산조, 서용석제 한세현류 피리산조, 원장현류 대금산조, 산조합주

■ 문 의 송강수(017-576-9117)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 부울경지역본부 창립 17주년 기념 생명나눔 사랑의 콘서트 '기적'

11월 3일 화요일 오후 7:00 대극장

1992년 설립, 부산경남지역에서 생명나눔운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 부울경지역본부가 창립 17주년을 맞이하여 펼치는 생명나눔 콘서트.

이번 무대는 YMCA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서울에서 활동중인 소프라노 이세이, 소프라노 원영경, 테너 정현수, 바리톤 심정보가 아름다운 가곡과 아리아의 향연을 펼친다.

프로그램

오 솔레미오, 돌아오라 소렌토로, 푸니쿨라 등 수곡

■ 문 의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부울경지역본부 (808-0131)

소프라노 김현숙 독창회

11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빼어난 표현력과 색깔있는 음을 구사하는 소프라노 김현숙독창회.

김현숙은 1999년 볼프와 무소르그스키를 시작으로 레거와 슈트라우스(2000), 멘델스존과 핏츠너(2001), 슈베르트와 볼프(2002), 리스트와 말러(2003), 나카다 요시나오와 김순남(2004), 그라나도스와 쇤베르크(2006), 집시의 노래(2007), 어린이의 노래(2008) 등 매년 새로운 테마 독창회를 가져왔다.

올해는 후기 낭만파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후고 볼프(Hugo Wolf, 1860-1903, 오스트리아)의 이탈리아 가곡집 전곡 부산초연 무대로 새로운 음악여행을 시작한다.

· 특별출연/테너 이은민 · 피아노/박미은, 김성희

■ 문 의 동아대학교 음악학과(240-2827)

이기녕 작곡발표회

11월 4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서울대학교, 일리노이 대학교 작곡과, 인디아나 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기녕의 작곡발표회.

제 3회 한국 전자음악협회 주최 컴퓨터음악대회 1위(2000), Yueh-Fei 국제작곡대회 2위(2000)(미국, 시카고)에 입상한 바 있는 이기녕은 그동안 플로리다 전자음악페스티벌, 제 6회 산타페국제페스티벌, 미국 전자음악협회 주최 정기연주회, 서울국제컴퓨터 음악제 2004 등에서 다양한 작품을 발표해왔다.

프로그램

Move!(피아노)(2009), 찬바람이 불 때(피아노)(2009), 주의 모든 세계(피아노)(2007), 주기도문(피아노-스트링-노래)(2003) 등 수곡

■ 문 의 이기녕(010-2210-0900)

2009 부산국제합창제 특별행사 세계 정상급 합창단 초청공연

11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핀란드 도미난테콰이어

합창으로 세계인들과 소통하는 부산국제합창제 2009년 특별무대.

신종인플루로 취소된 2009 부산국제합창제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세계적인 합창강국 핀란드의 '도미난테콰이어'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키부츠아르츠콰이어'를 초청해 특별무대를 마련한다.

프로그램

시벨리우스/내마음의 노래, 뱃놀이
라우타마라/버드나무 그늘에서
맨트라르비/4개의 세익스피어 노래
이스라엘 민요/하바나길라
이현철/귀천 등 수곡
· 우정출연/부산교사합창단(지휘/김강규)

■ 문 의 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세계무대 데뷔 20주년 기념 백혜선 피아노 독주회

11월 8일 일요일 오후 7:00 대극장

1989년 미국 메릴랜드 윌리암 카펠 국제 콩쿠르 1위 입상기념으로 미국 뉴욕의 링컨 센터에서 공연한 이래 20년간 국제무대에서 활동해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혜선 데뷔 20주년 무대.

섬세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연주, 강한 집중력과 깊은 음색의 섬세한 표현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자리하고 있는 백혜선은 1994년 6월, 한국 국적을 가진 최초의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입상자로, 29세의 나이로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음악계의 많은 화제를 낳았다.

우리나라 1세대 피아니스트들과 김선욱, 손열음과 같은 신세대 연주자를 잇는 독보적인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백혜선은 일본 사이타마현 문화예술재단이 선정한 현존하는 '세계 100대 피아니스트'에 라두루푸, 보리스 베레초프스키, 랑랑, 엘렌 그뤼모 등과 함께 선정되기도 했다.

프로그램

바흐/부조니 오르간 코랄 전주곡 중에서 '깨어라, 그 음성이 들리니라' '기뻐하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아'
모차르트/피아노 소나타 바장조
바르톡/피아노 소나타
리스트/피아노 소나타 나단조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할인)
■ 문 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피아니스트 페스티발

11월 9일-11일 월-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1995년 학문적 교류와 연주활동을 통해 피아노음악 발전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창단된 이래 매년 두차례 연주활동을 펼쳐온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피아니스트 페스티발.

올해는 박지나 피아노독주회,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기념 음악회, 회원들의 솔로, 듀오의 밤이 열린다.

■ 9일(월) 박지나 피아노 독주회

프로그램

포레/녹턴 제 2번 나장조 작품 33
라벨/밤의 가스파르
슈만/크라이슬러리아나 작품 16

■ 10일(화)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기념 멘델스존의 밤

프로그램

멘델스존/론도 카프리치오소 작품 14, 무언가 작품 53, 엄격변주곡 작품 54 등
· 연주/김성희, 김상봉, 김병기, 정희경

■ 11일(수) 솔로와 듀오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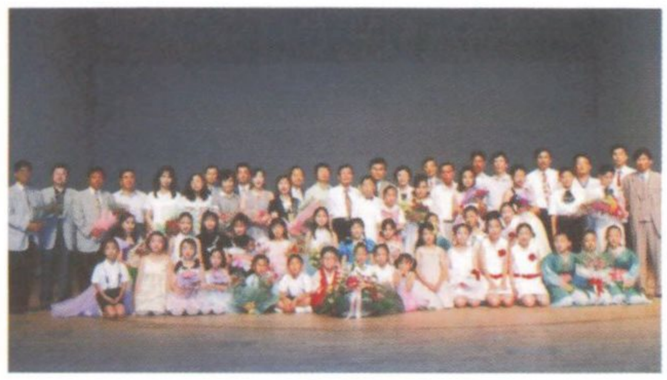
프로그램

슈베르트/즉흥곡 작품 142 제 3번
스크리아빈/에튜트 작품 8 제 22번
라벨/물의 장난
라벨/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라발스 등 수곡
· 연주/신문정, 김희정, 임소영, 강남길, 최혜련 & 김승희, 김유진 & 이수진, 조혜경 & 김경희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7,000원
■ 문 의 조윤선(010-7795-0035)

동요사랑회 제16회 창작동요의 밤

11월 10일 화요일 오후 6:00 소극장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매년 창작동요를 발표해온 동요사랑회(회장 류지원)가 들려주는 제 16회 창작동요의 밤.

부산, 울산, 경남에서 활동하는 작사가, 작곡자들의 아름다운 신작으로 마련하는 이번 무대는 동요사랑 챔버오케스트라의 연주로 28곡의 창작곡을 발표한다.

프로그램

신진수/청개구리(선용 작사)
박봉렬/소나기(문삼석 작사)
류지원/제비꽃(재해만 작사) 등 수곡

■ 문 의 류지원(011-864-9889)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근대 낭만음악의 밤

11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지휘 이동신

피아노 조윤수

트럼펫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들려주는 특별연주회 '근대 낭만음악의 밤'.

근대 낭만음악을 대표하는 포레와 코른골트가 작곡한 극의 부수음악, 정치적인 억압에도 굴하지 않았던 쇼스타코비치 등의 작품을 통해 근대 낭만음악의 흐름을 느껴본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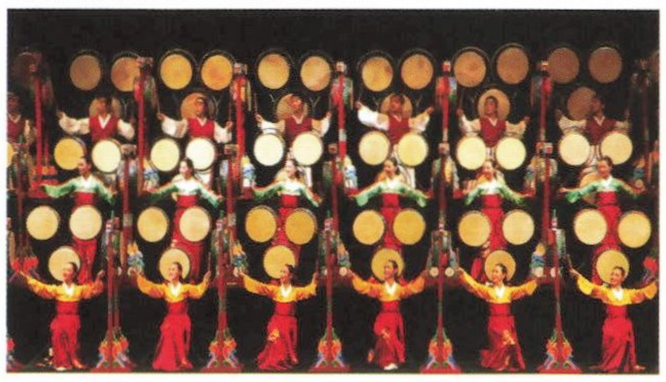
포레/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모음곡
쇼스타코비치/피아노 협주곡 제 2번
글리에르/콜로라투라 소프라노 협주곡
코른골트/ '헛소동' 모음곡
· 지휘/이동신

· 협연/조윤수(피아노, 예원학교 음악부장)
드미트리 로카렌코프(트럼펫,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부산시립무용단 제 61회 정기공연 유랑(流浪)-NOMAD노마드

11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우리 춤 언어의 풍부하고 다양한 미의식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천년의 맥을 이어온 신명난 우리 춤판을 선보이는 부산시립무용단 제 61회 정기공연 '유랑(流浪)-NOMAD노마드'.

새 생명의 에너지가 움트는 듯한 역동성을 오고무로 표현한 '우주홍황(宇宙洪荒)', 허튼춤의 진수를 담은 '명월연가(明月戀歌)', 황창랑의 검무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한 '황창랑무(黃倡郎舞)', 망자의 원과 한을 풀어주는 지전춤을 재구성한 '영가무도(靈駕舞蹈)', 상모놀음과 신명난 춤의 세계를 펼치는 '천지현황(天地玄黃)' 등 전체 다섯춤판으로 구성된다.

· 안무, 구성/홍기태(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 대본, 연출/황해순
· 작곡, 편집/옥준, 서상환
· 무대 미술/황경호
· 특별출연/배혜경, 김진홍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제 5회 밀양검무 정기공연

11월 13일 금요일 오후 7:00 중극장

18세기 중엽 실학자 박제가가 검무기(劍舞記)에 기록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복원된 밀양검무보존회의 제 5회 정기 공연.

여러 문헌상에서 밀양여자 운심의 검무는 검을 던

지는 동작, 몸을 숙여서 추는 동작,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는 대무동작, 도는 동작(연풍대), 마지막에 검을 던지고 끝내는 동작 등이 있다. 음악은 남도제 대풍류이며 반주악기는 삼현육각 편성으로 본령산(상령산), 도드리, 타령, 자진타령, 굿거리, 군악, 긴염불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밀양검무(출연/김은희, 김성순)
흥춤(출연/송경숙, 신미경, 이연희, 강주미, 이선경, 정진미, 김현희, 윤자영, 허지혜, 김여진 외)
살풀이춤(출연/김명자)
송화영류 전통굿거리, 최종실류 소고춤(출연/김은희)
입춤(출연/김은희무용단 전원)
· 해설/김지원

■ 관람료 균일 15,000원
■ 문 의 밀양검무보존회(016-645-022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 아래 그 콘서트 Vol.3 심현보 콘서트

11월 13일 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모세의 '사랑인 걸' 요조 & 김진표의 '좋아해' 등의 작사, 작곡가, T의 '시간이 흐른 뒤'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주얼리의 '니가 참 좋아' 등의 작사가로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싱어송라이터 심현보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 아래 그 콘서트' 세 번째 주인공으로 부산무대를 갖는다.

최근 프로듀서와 방송에 이르기 까지, 점차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 심현보는 제 4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은상으로 가요계에 데뷔, 1997년 모던락 밴드 아일랜드 1집 [Agami], 1999년 아일랜드 2집 [남녀상열지사]를 발표했다. 2004년 심현보 1집 [Blood type A], 2007년 심현보 2집 [Documentary]를 발표하고 김현철, 이한철, 정지찬과 함께한 그룹 '주식회사'로 활동하기도 한 심현보는 2002년 서울가요대상 올해의 작사가상, 2002년 SBS가요대전 최고 작사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부산 장로 성가단 제13회 정기연주회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1986년 80명의 장로들로 창단된 부산장로성가단 제 13회 정기연주회.

부산장로성가단은 부산은 물론 서울, 광주, 대구, 인천 등 160회에 이르는 국내 연주와 미국, 유럽 등 40회의 해외 연주, 특별연주회를 통해 성가곡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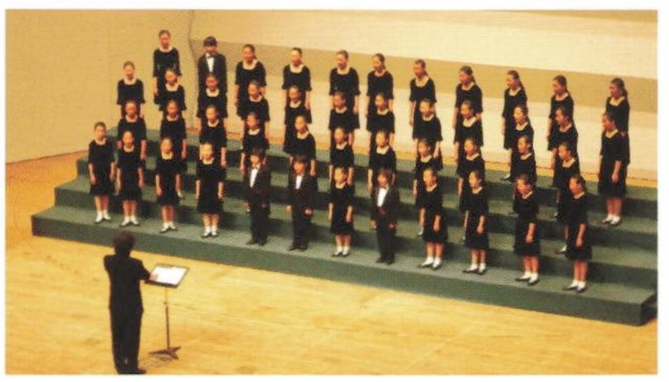
이번 연주에는 소프라노 김경희와 유럽에서 활동중인 정피아노트리오가 찬조출연한다.

프로그램
슈베르트/감사의 노래
최덕신/여호와는 나의 목자
마크 헤이즈/넉넉히 이기느니라 등 수곡
· 지휘/공정배 · 반주/장세진
· 찬조출연/소프라노 김경희, 정피아노트리오, 트럼펫 백충곤

■ 문 의 부산장로성가단(010-3320-1179)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27회 정기연주회 '추억의 음악여행'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전국 최고의 소년소녀 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전 수석지휘자 배정행이 객원지휘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27회 정기연주회 '추억의 음악여행'.

이번 무대는 모차르트, 포레의 정통클래식, 우리정서를 담아낸 우리 민요, 우리지역 동요작곡가들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자연과 환경을 노래하며/들판으로 달려가자(박봉렬 곡), 마음이 이슬처럼(신진수 곡), 비오는 둑길(김태호 곡), 오색비(류지원 곡) 등

우리 얼이 담긴 우리의 노래/새야 새야 파랑새야(채동선 편), 도라지,진도아리랑(민요), 춤추는 춘향이(김희조 곡)

고전성가/Agnus Dei(포레), Raudate Dominum(모차르트), Quando Corpus(페르골레지) 등 수곡

· 지휘/배정행(객원지휘자)
· 반주/이영옥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자(합창)
· 특별출연/해피앙상블, 혜화초등학교 중창단(지도 조은실)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 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2)

제9회 대학교향악축제

11월 15일-17일 일-화요일,
11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부산지역대학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있는 6개 음악대학 오케스트라(대학별 80명 내외), 인제대학교 오케스트라 등 7개 대학 오케스트라가 펼치는 교향악의 향연. 11월 15일 인제대학교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시작으로 7일 동안 서곡, 협주곡, 교향곡 등을 들려준다.

일정

11월 15일(일) 19:30 인제대학교(지휘/손봉준교수)
11월 16일(월) 19:30 신라대학교(지휘/백진현교수)
11월 17일(화) 19:30 동아대학교(지휘/이동신교수)
11월 18일(수) 19:30 동의대학교(지휘/윤상운교수)
11월 19일(목) 19:30 고신대학교(지휘/오충근교수)
11월 20일(금) 19:30 경성대학교(지휘/이기균교수)
11월 25일(수) 19:30 부산대학교(지휘/박성완교수)
※ 18일, 19일, 20일 공연은 금정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진행됩니다.

■ 문 의 부산음악협회(634-1295)

부산아카데믹오케스트라 제11회 정기연주회

11월 15일 일요일 오후 7:00 중극장

전문연주단체인 사단법인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부속단체로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교육과 운영을 맡고 있는 순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부산아카데믹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제 11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엘가/위풍당당 행진곡
베토벤/교향곡 제5번 1악장
모차르트/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
영화음악/미션임파서블, 오버 더 레인보우 등 수곡

· 지휘/김용문(동아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교수)
· 협연/윤예섭(부산아카데믹오케스트라 단원)

■ 문 의 장은정(017-842-6688)

문향예술연구회 정기연주회

11월 15일 일요일 오후 6:00 소극장

연주회 및 세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음악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음악전공자 30여명으로 결성된 문향예술연구회 정기연주회. 문향은 '세상의 향기를 듣는…' 라는 뜻이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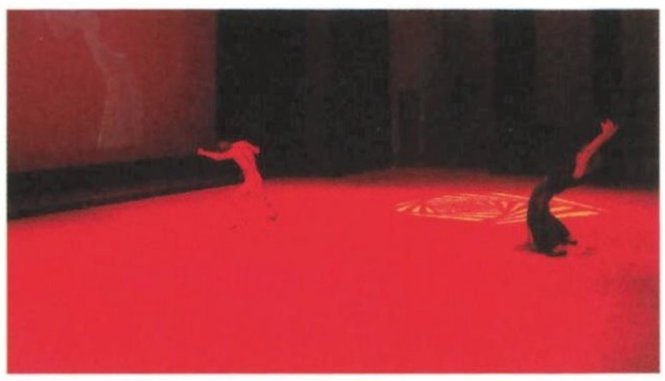
멘델스존/엄격변주곡
히나스테라/아르헨티나 춤곡
슈베르트/즉흥곡 등 수곡

· 연주/김경미, 김선경, 박수경, 박옥희, 백은영, 손영주

■ 문 의 김미옥(017-540-5558)

2009 부산국제전자음악축제 (제15회 부산전자음악협회 정기공연)

11월 16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새롭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전자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어온 부산전자음악협회 제 15회 정기연주회.

올해는 국내 9명의 작곡가와 국외 작곡가(독일, 터키, 대만) 3명이 참가, 실시간 음악편집을 통해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의 새로운 면을 보여준다.

프로그램

박철홍/A Wiggle & Writhe
하기종/A Journey of Fractal for Electro-acoustic Sound and Visuals
최종문/실험 I (Experimentation I)
손현석/하얀 방
주창근/솔로 오보에와 라이브 일렉트로닉을 위한 '구성V'
David Borges(독일)/Oscil]o
Ali Isciler(터키)/The Infinite Road 등 수곡

■ 문 의 부산전자음악협회(011-873-7983)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오페라 음악극 '윤동주, 그 아련함을 다시 기억하며……'

11월 17일 화요일 오후 2:00, 7:30 중극장

부산시립합창단이 지난 4월 부산에서 초연한 오페라 음악극 '윤동주'를 추억하며 새롭게 무대에 올리는 '윤동주, 그 아련함을 다시 기억하며…' 특별무대.

오페라 음악극 '윤동주'는 한국적 오페라, 한국음악극의 성격을 갖춘 작품으로 주옥같은 윤동주의 시

를 노래가사로 사용, 단순한 오페라 뮤지컬이 아니라 시와 음악의 만남이라는 예술가곡의 형태로 감동을 전해준다.

· 작곡/이용주
· 지휘/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및 수석지휘자)
· 연출/정순지

주요배역

최춘식, 이재원(이상 윤동주), 김나영(윤혜원), 김창돈, 김태우(이상 송몽규), 최영수(윤동주 부), 최선희(윤동주 모), 강은태(강태식), 남순천(시즈코), 엄남이, 구명금(이상 친구), 오승중, 이연기(이상 형사) 외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3)

2009 김복선발레
차이코프스키 발레향연

11월 18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동아무용콩쿠르 금상, 대한민국무용제 대상 · 연기상수상, 한국발레협회 작품상과 공로상, 서울무용제 안무상 · 연기상을 수상하고 현재 한국발레협회 상임이사, 동아발레단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아대학교 김복선 교수의 2009년 발레무대.

대중에게 친숙하면서도 높은 예술성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차이코프스키 작곡의 발레작품 중 하이라이트 부분을 엄선하여 갈라 형식으로 선보인다.

프로그램

호두까기 인형중에서 꽃의 왈츠 & 그랑 파드되, 잠자는 숲속의 미녀중에서 그랑 파드 되, 백조의 호수중에서 파드되, 차이코프스키 파드되, 오페라 오네긴 중에서 '라리나의 무도회' 등

출연

박순영(러시아 세르게이 레첸코 국립발레단 단원), 즈바긴쩨브 이반 바실리예비치(볼쇼이발레단 단원), 김보연 & 시가 이쿠에(일본 도쿄시티발레단 주역무용수), 조혜진(광주시립발레단 단원), 노르보예프 벨릭떼(전 유니버설발레단 단원), 신현지(전 국립발레단 단원), 김민지, 김미정, 정영수, 유성민 외 김복선발레단원 15명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15,000원
(학생은 20% 할인)
■ 문 의 김복선발레단(200-7819, 200-7823, 010-6495-6623)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돕기 연제여성합창단 제 9회 정기연주회

11월 18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1995년 지역민의 정서함양과 연제구의 홍보를 위해 순수 아마추어 어머니합창단으로 출발한 연제여성합창단의 제 9회 정기연주회.

윤정윤이 지휘하는 연제합창단은 2002년 롯데백화점 합창경연대회 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2002년 부산합창올림픽 반주 민요부분 은메달, 2004년 독일 브레멘세계합창올림픽 반주 민요부분 금상, 2008년 오스트리아 그라츠 세계합창올림픽 반주 민요부분 은메달, 2008 부산국제합창제 은상 등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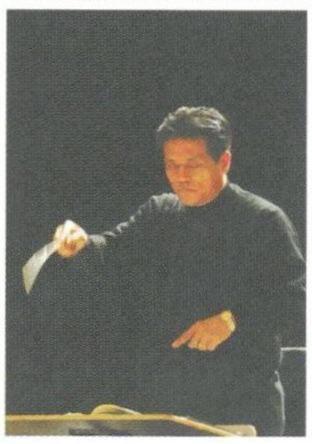
프로그램

예술 가곡/님이 오시는지, 도라지 꽃, 강건너 봄이 오듯
대중음악/Time to say goodbye, 사랑하기 때문에, Canzone! Canzone! 등 수곡
· 특별 출연/바리톤 박대용, 메조소프라노 박소현

■ 문 의 최갑순(010-3242-2626)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48회 정기연주회 '華嚴(화엄)'
생명의 축제-깨달음의 소리

11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지휘 김영동

창작국악의 신선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을 담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48회 정기연주회.

순수와 대중음악의 세계를 넘나들며 끊임없는 실험정신을 보여준 작곡가 김영동이 오랜만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호흡을 맞추는 이번 무대는 김영동이 작곡한 창작음악 '華嚴(화엄)'을 부제로, 편안하면서도 친근하고, 때론 엄숙하고 장중한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김희조/합주곡 1번
황호준/국악관현악 '비밀의 숲'(부산초연)
김영동/국악관현악 '하나'(부산초연)
김영동/화엄(華嚴)(부산초연)
· 객원지휘/김영동
· 협연/남성앙상블 VOCE, 박성진(노래)
· 객원출연/유성호(베이스기타), 장성환(일렉트릭기타)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장인숙 전통춤 공연

11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신라대학교와 동대학원, 동아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부드러운 몸선과 힘이 어우러지는 우리춤의 맥을 이어온 장인숙의 전통춤 무대.

장인숙은 제17회 서울국제무용제에서 '할미꽃 각시꽃'으로 개인연기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지전춤, 굿거리춤, 한량무, 원향지무, 승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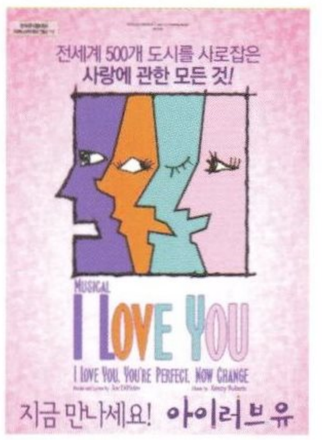
출연

장인숙, 김현임, 이광호, 이솔라, 최현경, 조은미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장인숙(010-8058-4602)

뮤지컬 '아이러브유' 부산무대

11월 20일-22일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대극장



남녀의 첫 만남에서부터 사랑, 결혼 그리고 함께 살아가면서 겪는 자질구레한 일들과 섹스, 육아, 가족, 노년기의 사랑까지 풍성한 에피소드들을 옴니버스 형태로 풀어낸 뮤지컬 '아이러브 유' 부산무대.

오프 브로드웨이의 히트메이커 조 디피에트로가 작사와 대본을 맡고 지미 로버즈가 작곡한 뮤지컬 '아이 러브 유'는 남경주, 선우, 한애리, 전나혜 4명

의 배우가 60개의 캐릭터를 쉴 새 없이 넘나들며 남녀 관계의 갈등과 고민을 재미있게 풀어낸다.

■ 관람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SPA엔터테인먼트(055-262-0117)

2009 타로 - 온고지신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4:00, 7:30 중극장

2009년 부산시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공모사업에 1위로 선정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는 '타로'의 2009년 무대.

2004년 창단공연을 시작으로 꾸준한 활동을 펼쳐온 타로는 2009년 KBS 장안산사음악회(장안사 특별야외무대), 기획공연 '타로와 재즈피아노'(부산예술대학 원곡예술관), 일본 후쿠오카 카마시, 다자이후시 초청 공연, 제3차 OECD 세계포럼 '갈라 디너'(부산 벡스코) 공연 등에서 전문공연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무대는 새롭고 빠른 음악 퓨전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대인들의 가슴 속에 오랜 여운이 남는 우리전통음악의 깊고 아름다운 세계를 전해준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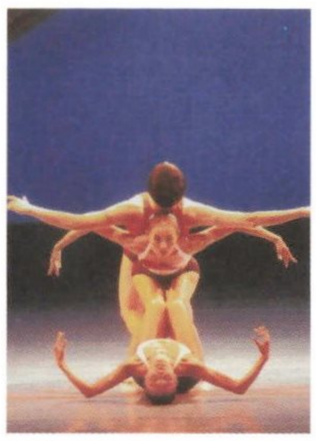
경기도당굿(연주/장주영, 권보름, 최정욱, 이봉우, 이경희, 권두솔, 이성준, 이석주 외
아쟁산조(아쟁/박대성 · 장구/김청만)
남도민요 '보렴' '육자배기'(소리-보렴/방지혜 외 5명 · 육자배기/박성희, 김유경 외)
'다드리'와 사물놀이(연주/이봉우, 권보름, 최정욱, 장주영, 권두솔, 이경희, 강우담)
판소리 with 재즈그룹 'Groovy'(소리/박성희 · 고수/신문범 · 재즈/재즈그룹 'Groovy')
2009모듬북 합주 '새울림' with '미르'(연주/신문범, 이봉우, 권보름, 최정욱, 장주영, 권두솔 외)
· 총괄지휘/신문범 · 무대연출/강열우
· 해설/박성희

■ 관람료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 문 의 이일록(010-3282-8014)

제 16회 신정희 발레공연

11월 22일 일요일 오후 7:00 중극장



부산의 발레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경성대학교 신정희 교수의 2009년 발레 무대.

그랑발레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며 International Festival Competiton의 발레 심사위원장과 국내외 다수 무용콩쿠르 심사위원을 역임한 신정희교수는 2004년 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 국립무용전문학교와 교류협정을 맺고 발레 교육환경을 개선하기도 했다.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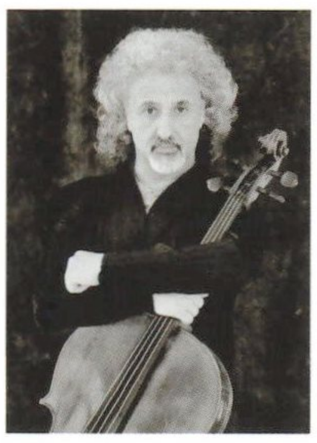
La Bayadére(안무/Marius Petipa · 재안무/신정희 · 음악/Ludwing Minku · 출연/서지연, 정미경, 최연순, 김수연, 박소라, 이민지, 문정희 외)
젊은이와 죽음(안무롤랑 프티 · 재안무/신정희 · 음악/바흐 · 대본/전국조 · 출연/정두순, 최우석)
이브의 일곱 딸들(안무/신정희 · 음악/South Africa 외 편집 · 출연/정두순, 이고운, 서지연, 정미경 외)

■ 관람료 일반 30,000원 · 학생 15,000원

■ 문 의 신정희(620-4693, 011-875-4963)
예은예술기획(632-6904)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적인 거장 미샤 마이스키 첼로 리사이틀

11월 23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예리한 액센트, 절제된 다이내믹한 연주로 거장의 반열에 오른 세계적인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부산연주회.

미샤 마이스키는 1966년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 로스트로포비치와 피아티고르스키를 사사하며 이 시대 최고의 두 거장에게 모두 가르침을 받은 유일한 첼리스트이다.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2년간의 옥중생활을 해야 했던 미샤 마이스키는 1972년, 24세 때 출국허가가 내려져 자유를 찾아 이스라엘로 이주하면서 다양한 연주로 서방에 그의 이름을 알렸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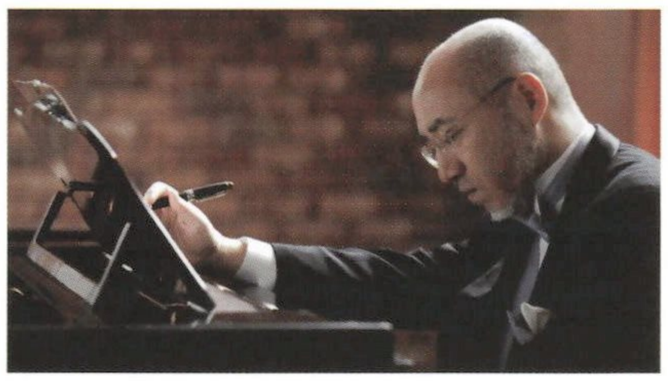
베토벤/모차르트 '마술피리' 주제에 의한 일곱 개 변주곡
파야/스페인 민요 모음곡
드뷔시/소나타 라단조
라흐마니노프/엘레지 마단조 작품3-1
쇼스타코비치/첼로 소나타 라단조 작품 40 등

■ 관람료 R석 150,000원 · S석 120,000원
A석 80,000원 · B석 50,000원
C석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공연기획 예성(582-2026)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한국 데뷔 10주년 기념 유키 구라모토 피아노 콘서트

11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1999년 예술의전당에서의 첫 콘서트를 전석 매진시키며 성공적인 한국데뷔 무대를 가진 유키 구라모토 한국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 부산무대.

매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에 뉴에이지 붐을 일으킨 유키 구라모토는 199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식 라이센스 음반이 제작(C&L 뮤직)되면서, 서정적이면서도 감성을 자극하는 멜로디가 각종 광고와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다. 유키 구라모토는 우리나라에서 연이어 플래티넘을 기록한 6장의 앨범을 포함한 총 13장의 음반발매와 예술의전당 2003년 유료 관객 점유율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프로그램

Timeless Love, Meditation, Look Down The See, Sonnet Of Fountain, Virgin Road For Celebration, Romance, Invitation to Sweet Dream, Second Romance, Soaring 등 수곡

■ 관람료 R석 70,000원 ·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B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테너 김동국 독창회

11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경성대학교, 이탈리아 G. B. Pergolesi 국립음악원, 이탈리아 Pescara 국립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현재 남성성악앙상블 4+1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테너 김동국 독창회.

이탈리아 Ruggero Leoncavallo 국제콩쿠르에 입상한 바 있는 김동국은 이탈리아 S. Giovanni Rotondo 시 초청 독창회,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관현악단 등의 협연 무대에 서 왔다.

프로그램

벨리니/타는 듯한 열망
루치/아베마리아
쿠르티스/나를 잊지말아요
최택헌/왜 등 수곡

· 피아노/최혜련 · 해설/오동주
· 우정출연/남성성악앙상블4+1

■ 문 의 김동국(010-2650-9582)

가야금앙상블 현의 사랑 세 번째 정기연주회

11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소극장

2007년 창단된 부산어머니가야금연주단이 2009년 단체명을 '현의 사랑'으로 바꾸고 들려주는 제 3회 정기연주회.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출발한 가야금앙상블 '현의 사랑'은 연주경력 5년에서부터 20년에 이르는 열혈 연주자들이 우리 음악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프로그램

가야금산조 '성금연류 짧은 산조'
가야금병창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강봉천/25현 가야금 3중주 '절영의 전설'
7080가요 25현가야금 3중주/당신은 모르실거야, 목노주점, 부산갈매기 등

· 단장/강봉천 · 음악감독/박정미
· 연주/박현숙, 주미영, 김귀려, 최운하, 이행연, 염수경
· 반주/이진희, 조설리, 박은정

■ 문 의 강봉천(010-5355-4833)

김남희 피아노독주회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울산대학교 음악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울산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는 김남희 피아노 독주회.

프로그램

바흐/토카타 라장조 BWV. 192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 17번 '템페스트'
프로코피에프/피아노 소나타 제 3번 작품28 등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김남희(010-9485-7388)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4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심포니 Ⅶ

11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지휘 곽승

피아노 플로리안 울리히

신임 수석지휘자 리신차오 취임이후 다양한 시도를 통해 부산음악애호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제 454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작품에 있어 최고의 해석을 보여주고 있는 지휘자 곽승이 객원지휘하고 독일 출신의 피아니스트 플로리안 울리히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영웅, 운명, 전원, 합창 등과 같이 별도의 표제가 붙어 있지 않으면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베토벤 교향곡 7번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로시니/세미라미데 서곡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24번
베토벤/교향곡 제7번
· 지휘/곽승(대구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 피아노/플로리안 울리히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한새 오카리나 제 8회 정기연주회

11월 27일 금요일 오후 7:00 소극장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수 13명으로 창단된 한새오카리나 앙상블 정기연주회.

2002년 창단 이래 매년 정기연주회를 열어온 한새오카리나 앙상블은 학교아동들을 대상으로 오카리나 모임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지도하며 오카리나 보급에 힘써왔다. 지난해 통영국제음악제 프린지에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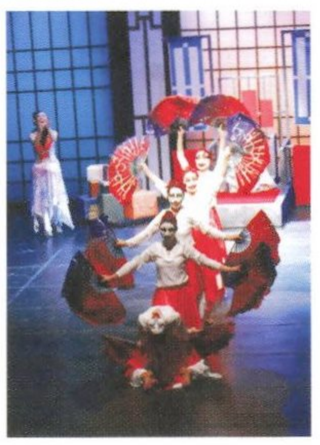
프로그램

물놀이, 탄포포포, 고구려벽화, 몽가도, 그대는 눈물겹다, 루나시아,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바람이 분다 등

■ 문 의 황미경(010-5036-4787)

국공립극단교류 기획특별공연 전주시립극단 춘향은 울지 않는다

11월 28일 토요일 오후 3:00, 7:30 중극장



부산시립극단의 전주 공연에 이어 전주시립극단이 마련하는 국공립극단교류 기획특별공연 '춘향은 울지 않는다' 부산무대.

'춘향은 울지 않는다'는 자기희생을 감내하는 지고지순한 사랑과 문제해결의 만능열쇠인 권력, 신분상승의 기적을 고난극복의 유일한 출구로 여겼던 그 시대의 가치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원작 '춘향전'을 오늘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 작/곽병창 · 연출/조민철

출연

고조영, 국영숙, 김경민, 김영주, 김정영, 김종록, 백민기, 서유정, 서주희, 서형화, 소종호, 안대원 외

■ 관람료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607- 3100),
부산시립극단(607-3151)

2009 매구놀이마당 정기연주회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국악한마당)

11월 29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부산시지정 무형문화재 제 6호인 부산농악전수 조교 및 이수자, 전수자들로 구성된 매구놀이마당의 2009년 정기연주회.

올해는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한국 전통문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 한국음악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전통 문화를 이해 할 수 있게 있는 국악한마당을 펼친다.

프로그램

모듬북, 영남풍물가락, 가야금병창 '춘향가 중 사랑가'
삼도풍물가락, 풍물 판굿

출연

이상우, 구자민, 유경윤, 성현지, 성지호, 성해림, 강준혁, 박상욱, 이영운, 황미숙, 황성심, 김하정 외

■ 문 의 매구놀이마당(http://cafe.daum.net/maegu, 327-7100, 010-5488-5941)

정안회 제 2회 정기연주회

11월 29일 일요일 오후 6:00 소극장

학부를 졸업하고 음악현장에서 활동 중인 정안선 제자들로 구성된 정안회의 제 2회 정기연주회.

가을과 어우러지는 솔로곡와 듀오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32번
브람스/스케르쪼 4번, 왈츠, 헝가리안 댄스
헨델/사라방드 등 수곡

출연

김현주, 이진희, 박선주. 이지혜, 이선영 등

· 특별출연/오한길, 김시원(첼로)

■ 문 의 이구일(011-864-0291)

심어라 첼로 독주회 'Musical Journey to Sonatas'

11월 30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서정적이면서도 아카데믹한 연주로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는 첼리스트 심어라 첼로 독주회.

1997년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중앙음악학교에 입학한 심어라는 1999년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중앙음악학교에서 Evgrafov를,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에서 거장 Tchaikovskaya를 사사하며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심어라는 17세의 나이로 러시아 국내 청소년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하고 같은 해 노보시비르스크 시향과의 협연을 시작으로 모스크바 발쇼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연 등으로 주목받았다.

프로그램

베토벤/첼로 소나타 5번 라장조 작품 102-2
미야스코프스키/첼로소나타 2번 가단조 작품 81
라흐마니노프/첼로소나타 사단조 작품 19 등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아트뱅크 코레아(442-1941)

최은희 창작춤 '화신(化身)'

12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1985년 부산 최초의 민간단체 '춤패 배김새'를 창단, 지역의 춤 언어를 찾고, 새로운 창작기법을 모색해 온 경성대학교 최은희 교수의 2009년 창작 춤 무대.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이수자로 우리춤의 맥을 잇고 있는 최은희교수는 부산시립무용단 안무자, 울산시립무용단 초대상임안무자를 역임하고 2009년부터 부산무용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화신(化身)'은 중생 제도차 이 세상에 나타난 석가의 일[=化身]을 바탕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네 원소(地, 水, 火, 風)의 순환을 통해 이 땅에 새 생명을 계시하고자 하는 구원자로서의 여인을 여정을 그리고 있다.

■ 작품

제 1 장 [프롤로그] 맞이굿
제 2 장 [태:胎] 새 생명의 탄생
제 3 장 [염:炎] 욕망이 신천지
제 4 장 [사:沙] 어전투구의 세상
제 5 장 [꽃:花] 낙원의 도래
제 6 장 [에필로그] 씻김의 유토피아
· 연출, 총안무/최은희
· 대본/정재형, 최은희
· 영상/최성원(용인대학교 교수)
· 음악/양동준(연세대학교 겸임교수)

출연

최은희, 하연화, 구영희, 박성호, 김민경, 황수정, 조은정, 안주현, 박수정, 이혜경 외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문 의 안주현(010-8553-3665)

음악

최지혜 피아노 귀국독주회

11월 1일 일요일 오후 6: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계명대학교 피아노과와 Poland Chopin University of Music을 졸업하고 그동안 폴란드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피아니스트 최지혜 귀국독주회.

프로그램

하이든/변주곡 바단조 Hob. XVII:6
쇼팽/마주르카 작품 56 제 1, 2, 3번
무소르그스키/전람회의 그림 등

■ 문 의 최지혜(010-4651-2879)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3일 크로노스 퀸텟 초청연주회
'탱고가 있는 음악'

2002년 창단 이후 다양한 무대에 서온 크로노스 앙상블의 소그룹 실내악연주팀 '크로노스 퀸텟' 초청연주회.

· 연주/이장호, 우소라(바이올린), 김상철(비올라), 김판수(첼로), 이성희(피아노)
· 특별출연/황희경(반도네온), 류재환(오보에)
· 탱고/오미건, 김동우, 강지예, 장정수

■10일 신인음악회-관현악 '내꿈을 향하여 I'

차세대 음악인들을 위한 신인음악회 첫 번째 무대로, 악기 전공자 6명이 무대에 선다.

· 출연/이솔(바이올린 · 신라대학교 4년), 이아름(플루트 · 고신대학교 4년), 이환석(클라리넷 · 경성대학교 4년), 전주희(플루트 · 인제대학교 4년), 최지예(첼로 · 부산대학교 4년), 홍혜진(바이올린 · 동의대학교 4년)

■17일 신인음악회-성악 '내꿈을 향하여 II'

부산지역 대학 성악전공자 5명이 무대에 서는 신인음악회 두 번째 무대.

· 출연/김달의(소프라노 · 부산대학교 4년), 문희법(바리톤 · 경성대학교 4년), 양효정(소프라노 · 인제대학교 4년), 장한별(소프라노 · 고신대학교 4년), 최유진(소프라노, 동의대학교 4년)

■24일 부산뮤즈플루트앙상블 초청연주회
'여인의 향기'

2005년 창단 이후 5차례 정기연주회와 부산교육연수원 초청연주회, 부산문화회관 로비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부산뮤즈플루트앙상블 초청연주회.

프로그램

스트라우스/안넨폴카 작품 117
비발비/두대의 플루트를 위한 협주곡 제 2번 다장조
파헬벨/캐논 등 수곡

· 음악감독/강선아 · 협연/테너 이승우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 의 가톨릭센터(441-3788)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3일 허회성 가야금 독주회

부산대학교 국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고령 전국가야금대회 일반부 은상, 부산국악대전 기악부문 장원을 수상한 허회성 가야금 독주회.

프로그램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25현 가야금 창작곡 '아리랑' '도라지' '아랑의 꿈'

■10일 홍은정의 舞, 그리고 人生

국립민속국악원 단원으로 있는 춤꾼 홍은정의 전통춤 무대.

프로그램

살풀이춤, 신칼무, 태평무, 승무, 풍류춤, 장구춤, 진도북춤

■17일 양은주의 소리를 향한 나의 열정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 및 동대학원을 수료하고 국립민속국악원 단원으로 있는 양은주의 창작소리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 2호 '심청가' 이수자인 양은주는 이번 무대에서 창작판소리 '열사가'를 들려준다.

■24일 조윤경 해금 독주회 '활의 노래'

국립부산국악원 단원으로 있는 조윤경 해금독주회.

프로그램

상생(相生), 활의 노래, 지영희류 해금산조, 시나위

■ 관람료 균일 6,000원
■ 문 의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4일 테너 임충진 독창회

서울대학교 성악과와 이태리 노바라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브니엘예술고등학교 음악부장으로 있는 테너 임충진 독창회.

한국성악회 콩쿠르(1위), 이태리 피렌체 국제성악콩쿠르(우승)에서 입상한 바 있는 임충진은 이번 무대에서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피아노/하예라
· 찬조출연/소프라노 정명지, 메조소프라노 강희영, 베이스 김정대

■11일 바리톤 김병호 독창회

계명대학교 성악과와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시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창신대학 음악과 학과장으로 있는 바리톤 김병호 독창회.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회로, 국내외 가곡 및 우리민요를 들려준다.

· 피아노/윤민선(창신대학 교수)
· 찬조출연/CSC Quintet, 창신싱어즈

■18일 테너 김화정 독창회

동의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마자떼 도니제티, 빠르마 오르페오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는 테너 김화정 독창회.

이번 무대에서는 이별의 노래, 매혹, 최후의 노래 등 토스티 가곡으로 마련된다.

■25일 박은아 플루트 독주회

영국 왕립음악원을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현재 울산심포니 수석단원으로 있는 플루티스트 박은아 독주회.

프로그램

J. Ranish/소나타 라단조

루터/앤티크 모음

바르톡/헝가리춤곡 모음 등

· 피아노/김정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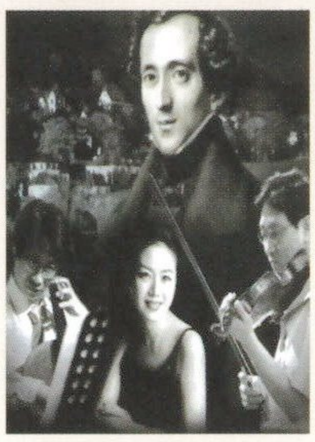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 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 김성은, 박현영 조인트 리사이틀

11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영남대학교와 오스트리아 케른트너 주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경남쳄버소사이어티 단원, E.M.B 피아노 트리오 리더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성은과 부산대학교와 독일 뉘른베르크 고등음악원(석사), 미국 보스턴음대(석사), 마이애미대학교(박사)를 졸업한 첼리스트 박현영이 함께하는 조인트 리사이틀.

낭만파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을 맞아 그의 대표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윤민화

■ 문 의 김성은(010-8549-8265)

해운대문화회관 목요상설무대

매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다목적홀

■5일 Jazz & Rock in Classic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와 함께 떠나는 재즈와 락의 신나는 음악여행.

■12일 오페라 & 뮤지컬

YMCA오페라합창단이 출연, 유명 오페라와 뮤지컬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오페라 & 뮤지컬' 갈라콘서트.

■19일 매직쇼

동부산대학 매직엔터테인먼트과 학생들이 환상적인 마술의 세계를 보여주는 '매직쇼'.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제 4회 정승찬 플루트 독주회

11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고신대학교와 Haydn Musik Konservatorium 전문연주자과정과 Wien Musik Konservatorium 최고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고신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는 플루티스트 정승찬 독주회.

프로그램

드뷔시/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제 3번 '달빛'

바흐/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마단조 BWV 1034

모차르트/플루트 4중주 다장조 K.285b 등

· 피아노/유영욱

· 게스트/김성은(바이올린), 이정한(비올라), 박현영(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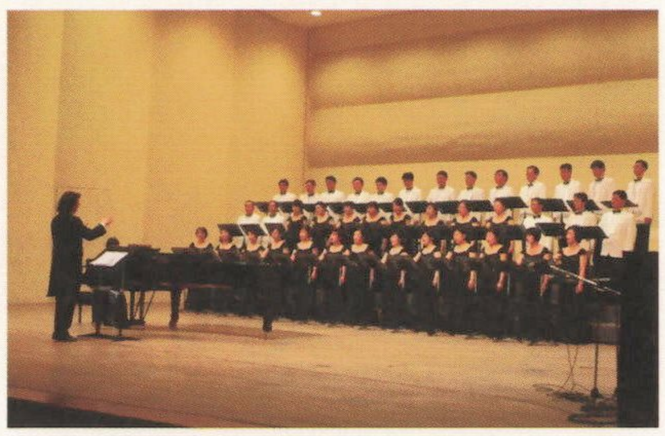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정승찬(010-2557-6643)

뮤즈콘서트콰이어 제 3회 정기연주회

11월 7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07년 부산대학교 합창단 출신 동문, 부산, 경남지역 합창애호가들로 결성된 뮤즈콘서트콰이어 정기연주회.

모차르트의 '대관식미사' 전곡을 비롯 우리가곡 및 영화주제곡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지휘/조현수 · 피아노/박재나

· 찬조출연/부천남성합창단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 의 추인수(019-503-9693)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 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7일

관현합주 '취타', '길군악', 정재검무, 산조합주, 살풀이, 단막극 '화초장', 해금중주 '다랑쉬' 등

■14일

관악영산회상 '상령산', 가인전목단, 대금산조, 태평무, 가야금중주 '호호굿', 남도민요 '성주풀이' 등

■21일

수제천, 향발무, 가사 '백구사', 산조병주, 승전무, 실내악 '바라지', 부채춤, 구음과 사물놀이

■28일

천년만세, 무산향, 판소리 춘향가 중 '오리정 이별' 대목, 시나위, 장구춤, 프론티어, 풍년가, 밀양백중놀이

■ 관람료 A석 8,000원 · B석 6,000원

■ 문 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꼬레아오페라단 버섯피자

11월 8일 일요일 오후 5:00, 8: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현대오페라의 대표적인 작곡가 세이머 배럽의 희가극으로, 사랑, 배신, 질투, 증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다양한 헤프닝을 코미디 형식의 연극적 요소와 이태리 벨칸토 선율로 풀어낸 오페라 '버섯피자'.

· 단장/안상철 · 예술감독/김길수

· 지휘/오창록 · 연출/김성경

· 연주/꼬레아 오페라 오케스트라

· 출연/소프라노 김양자, 정재영, 메조소프라노 박소년, 이민정, 테너 이한성, 양승엽, 바리톤 안상철, 김성복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예매시 10% 할인)

■ 문 의 안상철(010-2400-5271)

창단 20주년 기념 제 26회 뮤즈앙상블 정기연주회

11월 9일 월요일 저녁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89년 부산지역 대학교수와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 수석단원으로 결성된 후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순회연주회, 부산국제음악제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클래식음악 저변확대에 힘써온 뮤즈앙상블 창단 20주년 기념음악회.

프로그램

모차르트/클라리넷 5중주 가장조 Kv.581

드보르작/피아노 5중주 제 2번 가장조 작품 81

· 연주/임병원, 김은정, 황지원(바이올린), 박주연(비올라), 김판수, 이명진(첼로), 조현선(피아노), 손기영(클라리넷)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문 의 예솔기획(0505-700-9798)

제 35회 독일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 가곡과 오라토리오 '엘리야'

11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87년 창단 후 독일예술가곡 연구와 연주활동에 힘써온 독일가곡연구회가 독일 낭만시대 작곡가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연주회.

멘델스존의 가곡과 중창곡, 오라토리오 '엘리야'를 독일가곡연구회 회원들과 부산YMCA오페라합창단이 함께 들려준다.

· 출연/소프라노 박미경, 김현숙, 황정원, 김혜정, 김현주, 장은녕, 김현애, 테너 김현식, 김지호, 우원석, 조윤환, 바리톤 허종영, 김종화, 베이스 김일석, 피아노 김남숙, 박혜선, 박미은, 박필은, 이화영선, 김성희, 곽윤희, 임효진, 공소현

· 합창/부산YMCA오페라합창단(지휘/김명규)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 의 김현식(011-566-4172)

독일과 프랑스 음악

11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하나의 주제로 미술, 문학, 역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아카데미 콘서트 '렉쳐 콘서트' 6번째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이성과 감성'을 통해 바라보는 독일과 프랑스 음악이라는 주제로, 바로크에서 현대에 이르는 두 나라의 대표적인 작곡가들의 작품을 피아노 연주로 만날 수 있다.

· 해설/하서경

· 연주/최윤정, 이성애, 이지선, 정은정, 김소희

■ 문 의 하서경(010-7309-4904)

부산동보악회 정기연주회 큰 나무 이야기

11월 11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2008년 12월 결성된 거문고 연구회 '동보악회' 부산지회인 부산동보악회가 마련하는 정기무대.

동보악회는 지난 2001년 자연 그대로의 거문고소리를 들려주고자 서울대학교 정대석 교수를 주축으로 각 대학 거문고 전공자들로 창단되었다.

· 출연/이대하(부산동보악회 대표), 박하혜, 오상훈, 전현진, 정민희, 김명희, 김준영, 주윤정, 손채영, 박유림, 이정아, 이선화, 이민영, 정예슬, 김지수, 최진영

· 객원출연/박춘석(피리), 최윤정(해금), 송강수(장구), 박은영(가곡), 이희재(가곡)

· 해설/이진호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이대하(010-7499-1726)

제 1103회 MBC 목요음악감상회 부산시티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11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박성은 김상곤

그동안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관객과 만나온 부산시티오케스트라의 창단연주회로 마련되는 MBC 목요음악감상회.

프로그램

글린카/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카르딜로/무정한 마음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 5번 마단조 작품 64 등
· 지휘/박성은(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 협연/테너 김상곤(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 의 (사)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

중요무형문화재 제 57호 경기민요 제 17회 孝 사랑 국악한마당

11월 13일 금요일 오후 7: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사)한국전통민요협회 부산광역시지부(지부장 김선옥)가 매년 시민들을 위해 마련하는 전통국악한마당.

중요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인 이춘희와 경기민요 이수자, (사)한국전통민요협회 부산광역시지부 회원들이 출연해 경기민요를 비롯한 우리 소리와 전통춤을 선보인다.

· 특별출연/이춘희(중요무형문화재 제 57호 경기민요 보유자)
· 찬조출연/이바디 풍물패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김선옥(502-1756)

김유지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11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학사, 석사, 최고연주자과정)를 졸업하고 현재 박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유지 독주회.

김유지는 제 2회 누오로 유럽-지중해 국제음악콩쿠르 1위, 제 8회 라코니지 국제음악콩쿠르 듀오부문 1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바이올린 소나타 제 8번 사장조 작품 30-3
루토슬라브스키/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Subito'
프랑크/바이올린 소나타 가장조 등
· 피아노/박유나

■ 문 의 파인아트예술기획(010-5240-2383)

피아니스트 김미연 클래스 연주회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3:00 글로빌아트홀

피아니스트 김미연의 제자들이 그동안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클래스 연주회.

■ 문 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피아니스트 이승희 클래스 연주회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6:30 글로빌아트홀

피아니스트 이승희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클래스 연주회.

■ 문 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전통공연예술단 빛오름 제 4회 정기공연

11월 15일 일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예악단

원광디지털대학교 전통공연예술학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전통공연예술단 '빛오름'의 4번째 정기공연.

2006년 창단 이후 매년 전국 순회공연을 통해 우리전통문화를 알려오고 있다.

프로그램

문굿, 앉은반 설장구, 입춤, 삼도사물놀이, 민요, 판굿
· 총연출/양진성(중요무형문화재 제 11-마호 임실필봉농악 예능보유자)

■ 문 의 김진희(016-372-7323)

부산신포니에타 청소년 협주곡의 밤

11월 16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인 부산신포니에타가 청소년 유망주들을 위해 마련하는 무대.

프로그램

모차르트/플루트협주곡 제 1번
그리그/피아노협주곡 가단조
부르흐/바이올린협주곡 사단조 등 수곡
· 지휘/박성완(부산대학교 교수)

· 출연/손성경(피아노 · 인제대 2년), 김보민(플루트 · 밀성제일고 2년), 강다현(피아노 · 부산예고 2년), 김소정(피아노 · 부산예중 3년), 윤지윤(첼로 · 부산예중 3년), 최영지(바이올린 · 거제초등 6년), 이가연(바이올린 · 혜화초등 5년)

■ 문 의 김영희(010-8519-0448)

테너 김현식 독창회

11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대학교와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독일 라이프치히 오페라극장 객원성악가로 활동했던 테너 김현식 독창회.

세련된 음악적 해석과 깊은 감성의 음색으로 사랑받고 있는 김현식은 이번 무대에서 국내외 가곡,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우정출연/바리톤 안상철 · 피아노/정금련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김현식(011-566-4172)

제 9회 대학교향악축제

11월 18일-20일 수-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지역 4년제 음악대학 기악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제 9회 대학교향악축제.

11월 15일 인제대학교 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7개 대학오케스트라 공연이 부산문화회관과 금정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 18일(수) 동의대학교(지휘/윤상운)
· 19일(목) 고신대학교(지휘/오충근)
· 20일(금) 경성대학교(지휘/이기균)

■ 문 의 부산음악협회(634-1295)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정기연주회

11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부산, 영남지역에 전승되는 전통음악을 들려주는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의 정기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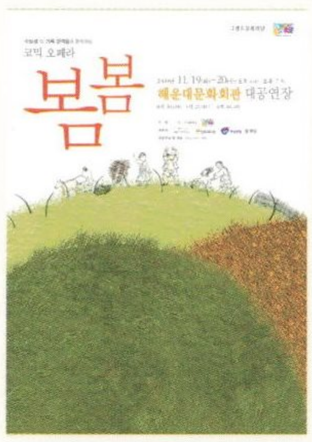
프로그램

관악합주 '보허자',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제주, 한갑득류 산조합주, 영남 성주굿, 기악합주 '푸살' 등

■ 관람료 A석 8,000원 · B석 6,000원
■ 문 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청소년을 위한 가족오페라 봄봄

11월 19일-20일 목-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우리민족 특유의 풍자와 해학을 담은 김유정의 단편소설 '봄봄'을 원작의 탁월한 언어감각과 극적인 구성을 살려 제작한 창작 오페라 '봄봄'.

· 원작/김유정
· 작곡/이건용
· 연출/안호원 · 음악감독, 지휘/정금련
· 출연/김정대, 이철훈, 황석학, 김정원, 성미진, 서민규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사랑티켓 참가작)
■ 문 의 그랜드오페라단(610-1004)

동의대학교 플루트오케스트라 제 2회 정기연주회

11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플루트 전공자들로 결성된 동의대학교 플루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지휘/손명균(동의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 특별출연/정옥경, 김성은, 강선아, 김선영, 최낙주, 한은경, 길명훈, 정병태
· 피아노/배혜정

■ 문 의 동의대학교 음악학과(890-2411~2)

인세냔띠 플루트앙상블 제 4회 정기연주회

11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글로빌아트홀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인세냔띠 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피가로의 결혼' 서곡
브람스/헝가리무곡 제 5번
몬티/차르다시 등 수곡

■ 문 의 한정민(010-5795-1112)

톤인프리 윈드오케스트라 제 10회 정기연주회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50명의 관악연주자들로 결성된 톤인프리 윈드오케스트라의 10번째 정기연주회.

창작곡, 클래식에서부터 영화음악에 이르는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 의 김두천(010-2559-7569)

나윤선& 마티아스 에익 스칸디나비아 듀오콘서트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4:00, 8: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2009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훈장 슈발리에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연주자로 우뚝 선 재즈보컬 나윤선과 인터내셔널 재즈 어워즈 최우수신인상 수상자인 트럼펫터 마티아스 에익이 함께하는 재즈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청량한 겨울느낌의 스칸디나비아 재즈의 서정성을 담은 재즈곡을 들려준다.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금정문화회관(519-5651~5)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리사 무어 피아노 연주회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7:00 고은사진미술관

뉴욕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리사 무어 연주회로 마련되는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프로그램

바이런/7개의 피아노 에튀드
무소르그스키/전람회의 그림 등 수곡

■ 문 의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청년문화 제 2회 정기연주회

11월 22일 일요일 오후 4:00 글로빌아트홀

음악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연주자와 전공자들이 한 무대에 서는 축제의 장,

■ 문 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테너 김성진 독창회

11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서울대학교와 이태리 파르마 아리고보이토 국립음악원, 베르디 아카데미아,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교수로 있는 테너 김성진 독창회.

김성진은 유럽과 남미 초청무대를 통해 '아름다운 미성을 소유한 지적인 모차르트 연주자'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슈만, 포레, 토스티, 모차르트 등 우리에게 친숙한 연주곡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 관람료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 문 의 공연기획 락연(010-9668-9552)

제 3회 백현주 작곡발표회

11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양한 작품활동을 펼쳐온 작곡가 백현주의 세 번째 작곡발표회.

국악기와 양악기가 어우러지는 창작실내악곡에 이어 한국 최초의 여류화가로 비운의 삶을 살다 간 나혜석의 이야기를 담은 음악극 '조선 여자 나혜석'을 무대에 올린다.

· 연출/이강선
· 연주/김지영(가야금), 권은영(거문고), 하정희(장구), 백현주(피아노), 우주호(바리톤), 아이리스앙상블

■ 문 의 백현주(010-4585-2052)

부산교사오케스트라 제 14회 정기연주회

11월 25일 수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95년 부산지역 초 · 중 · 고등학교 교사들로 창단한 부산교사오케스트라의 14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피가로의 결혼' 서곡
베토벤/교향곡 제 1번
모차르트/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내림마장조 K.364 등 수곡

· 지휘/윤상운(동의대학교 교수)
· 협연/우소라(바이올린 ·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홍영선(비올라 ·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 문 의 박주칠(010-5800-7646)

재즈파크 빅밴드와 유열이 함께 하는 싱싱싱

11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한국인이 좋아하는 재즈 명곡을 재즈파크 빅밴드의 화려하면서도 웅장한 사운드로 만날 수 있는 무대.

가수 유열이 재즈싱어로 변신, 재즈파크 빅밴드와 멋진 무대를 선사한다.

· 리더/이인관 · 색소폰/김현일 · 피아노/서현아

■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문 의 시민회관(630-5200)

풍류공장 전통음악 복원 기획연주회 영남풍류

11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영남지역에 전해오는 향제줄풍류(현악영산회상)로, 영남지역 마지막 풍류객인 故 이말량선생의 녹음자료를 복원한 무대.

· 해설/이보형(한국고음반학회 회장)
· 가야금/이지영(서울대학교 교수)
· 양금/유경화(부산대학교 강사)

■ 문 의 풍류공장(010-6575-7968)

제 4회 효산가야금연주단 정기연주회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사)강태홍류 가야금산조보존회 산하 단체로, 2006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온 효산가야금연주단 4번째 정기연주회.

베토벤 곡 '엘리제를 위하여', 영화 '달콤한 인생' 삽입곡이었던 유키 구라모토 곡 'Romance'를 비롯해 아리랑, 경복궁타령, 새타령, 쾌지나 칭칭나네 등 우리민요를 새롭게 편곡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 문 의 김혜련(010-4551-4540)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종대 피리 인생 '관악앙상블 창단연주'

11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리 명인 이종대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무대.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 이수자로 활동하는 이종대는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

프로그램
박범훈류 피리산조, 대풍류, 취타풍류, 관악앙상블(이용탁 작곡, 초연), 태평소와 사물놀이

■ 문 의 진형준(011-9523-8518)

2009 폴 모리아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1월 28일 토요일 오후 3:00, 7:00
KBS부산홀

주옥같은 명곡과 서정적인 선율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지 리스닝(Easy Listering) 음악의 선구자 폴 모리아 오케스트라 부산공연.

2005년 내한공연 당시 전석 매진의 신화를 기록했던 폴 모리아 오케스트라는 이번 공연에서 빌보드 차트 5주 연속 1위의 명곡 'Love is Blue'를 비롯 클래식과 영화주제곡, CF배경음악, '아리랑' '돌아와요 부산항에' 등 우리가요를 들려준다.

■ 관람료 VVIP 150,000원 · VIP 120,000원
R석 100,000원 · S석 80,000원
A석 6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그랜드오페라단(610-1004)

제 23회 지역민과 부산시민을 위한 행복음악회

11월 29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빌아트홀

글로빌아트홀이 매주 마지막주 일요일 부산시민들을 위해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 문 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연극

연극 그남자 그여자

3월 6일(금)-오픈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초콜릿 팩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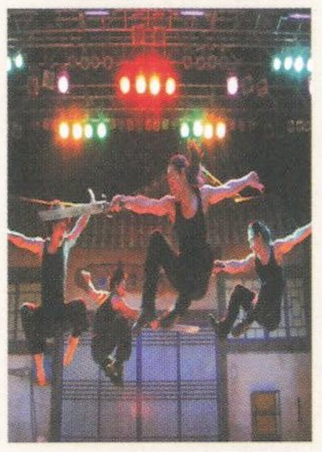
운명적 만남에서 핑크빛 사랑과 쓰라린 이별, 그리고 아련한 추억까지 달콤쌉싸름한 사랑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그린 연극 '그남자 그여자'.

■ 관람료 일반 25,000원 · 중고생 15,000원

■ 문 의 초콜릿 팩토리(621-4005)

2009 점프 부산

9월 10일(목)-오프런 평일 오후 8:00, 토 · 공휴일 오후 5:00, 8:00, 일요일 오후 6:00
IBK 점프부산전용극장(부산롯데호텔 롯데아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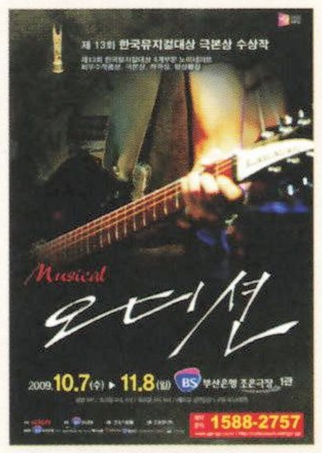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가 혼합된 넌버벌 퍼포먼스 '점프'.

■ 관람료 R석 50,000원
S석 4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IBK점프부산전용극장(810-7000)

뮤지컬 오디션

10월 7일(금)-11월 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 일요일 오후 3:00, 6:3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1관



젊은 뮤지션의 꿈을 향한 고군분투기가 폭발적인 라이브무대와 함께 펼쳐지는 창작뮤지컬 '오디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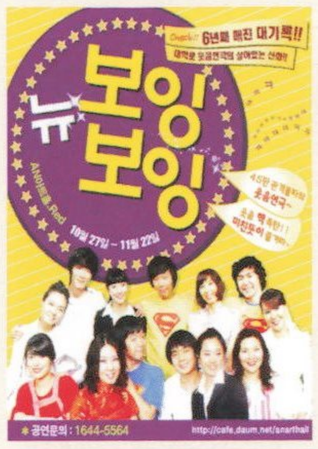
· 작, 연출/박용전
· 출연/허규, 이영윤, 김승환, 정찬희, 정수훈, 강초롱

■ 관람료 균일 4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연극 뉴 보잉보잉-1탄(연애버젼)

10월 27일(화)-11월 2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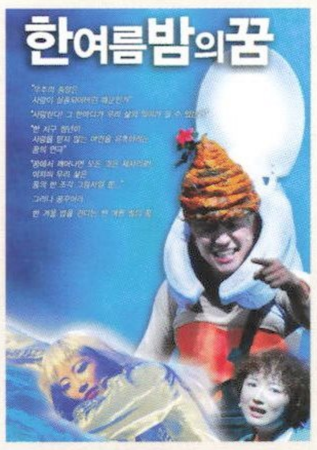
바람둥이 주인공의 아슬아슬한 삼각 애정행각을 다룬 폭소코미디극 '보잉보잉'을 한국적 상황에 새롭게 각색한 '뉴 보잉보잉'.

· 번안, 연출/손남목
· 출연/조창우, 장용, 신수정, 박진영, 김유란, 김소영

■ 관람료 균일 30,000원(학생 20% 할인)
■ 문 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연희단거리패 세익스피어극 두번째무대 뮤지컬 한 여름 밤의 꿈

10월 29일(목)-11월 5일(목)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 · 공휴일 오후 4:00(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세익스피어의 '한 여름 밤의 꿈'을 동시대적 상상력으로 풀어낸 판타지 뮤지컬. 지구인과 우주인, 서로 다른 존재들이 공존하고 연민하고 결국 하나가 되는 꿈과 사랑의 난장이 한 여름밤 꿈처럼 펼쳐진다.

· 각색/이채경 · 연출/남미정
· 출연/변진호, 홍선주, 배보람, 이종민, 정영미, 손범호, 이동준, 이형준, 김준호, 박미영 외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5,000원
■ 문 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어린이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10월 30일 금요일 오전 10:20, 11:20, 오후 3:00, 31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1월 1일 일요일 오후 2:00, 4: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않는 신데렐라의 사랑찾기를 그린 어린이뮤지컬 '신데렐라'.

■ 관람료 균일 25,000원
■ 문 의 문화예술기획 (주)극단하늘(1588-3828)

70분간의 연애-He & She

10월 30일(금)-11월 2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2관

현실적이면서도 유머넘치는 감각적인 대사로 10만 관객을 돌파한 로맨틱 코미디극 '70분간의 연애-He & She'.

· 작/차근호 · 연출/지영
· 출연/추현옥, 김수환, 양진억

■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10%할인)
■ 문 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그 여자들 다시 통닭을 먹다

11월 5일(목)-29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통닭 한 마리와 소주 한 잔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우리 이웃의 삶을 수다와 웃음으로 풀어낸 연극 '그 여자들 다시 통닭을 먹다'.

· 작/강병헌
· 연출/양지웅
· 출연/문성미, 서경화, 김지혜, 김하영, 박훈영, 이재연, 금정원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극단 사계 제 61회 정기공연 메디아 환타지

11월 5일(목)-15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엑터스소극장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사랑과 질투, 복수의 화신 마녀 메디아를 남성 권력구조의 사회에서 치열한 삶을 살았던 여성으로 새롭게 해석한 변지연의 모노드

라마 '메디아 환타지'.

· 작/김윤미
· 연출/허영길
· 작곡/안일웅

■ 관람료 일반 20,000원
학생 15,000원
■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뮤지컬 젊음의 행진

11월 6일 금요일 오후 8:00, 7일 토요일 오후 3:00, 7:00, 8일 일요일 오후 2:00, 6:00 MBC롯데아트홀

1990년대 인기만화 '영심이'를 주인공으로, 8090 세대들의 추억의 가요들로 꾸며지는 콘서트형 뮤지컬.

가수 이성진과 이지훈이 어리버리 순정파 주인공 '왕경태' 역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 관람료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A석 4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10%할인)
■ 문 의 MBC롯데아트홀(760-1360)

어린이 영어뮤지컬 해적이 된 고양이

11월 6일 금요일 오후 6:00 글로빌아트홀

국제어학당 학생들이 선보이는 영어뮤지컬 '해적이 된 고양이'.

■ 문 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토끼의 이솝여행기 II

11월 7일(토)-29일(일) 평일 오전 11:00, 주말 오후 1:00, 3:00(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이솝우화 속 동화의 세계로 들어가게된 토끼의 모험을 통해 이솝우화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어린이 뮤지컬.

· 작, 연출/김만중

· 출연/임선미, 이영봉, 박현민, 박난희

■ 관람료 균일 12,000원

■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뮤지컬 삼총사

11월 7일 토요일 오후 4:00, 8:00,
8일 일요일 오후 3:00, 7:00 시민회관 대극장

프랑스 작가 뒤마의 동명의 소설을 뮤지컬로 제작한 '삼총사'.

2004년 체코 프라하에서 초연된 후 관객 100만명 이상이 관람한 '삼총사'는 신상우, 유준상, 박건형, 김법래, 민영기 등 화려한 캐스팅과 17세기 프랑스 파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아름다운 무대로 볼거리를 선사한다.

· 작, 연출/왕용범

· 출연/신성우, 유준상, 박건형, 김법래, 민영기, 정찬우, 최유하, 백민정 외

■ 관람료 VIP 99,000원 · R석 88,000원
S석 77,000원 · A석 55,000원
B석 44,000원 · C석 33,000원

■ 문 의 (주)KnP엔터테인먼트(1599-8879)

제 1회 가마골소극장 젊은 연출가전 3 의자

11월 11일(수)-2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4:00
(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어느날 한 공간에 5명의 사람이 갇히면서 펼쳐지는 인간 본성의 갈등과 욕망을 그린 창작극 '의자'.

· 작/김형건

· 연출/오치운, 양효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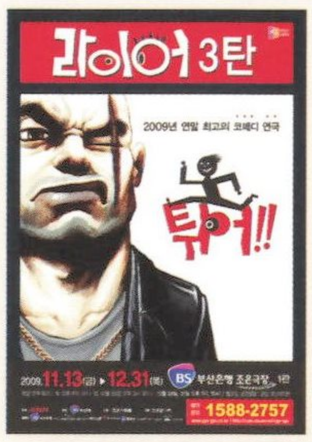
· 출연/고민규, 김병도, 이동욱, 강동석, 박인지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5,000원

■ 문 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라이어 3탄-튀어!!

11월 13일(금)-12월 31일(목)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12/24일, 12/31일 오후 7:00, 10:00, 월요일 공연 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2002년 한국 초연된 후 공연횟수만 3,000회, 80만 관객이 관람한 스테디셀러극 '라이어 3탄-튀어!!'.

우연히 야쿠자의 돈가방을 바꿔들게 된 주인공의 하룻밤 헤프닝이 스피드한 전개와 쉴새없이 꼬이는 기상천외한 상황, 극적인 반전속에서 폭소를 자아낸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카툰뮤지컬 두근두근

11월 20일(금)-12월 31일(목)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사랑과혁명 소극장

몸으로 만들어내는 의성어와 의태어로 외로운 남자의 사랑찾기를 그린 독특한 발상의 카툰뮤지컬 '두근두근'.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 의 SM기획
(1600-1602)

뮤지컬 빨래 앵콜공연

11월 20일(금)-29일(일) 화, 목, 금요일 오후 8:00, 수요일 오후 3:00,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월요일 공연없음) MBC롯데아트홀

9월 부산 첫공연에서 객석점유율 85%를 기록했던 창작뮤지컬 '빨래' 앵콜공연.

만능엔터테인먼트 임창정이 순진한 몽골청년 '솔롱고'역을 다시 맡아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감동적으로 그려낸다.

· 출연/임창정, 정문성, 엄태리, 조선명 외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MBC롯데아트홀(760-1360)

친정엄마와 2박 3일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2일 일요일 오후 3:00 시민회관 대극장

혼자 잘나서 잘사는 줄 알았던 못된 딸과 이 세상에서 제일 보람있는 일이 딸을 낳은 것이라는 친정엄마와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앵콜공연.

· 연출/구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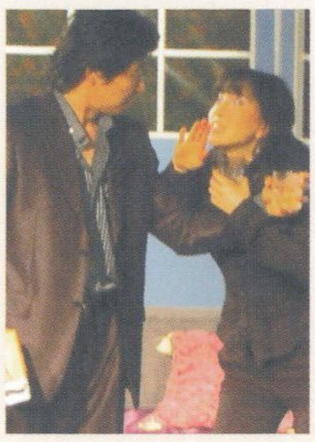
· 출연/강부자-전미선(21일), 강부자-이서림(22일)

■ 관람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

■ 문 의 (주)뉴페이스컴(1588-8477)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11월 24일(화)-2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아내의 재산을 노리는 남편과 이에 맞서는 아내의 숨막히는 두뇌게임이 펼쳐지는 반전 스릴러극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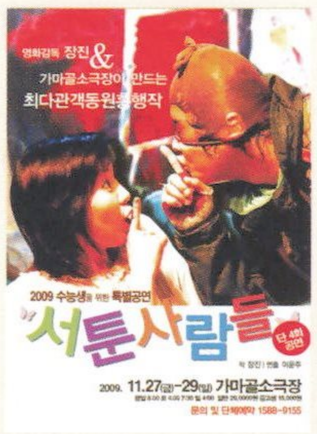
3인조밴드 '맨입사운드'의 감초 코믹연기와 아카펠라앙상블이 극의 재미를 더한다.

· 연출/이기석
· 출연/박병욱, 이진우, 주미리, 배보경, 이청오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 의 SM기획(1600-1602)

2009 수능생을 위한 특별공연 서툰사람들

11월 27일 금요일 오후 8:00, 28일 토요일 오후 4:00, 일요일 오후 4:00
가마골소극장



정많고 서툰 좀도둑 장덕배와 당차고 귀여운 서툰 집주인의 하룻밤 이야기 '서툰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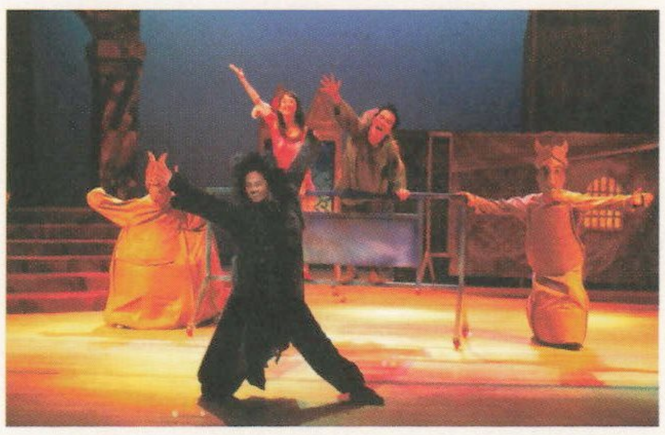
1997년 초연된 후 가마골소극장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로, 최다관객을 동원한 흥행작이다.

· 작/장진 · 연출/이윤주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5,000원
■ 문 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가족뮤지컬 노트르담의 파리

11월 28일-29일 토-일요일 오후 2:00, 4: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프랑스 문호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 드 파리'를 원작으로, 원작의 주제의식을 살리면서도 청소년들의 정서에 맞는 위트와 재미를 가미해 고전의 감동을 전하는 가족뮤지컬 '노트르담의 파리'.

· 예술총감독/정인석(서울예대 교수)
· 각색, 연출/이승원 · 작곡/이용규
· 출연/구시연, 이주원, 김선영, 신용진, 지현준, 김용환, 임종필

■ 관람료 R석 30,000원 S석 25,000원
■ 문 의 극단 즐겨찾기(1566-9921)

연극 휴먼코메디

11월 28일 토요일 오후 4:00, 7:30, 29일 일요일 오후 3:00, 6:00 시민회관 대극장

일상에서 건져올린 감동이 있는 옴니버스 형식의 코믹극 '휴먼코메디'.

한 가족이 만들어내는 유쾌하고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 '가족'과 마임연기를 곁들인 깜찍한 미니 뮤지컬 '냉면', 6인 14역의 절묘한 연기변신과 극적반전이 폭소를 자아내는 '추적' 등 세가지 에피소드가 선보인다.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문 의 시민회관(630-5200)

무용

민병수발레단 제 14회 정기공연 Classic & Creation

11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민병수 교수가 이끄는 민병수발레단이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Classic & Creation'.

'돈키호테' 중 2인무, '해적' 중 2인무,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 '여섯 요정의 춤' 등 클래식 레퍼토리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 2번을 모티브로 안무한 창작발레 '모차르트를 위하여'를 선보인다.

· 안무/민병수 · 지도/김희쟁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부산대학교(510-1740, 2947)

초등교사무용단 춤사랑 제 10회 정기공연

11월 5일 목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96년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사들로 결성된 춤사랑 정기공연.

창단 10주년을 맞아 춤사랑을 거쳐간 안무자와 전임회원 등이 모여 지난 10년간을 되돌아 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 문 의 회장 강영남(016-547-4693)

강미리 홀무용단 활闊 · 류柳

11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부산대학교 강미리 교수가 이끄는 강미리 홀무용단의 창작무대.

· 안무/강미리 · 대본/박희준
· 출연/강미리, 이한순, 권해정, 이혜진, 문희영, 강경희, 권수정, 한지은 외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문 의 부산대학교(510-2948)

영화

Fall in Cinema 영화로 떠나는 가을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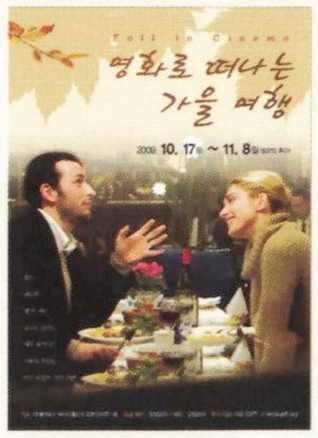
10월 17일(토)-11월 8일(일)
시네마테크 부산(상영시간 홈페이지 참조)

올해 6월 이후 국내 개봉 예술영화 중 화제작 7편을 상영하는 시네마테크 부산 예술영화축제.

상영작

걸어도 걸어도(감독/고레에다 히로카즈), 마이 프렌즈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영화 ›› 콘서트 ›› 행사 ›› 전시 ››



마이 러브(감독/로렌느 레비), 아빠의 화장실(감독/세자르 살론 외), 룸바(감독/도미니크 아벨 외), 세라핀(감독/마르탱 프로보스트), 쉘 위 키스(감독/엠마뉘엘 무레), 해피 플라이트(감독/야구치 시노부)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 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cinema.piff.org)

시네마테크 부산 오래된 극장2

11월 17일(화)-12월 20일(일)
시네마테크 부산(상영시간 홈페이지 참조)

아련한 추억과 생생한 감동을 전해주는 20세기 고전명작 15편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상영전.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 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콘서트

박효신 10주년 기념콘서트 '2009 Gift Live Tour' 부산

11월 7일 토요일 오후 7:00 KBS부산홀

■ 관람료 VIP 99,000원 · R석 88,000원
S석 77,000원 · A석 66,000원
■ 문 의 요요엔터테인먼트(1644-4868)

인순이 콘서트-부산

11월 8일 일요일 오후 5:00 KBS 부산홀

■ 관람료 R석 88,000원 · S석 77,000원
A석 66,000원
■ 문 의 KBS비즈니스(620-7181)

김범수 10주년 기념 콘서트-부산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7:30 KBS 부산홀

■ 관람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 문 의 (주)나인미디어(1588-9578)

이은미 20주년 콘서트 '소리위를 걷다' - 부산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7:00 KBS부산홀

■ 관람료 VIP 88,000원 · R석 77,000원
S석 66,000원 · A석 55,000원
B석 44,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할인)
■ 문 의 베너피아(1644-9751)

행사

제 4회 Just Feeling

11월 28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B-boy전용극장

치열한 예선을 뚫고 본선에 올라온 16명의 팝핑(Popping) 댄서들이 겨루는 제 4회 전국 팝핑대회.

■ 문 의 김기윤(010-3606-4736)

전시

민영기 찻사발展

9월 5일(토)-11월 22(일) 부산시립미술관

■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0-4241)

아트 인 부산 2009 : 인터시티

9월 12일(토)-11월 22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1세기 현재에 있어 도시의 의미와 가능성을 찾아보는 특별기획전.

■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0-4241)

중국국가박물관 명품그릇전 맛을 담는 그릇의 멋

9월 15일(화)-11월 15일(일) 부산박물관

■ 문 의 부산박물관(610-7141~5)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소장품 교류전 낯선 지도

9월 26일(토)-12월 6일(일) 부산시립미술관

세계 유일의 근현대아시아미술 전문미술관인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127점 전시.

■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0-4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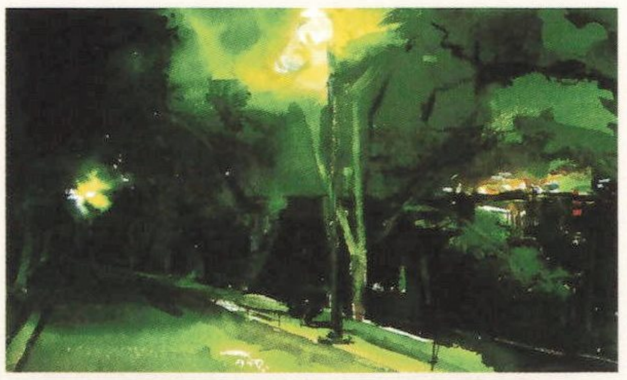
복천박물관 2009년 특별전시 신神의 거울, 동경銅鏡

9월 30일(수)-11월 15일(일)
복천박물관 기획전시실

■ 문 의 복천박물관(550-0311)

대안문화공간 자인 정기기획전 제 2회 화명동 화가들의 이야기

10월 16일(금)-11월 21일(토)
대안문화공간 자인



■ 문 의 대안문화공간 자인(365-3675)

김동환 초대전

10월 20일(화)-11월 4일(수) 부산아트센터

■ 문 의 부산아트센터(461-4558

임정숙 개인전

11월 3일(화)-11월 15일(일) 갤러리영광

■ 문 의 갤러리 영광(816-9500~4)

박영숙 사진전

2009년 11월 7일(토)-2010년 1월 10일(일)
고은사진미술관

■ 문 의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제 3회 창작미술인협회전

11월 9일(월)-11월 15일(일) 타워갤러리

■ 문 의 타워갤러리(464-3939)

PPLC 제 7회 전시회 '비 오는 날'

11월 24일(화)-11월 29일(일) 갤러리영광

■ 문 의 갤러리 영광(816-9500~4)

군록회 초대전

11월 18일(수)-11월 24일(화) 타워갤러리

■ 문 의 타워갤러리(464-3939)

The Chess Game Based on J.S. Bach's '골드베르그 변주곡'

김 중 옥_ 부산교통공사 전동차 음악방송제작단장

뭐니뭐니 해도 바흐의 첫 손가락에 꼽히는 걸작이라면 아마 '골드베르크 변주곡(Goldberg Variations)'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곡이 원래 사람을 잠들게 하기 위한 '수면음악'의 목적으로 작곡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지요? 그러나 단순한 자장가라기 보다는 전곡(全曲) 연주시간이 한 시간이 넘는, 그러면서도 아주 우아하고 품격이 높은 예술적 걸작으로 사랑받는 작품입니다.

원래 곡명은 '여러가지 변주를 수반하는 아리아' 인데요, 바흐는 이 곡을 1742년 그의 나이 57세 때 제자인 요한 테오필 골드베르크를 위해 악보 출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골드베르크는 돈 많은 귀족 카이저링크 백작의 전속 악사였습니다. 카이저링크 백작은 독일 드레스덴에 주재하는 러시아의 외교관으로, 격무에 시달린 나머지 심한 불면증에 걸려 고통받고 있었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죠. 당시로서는 잠 잘 오게 하는 약도 없었던 시대였기에 그는 침실 옆방에서 잠을 청할 수 있는 음악을 계속 연주하도록 하여 겨우 잠들곤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흐는 경제적으로 신세를 진 일이 있는 백작과 백작의 고용 악사이자 제자인 골드베르크를 위해 한시간이 넘는 멋진 곡을 단시일에 완성했는데요, 이 작품이 바로 '골드베르크 변주곡' 입니다. 주제와 변주로 구성된 곡은 출판되던 해인 1742년 이전에 작곡된 곡이라 추측되는데요, 참으로 장대하고 아름다운 변주곡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음반은 재즈피아니스트 존 루이스((John Lewis)와 그의 부인인 하프시코드 연주자 미리야나 루이스(Mirjana Lewis)가 재즈로 해석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입니다. 다정다감한 부부애가 그대로 녹아있는 듯한 이 음반은 피아노와 하프시코드의 안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잘 어울리는 재즈풍 연주로, 이 가을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1988년 1월 29일, 일본 동경의 긴자(銀座)에서 구입한 이 LP 음반을 들을 때면 유독 따뜻하면서도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피아노와 하프시코드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연주가들의 음색에 더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던재즈 콰르텟(MJQ)을 이끌었던 존 루이스는 그의 아내, 미리야나 루이스와 함께 마치 체스(Chess)를 두듯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연주합니다. 미리야나 루이스의 하프시코드로 먼저 체스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아리아를 연주하고 나면 존 루이스는 재즈로 편곡된 아리아로 응수하고, 다음은 다시 하프시코드로 제 1변주를 연주하는 등 변주 한곡 한곡을 하프시코드와 피아노로 번갈아가며, 또는 같이 연주해 나갑니다.

이렇듯 재즈로 해석된 변주곡은 바흐의 높은 리듬감이 잘 살아나 있을 뿐 아니라, 그 속에 또 잠재된 리듬의 변용을 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어 재즈팬이 아니더라도 바흐 팬이라면 충분히 매혹될 만합니다. 그들의 연주에서 마음껏 자유를 느낄 수 있기에 듣고 있으면 따뜻하고,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음반. 이 음반은 1988년 1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나의 애청음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도 이 곡을 들으면서 항상 편안한 잠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잠이 잘 오는 것 같지요?...!!

문 희 정_ GM뮤직(246-0752)제공

비발디 플루트협주곡 Op.10, 두 대의 플루트를 위한 협주곡 RV533

연주: 제임스 골웨이, 진 골웨이(플루트)/이 솔리스티 베네티(지휘/클라우디오 시모네)

플루트의 제왕 제임스 골웨이, 비발디의 고향에서 그의 협주곡들을 연주하다.

음악성과 대중적인 지명도 양쪽 모두에서 명실상부한 현존 최고의 플루트 연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임스 골웨이. 그의 최근 모습을 담은 값진 DVD가 출시되었다. 비발디의 플루트협주곡 Op.10의 여섯 협주곡을 작곡가의 고향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명승지인 두칼레 궁전에서 연주한 것이다. 비발디의 플루트협주곡 Op.10은 '홍방울새'(3번), '밤'(2번), '대양의 폭풍'(1번)과 같은 인기작품들을 포함하고 있는 바로크 플루트협주곡의 바이블과도 같은 작품집이다. 제임스 골웨이와 그가 자랑하는 순금 플루트를 통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사운드는 이 걸작들의 매력을 한층 더 배가시킨다. 이탈리아 바로크 음악계의 원로격인 클라우디오 시모네와 그의 악단 이 솔리스티 베네티의 정갈한 반주도 나무랄 곳 없다. 골웨이의 진지한 연주장면 틈틈이 두칼레 궁전 내부를 치장하고 있는 화려한 미술품들을 찬찬히 훑어 나가는 카메라워크도 훌륭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마지막 수록곡인 두 대의 플루트를 위한 협주곡 RV533에서는 골웨이의 부인 진이 합세하여 부부간의 멋진 금슬을 과시한다.

헨델 12개의 솔로 소나타 Op.1 (2CD)

연주 : 고음악 아카데미(지휘:리처드 이가)

최근 하프시코드 솔로 연주자보다 지휘자로의 역량을 쌓고 있는 리처드 이가의 두드러진 활약상이 잘 나타나는 헨델의 작품이다. 이미 그는 헨델의 합주 협주곡 Op.3, Op.6, 소나타 5 등을 레코딩하여 그라모폰 바로크 기악 부문 어워드, 미뎀 클래식 협주곡 부문 어워드에서 수상함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크리스토퍼 호그우드에 의해 1973년 창단된 고음악 아카데미는 2006년부터 리처드 이가와 함께 보다 신선하고 활기 넘치는 연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오늘날 악기와 달리 각각의 악기마다 독특하고 강렬한 악센트와 특성을 갖고 있는 고악기는 특히나 합주에서 놀랄만한 감동을 준다. 고음악 아카데미가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아름다움과 하모니는 정격 음악의 매력을 완벽하게 말해 주고 있다. BBC 뮤직 초이스 어워드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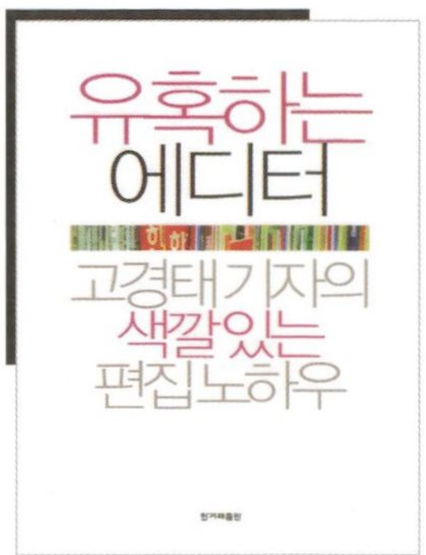
헨델 오르간 협주곡 Op.7 (2CD)

연주 : 고음악 아카데미(지휘:리처드 이가)

헨델 서거 250주년을 기념하여 리처드 이가가 2개 헨델 작품을 연달아 내놓았다. 그는 이미 헨델의 오르간 협주곡 Op.4를 2008년 발매하여 많은 극찬을 받았다. 헨델의 오르간 협주곡은 오르간의 모든 특징 즉 섬세하고 풍부한 음향, 다른 악기와의 조화로움 그리고 종교적인 성스러움까지 표현하고 있어 서양 음악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르간 협주곡이 아닐까 싶다. 리처드 이가는 오르간과 하프시코드 파트를 맡아 솔리스트와 지휘자의 역할 모두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 자칫 진부할 수 있는 편안하고 넉넉한 작풍을 생기있고 매력적으로 연주해 나가고 있다. 클래식 초심자나 헨델의 작품을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 적극 추천한다. 그라모폰 에디터스 초이스, IRR 아웃스탠딩 음반으로 선정되었다.

NEW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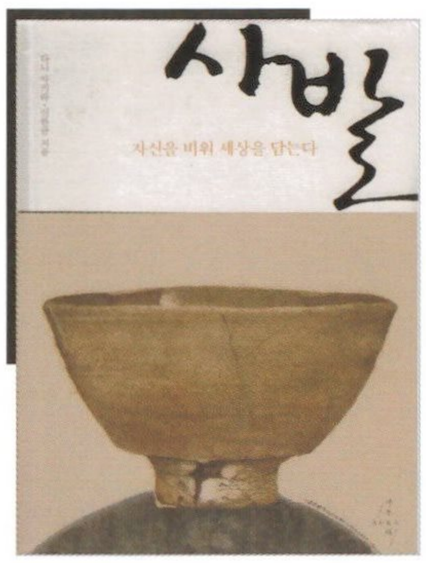
박 현 주_ 동보서적 〈웹진 책소식〉 편집장



유혹하는 에디터

고경태 지음
한겨레출판 / 349p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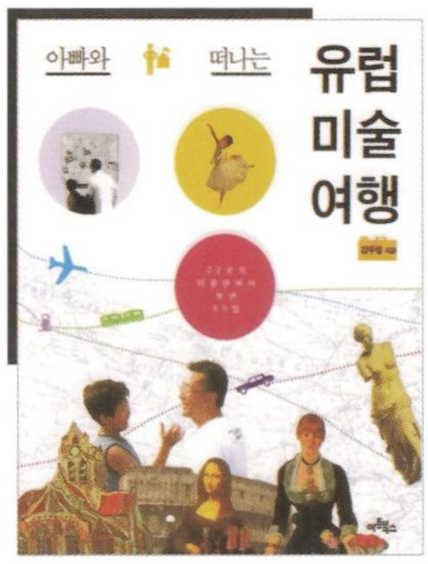
고경태 〈씨네21〉 편집장이 좋은 편집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모아 책을 펴냈다. 부제는 '고경태 기자의 색깔 있는 편집노하우'. 막내기자로 입사해 편집장까지 지낸 〈한겨레21〉과 〈한겨레〉 생활문화매거진 〈esc〉 등의 매체에서 오랫동안 겪은 편집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잡지의 기획 편집에 관한 20년 노하우를 알려주는 자전적 스토리이자, 편집실무 가이드북이다. 저자는 책에서 '종합적인 양식을 갖춘 편집자의 완성' 그 이상을 추구한다. 편집자가 갖춰야 할 삼박자로는 '헤드라인', '지면 관리와 글쓰기 능력', '기획력'을 꼽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짚어준다. 편집자는 몇 자 안 되는 헤드라인 문장을 자유자재로 늘이거나 줄이고, 표현의 강도와 완급을 마음대로 조절할 줄 알아야 하며 문장을 '갖고 놀며 까불 줄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기본적으로 콘텐츠의 표면을 다루지만, 그 본질을 꿰뚫고 장악해야 하고, 콘텐츠도 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정말 이런 길을 걸어왔다. 폼 잡고 근사하게 앉아 있는 편집장이 되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과 쌓아야 할 능력이 만만치 않아 더욱 흥미롭고 매력적인 편집의 세계를 알아보자.



사발, 자신을 비워 세상을 담는다

타니 아키라 · 신한균 지음
아우라 / 190p / 16,000원

노무라 미술관 학예부장이자 일본 다도문화학회 회장인 타니 아키라, 전통사발을 빚는 사기장이면서 오랫동안 한국 전통사발 연구에 매진해온 도예가 신한균 씨의 공동 작업으로 태어난 책. 한 · 일 양국의 전통사발 전문가들이 공동 작업을 시도한 최초의 도자기 관련 서적으로, 국내외에 있는 한국 명품 사발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임진왜란 전후에 조선에서 가져온 사발을 국보나 중요문화재로 대우하는 한편, 조선사발이 일본의 미의식에 의해 재발견되었고 또 많은 사발이 그들의 디자인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측면을 강조해왔다. 이 책에서는 이런 일본인의 시각을 한국측 공저자인 신한균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바로잡고 있다. 조선사발에 대한 일본 학자의 견해와 이에 대한 한국 사기장의 반론은 이 책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국내는 물론 대영박물관과 일본에 산재해 있는 우리 명품사발의 사진을 처음으로 모은 이 책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전통사발을 소개하면서 그 내력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사진으로 감상하고 그 내력을 읽어보노라면 세월을 뛰어 넘어 조선 도공의 손길마저 느껴질 듯 하다.



아빠와 떠나는 유럽미술여행

강두필 지음
아트북스 / 313p / 16,000원

아빠와 아이가 손을 잡고 유럽의 유수한 미술관을 여행한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그 여행도 부럽거니와 책까지 펴내다니 질투가 날 지경이다. 40일 동안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 등에 있는 22곳의 미술관을 여행한 아빠 강두필 씨와 아들 민석이.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예술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전문가가 아닌 아이와 어른의 눈을 함께 따라가며 미술을 감상하는 새롭고 독창적인 시각을 만나볼 수 있는 책이다. 다년간 광고업에 종사해 온 아빠는 어느 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의 예술 담당 기자 조너선 존스가 자신의 블로그에 발표한 '죽기 전에 꼭 보아야 할 걸작 20'을 접하고 "우리가 책을 비롯해 다른 매체를 통해 접한 명화는 명화를 직접 보는 것과 아주 미세한 것에서부터 큰 부분까지 다르다"는 존스 기자의 글에 깊이 공감한다. 우선 존스의 리스트에 수록된 명작들을 직접 보고 싶다는 꿈을 키운 아빠는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을 동참시켜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 아빠와 아들이 함께 열어젖힌 예술세계는 아름답고 웅장한 그림과 아기자기한 여행이야기로 넘쳐나 보는 재미 읽는 재미가 가득하다.

2009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공연 개최

부산문화회관이 평소 공연감상 기회가 적었던 고3 수험생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공연 2009년 무대가 수능이 끝난 11월 24일 부산시립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하게 펼쳐진다.
청소년들을 위한 상세한 공연 해설로 매년 인기를 모으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공연' 은 10월 20일부터 학교 접수를 시작, 선착순으로 마감되었다.

부산시립합창단 오페라음악극 '윤동주'

▣ 일 정

11월 24일(화) 11:00	중극장	시립합창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오페라 음악극 '윤동주'
11월 26일(목) 10:30, 14:00	대극장	시립국악관현악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12월 2일(수)~12월 4일(금) 11:00	중극장	시립극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지금…여기!'
12월 4일(금) 10:30	대극장	시립교향악단	청소년을 위한 '시네마 클래식'
12월 15일(화) 14:00, 12월 16일(수) 11:00	대극장	시립무용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별주부전'

※ 공연 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44)

부산문화회관 제 3기 문화대학 57명 수료

부산문화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9월 2일 8주간의 과정으로 시작된 제 3기 문화대학이 10월 21일 이동신 지휘자의 '클래식음악을 재미있게 듣는 법' 을 끝으로 8주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다.
70명이 등록한 3기 문화대학은 이날 수료식에서 57명이 수료증을 받았고, 이중 8주를 모두 참석한 열성 수강생이 11명에 이른다. 수료식에 앞서 부산시립교향악단 '콰르텟 G 현악4중주' 의 연주회를 감상한 문화대학 수강생들은 문화대학을 통해 얻은 기본 지식과 감상법을 가족, 친구들에게 널리 전하며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기는 문화 가족이 될 것을 약속했다.

제 3기 문화대학 부산시립교향악단 '콰르텟 G 현악 4중주' 연주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11월 공연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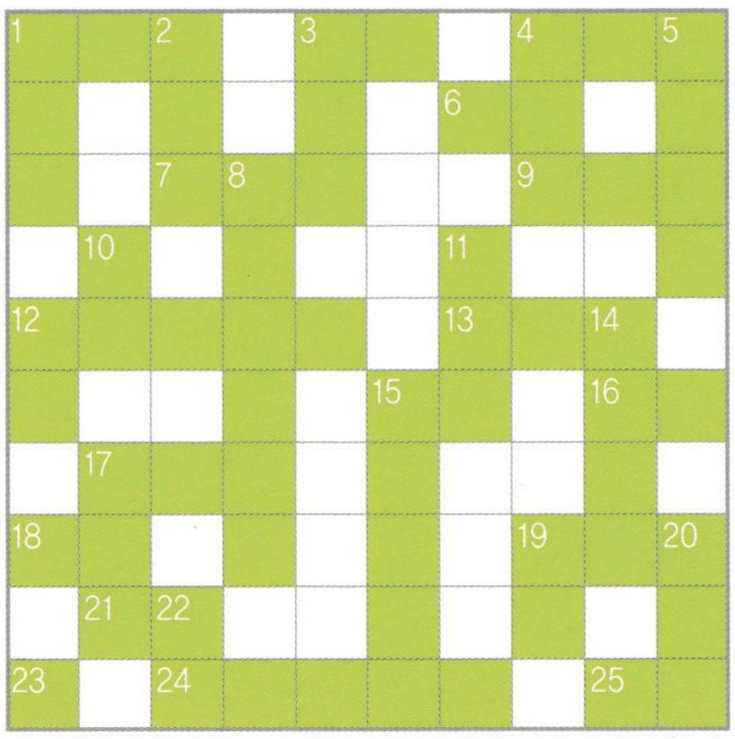
공연장을 자주 찾을 수 없는 청중들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술단 11월 공연' 일정이 확정되었다.
11월에는 매주 수요일 12:30부터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리는 시립교향악단, 시립극단의 로비콘서트와 동삼초등학교와 영도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리는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부산시립무용단

■ 11월 공연 일정

11. 3(화) 19:30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해양대학교 연주회'	해양대학교 대강당	국악관현악단
11.11(수) 12:30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로비콘서트'	시청 대강당	교향악단
11.25(수) 12:30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로비콘서트'	시청 대강당	극단
11.26(목) 14:00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	동삼초등학교	무용단
11.27(금) 14:00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영도여자고등학교	무용단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 로

1. 오페라 '라보엠' '나비부인'과 함께 푸치니의 3대 걸작. 지난 10월 16일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오페라 갈라콘서트로 꾸며져 많은 박수를 받았다.
3. 2009 부산국제영화제 넷팩상을 수상한 박찬옥 감독, 이선균, 서우 주연의 영화.
4. 부산문화회관이 매월 마련하는 고품격 라이브쇼 '하늘 아래 그 콘서트' 11월 무대 주인공.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등 주옥같은 히트곡들을 작곡한 작곡가.
6. 조선 시대에 만든 자기의 하나. 청자에 백토(白土)로 분을 발라 다시 구워 낸 것으로, 회청색 또는 회황색을 띤다. ○○사기.
7. 저명한 인사나 인기배우가 극중 예기치 않은 순간에 등장해 아주 짧은 동안만 하는 연기나 역할.
9. 조선시대 소설의 주인공. 도술을 배운 ○○○가 탐관오리를 괴롭히고 빈민을 구제하다가 서경덕에게 혼난 후 그의 제자가 되어 태백산에 들어갔다는 내용으로, 작자와 연대는 알 수 없다.
12.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변영주 감독의 다큐멘터리로, 다큐멘터리가 국내 극장에서 개봉된 것은 이 영화가 처음이다.
13. 살풀이춤에서 발을 디디는 동작.
15. 호텔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살린 소규모 숙박 시설. 서양식 민박이라 할 수 있다.
16. 질그릇과 오지그릇의 통칭. 보통 가정에 쓰이는 것으로 독, 항아리, 뚝배기, 자배기 등이 있다.
17.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초의 여자. 온갖 고통과 악이 들어있는 '○○○의 상자'로 유명하다.
18. 만물의 근원이 되는, 항상 변하지 아니하는 구성 요소.
19. 일본과 한국을 가르는 대한해협에 있는, 일본 나가사키현(長崎縣)에 속한 열도. 쓰시마섬.
21. 조선말과 대한제국 시대에 궁중무희로 활동하다 프랑스 외교관을 따라 프랑스로 건너가면서 우리나라 여성최초로 외국땅을 밟은 여성으로 기록된 인물.
23. 명주실로 바탕을 조금 거칠게 짠 비단.
24. 대한민국 대중가요 분야에서 우수한 앨범과 가수, 제작자를 선정하는 시상식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음악 시상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25. 북이나 장구 따위를 치는 사람.

세 로

1. 1923년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들에 의해 창립된 극단. 신파(新派)에서 벗어난 근대적 신극운동을 처음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체코 출신의 독일작가. 부산시립극단이 10월 30일부터 사흘간 그의 대표작 '변신'을 새롭게 재해석한 연극 '변신-꿈의 기록'을 정기공연으로 무대에 올린다.
3. 고대 이집트의 정치적, 종교적 최고 통치자.
4.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팔아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 효녀이야기를 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소설.
5. 단테의 '신곡(神曲)'에 대해 '인곡(人曲)'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단편소설집 '데카메론'을 지어 근대소설의 선구자로 칭송받는 이탈리아의 소설가.
8. 여성(女聲)에서 소프라노와 알토의 중간에 속한 낮은 소프라노.
10. 현실 참여의식과 역사의식을 시를 통하여 형상화한 현대 시인.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민족문학작가회의 등에 참여하며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에 앞장서 왔다. 대표작으로 '만인보' 등이 있다.
11. 가수, 탤런트, 배우 등 연예인을 뽑기 위한 실기 시험.
12. 2008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2008 토론토 국제영화제 등 다수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노영석 감독의 영화. 여자친구에게 실연당한 남자주인공이 실연의 상처를 잊기 위해 떠난 강원도 여행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사건을 그린 영화이다.
14.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고사성어.
15. 아파트나 호텔의 맨 위층에 있는 고급 주거공간.
17. 소리꾼이 고수(鼓手)의 북장단에 맞추어 서사적(敍事的)인 이야기를 소리와 아니리로 엮어 발림을 곁들이며 구연(口演)하는 우리 고유의 민속악.
19. 우리나라 전통 관악기 가운데 하나. 삼금(三管)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구멍은 열세 개이며 음역(音域)이 넓어서 다른 악기의 음정을 잡아 준다.
20. 집을 지을 때 책임을 지고 일을 지휘하는 우두머리 목수.
22. 신라 때에 둔, 골품의 둘째 등급. 성골 아래로, 부계와 모계 가운데 어느 한쪽이 왕족인 사람이다.

지난호 정답

유	키	구	라	모	토	■	■	타	투
진	■	텐	■	■	■	야	■	■	명
박	■	베	■	베	니	스	의	상	인
■	베	르	베	르	■	쿠	■	■	간
클	■	크	■	디	즈	니	랜	드	■
레	■	■	강	■	믄	■	드	■	인
오	필	리	아	■	■	■	마	라	도
파	■	■	지	■	바	로	크	■	차
트	■	■	똥	파	리	■	■	■	이
라	밤	바	■	■	톤	■	왕	과	나

퍼즐당첨자 명단

■ 큰집
김순태(서구 남부민동)
남지행(서구 서대신동)
이은정(부산진구 개금3동)
이형우(사하구 다대2동)
정해주(동구 초량2동)

■ 공간 소극장
성용호(해운대구 우2동)
신근영(남구 대연4동)
신세민(연제구 거제1동)
우정렬(중구 보수동)
임경혜(남구 대연5동)

■ BS부산은행조은극장
김영화(연제구 거제1동)
박선희(영도구 동삼동)
이경희(연제구 연산5동)
이미옥(사하구 하단동)
정미정(강서구 명지동)

■ 나랏소
김병수(부산진구 양정1동)
김정숙(해운대구 반송2동)
나춘선(사하구 하단2동)
이후림(남구 문현2동)
최경민(수영구 광안2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飮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사계절 문화공연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곳
부산에는 공간 소극장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사계
공간소극장
(051)611-8518
문화공간사계 cafe.daum.net/say012

남포동과 광복동의
새로운 문화공간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TEL.1588-2757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전문점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09년 11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별의 도시' 영천으로 떠난 가을 여행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속에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싯구처럼 가을로 가득찬 하늘이 마냥 높기만 한 10월 9일 이른 아침, 10월 테마여행의 행운을 잡은 정기회원 가족들이 여행길에 올랐다. 10월 테마여행지는 '별의 수도, 별의 도시' 영천. 10월 여행에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조은경, 김지현, 김원지 씨가 동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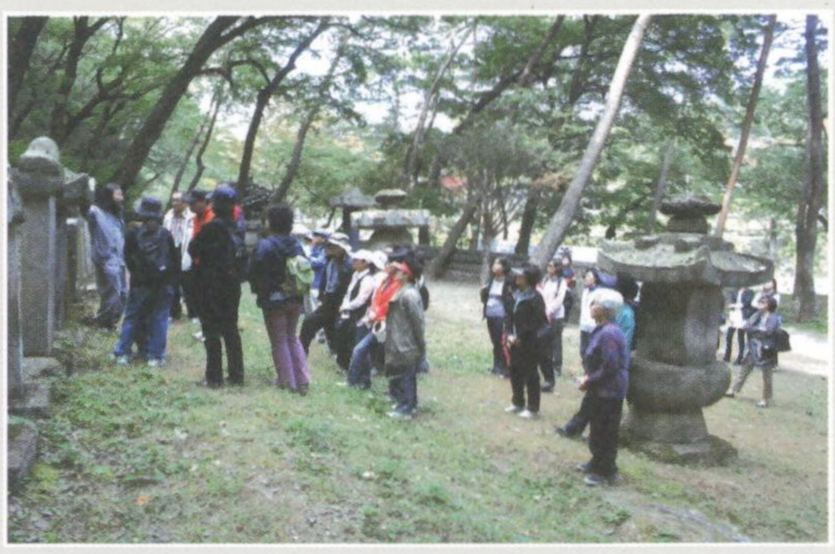
1시간 30분여를 달려 영천 시내에 도착하자 미리 마중나와 있던 문화유산해설사 전민욱 씨가 정기회원 가족들을 반긴다. 전민욱 씨의 인솔로 처음 도착한 곳은 은해사 거조암. 원래는 거조사라 하여 은해사보다 먼저 창건되었으나 현재는 은해사 말사로 편입되어 거조암이라 불린다. 국보 제 14호로 지정된 거조암 영산전은 봉정사 극락전, 강릉 객사문,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부석사 조사당과 함께 현재 남아있는 고려시대 목조건축물 6곳 중 한 곳으로 중요한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다. 거조암은 '오백나한 기도도량' 으로도 유명한데, 이 곳 영산전에는 석가모니 불된 석조나한상은 부처님의 첫 제자들로, 고승들의 개성적인 모습이 인상적이다. "오백나한 중 시선이 가는 나한의 모습이 바로 전생의 자기 모습"이라는 전민욱 씨의 설명에 정기회원 가족들은 더욱더 꼼꼼히 둘러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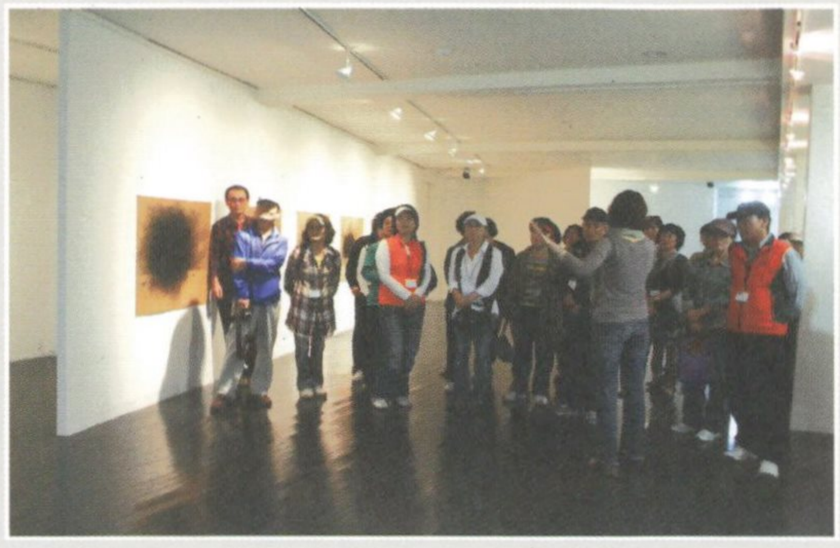
거조암을 나와 향한 곳은 경북지방의 대표적인 사찰인 영천 은해사. '은빛 바다가 춤추는 극락정토' 같다 하여 부쳐진 '은해사' 는 신라 41대 헌덕왕 1년(809년)에 창건한 해안사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된다. 마침 테마여행이 있던 10월 9일이 개산 1,200돌을 기념하는 개산대재 행사를 이틀 앞둔 날이라 행사준비로 분주했다.

은해사 일주문을 지나 보화루까지 이어진 은해사 울창한 송림은 '금포정' 이라 불린다. 일체의 생명을 살생하지 아니했다 하여 부쳐진 금포정(禁捕町)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조성된 숲으로, 높이 10여미터가 넘는 300년생 소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다. 또, 100여년생 참나무와 느티나무가 서로 붙어 있는 희귀한 연리지(連理枝)가 '사랑나무' 라는 이름으로 자리하고 있어 여행객의 시선을 끈다.

은해사에는 현재 두가지 보물이 소장되어 있다. 그 중 하나가 보물 1270호인 괘불탱화이다. 은해사 괘불탱화는 가로 5.59m, 세로

526분의 석조나한상이 모셔져 있다. 화강암을 깎아 조각 10.16m





의 초대형 작품으로, 현재 대웅전에서 1.5m의 축소본으로만 만날 수 있다. 또다른 보물인 금고(金鼓)는 일종의 쇠북이다. 이 곳에 소장된 청동제 금고는 1646년에 제작된 것으로, 시대상을 대표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어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은해사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현판 '은해사' '대웅전' '보화루'의 글씨가 모두 추사 선생의 작품이다.

"일반적으로 석가모니불을 모신 곳은 대웅전, 아미타불을 모신 곳은 극락전, 혹은 무량수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곳 은해사는 본존불로 아미타불을 모시는 미타도량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산대재에서는 대웅전으로 적힌 현판을 극락보전 현판으로 새롭게 교체한다고 합니다."

정기회원 가족들은 개산대재를 앞두고 기존 대웅전 현판을 내리고 극락보전 현판을 새롭게 거는 광경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

은해사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향한 곳은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 시안미술관. 2004년 4월 폐교를 활용해 조성된 시안미술관은 6,000여평 잔디로 단장한 야외조각장과 고풍스런 유럽식 현대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2005년 한국여행작가협회로부터 '폐교를 활용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으로 선정된 시안미술관은 최근에는 TV드라마, 음반앨범 촬영지로도 각광받고 있다.

마침 찾아간 그 날이 새로운 기획전시를 하루 앞둔 날이었지만, 변숙희 관장의 도움으로 개관에 앞서 영남대학교 동양화과 김호득 교수의 '흔들림-문득, 공간을 느끼다' 전을 관람할 수 있었다.

전시 관람 후에는 정기회원 가족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부산시립예술단 작은음악회가 펼쳐졌다. 야외조각장이 내려다보이는 2층 베란다에서 펼쳐진 작은음악회에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조은경(소금), 김지현(가야금), 김원지(해금) 씨는 흥겨운 우리민요 메들리와 가요, 팝송을 연주해 회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연주회를 끝으로 서둘러 달려간 곳은 테마여행의 마지막 일정인 머루포도따기 체험이 펼쳐지는 보현산 별빛 포도마을. 체험행사를 돕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영천시청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포도따기와 포도주담그기 체험에 나섰다. 체험 후에는 포도 3kg 정량따기, 당도높은 포도따기, 포도알 멀리뱉기, 포도 빨리먹기 게임을 진행, 우수한 성적을 거둔 회원들에게 영천특산물을 상품으로 주기도 했다.

달콤한 포도향 가득 머금고 돌아오는 길, 정기회원 가족들의 가슴에는 눈과 귀와 가슴이 즐거웠던 하루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글, 사진/정복엽)

■테마여행 협찬 : (주)레임 투어펀

2009년 12월에는 **순천 낙안읍성, 순천만**으로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 11월 15일)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11월 테마여행 당첨자

엽서당첨자

김국자(해운대구 우동)
김말자(연제구 연산9동)
김신숙(사하구 당리동)
나춘선(사하구 하단2동)
박말순(중구 영주동)
박종술(남구 대연6동)
손정민(사상구 모라동)
윤인숙(기장군 기장읍)
이영택(해운대구 좌3동)
하윤자(서구 서대신동)

신규가입자

서경숙(남구 용호동)
손성희(북구 만덕3동)
손순현(해운대구 좌동)
우덕숙(해운대구 반여1동)
이원무(수영구 남천동)
이영식(남구 용호2동)
조정숙(남구 용호동)
천우태(영도구 동삼1동)
하경혜(남구 문현1동)
홍경숙(수영구 망미동)

2009 웰빙콘서트 Ⅳ '말러와 11시에 만나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멋진 연주와 부산시립극단 단원들의 에피소드 연기, 그리고 김문경씨의 해박한 지식과 상큼한 해설로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무한한 열정으로 위대한 작곡가의 반열에 올라선 말러의 삶과 그의 음악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김 은 정**(해운대구 좌동)

부산시립교향악단 'Opera in Concert 토스카'

비록 무대 등 기존의 오페라와는 다른 콘서트 형식의 공연이였지만 시향의 연주모습과 각 주인공들의 멋진 노래와 연기를 한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어 색다른 느낌을 전해 주었다. 무엇보다도 모든 장면을 머리속에 넣어두고 혼신을 다해 지휘하며 콘서트를 이끌어간 리 신 차오의 지휘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고, 비극적인 사랑이야기와 함께 멋진 아리아들을 전해준 출연진의 열정적인 모습에 또 한번 감동을 받았다...가을 밤을 아름답게 수놓은 멋진 연주회!!!

- **김 혜 정**(남구 대연동)

발레 '돈키호테'

아, 우아하다고만 생각했던 발레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구나… '백조의 호수' 나 '지젤' 과는 전혀 다른 발레의 새로운 매력을 일깨워준 '돈키호테'. 화려하고 경쾌한 안무, 색색의 화려한 의상, 탄성을 자아내는 절묘한 테크닉의 3막의 그랑 파드되까지… 공연 내내 맛보았던 짜릿한 감동이 아직도 여운으로 남는다.

- **김 미 자**(서구 암남동)

연극 '환상동화'

포스터에서 보이는 것처럼 동화적이고 따뜻한 이야기였다. 전쟁, 사랑, 예술 3가지를 아우르는 연극이라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배우들이 보여주는 무용, 음악, 마임, 마술 등등… 연기를 할 때마다 새로운 모습에 '우아~'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났다. 특히 '로미오와 줄리엣'을 선보이는 마임실력은 가히 일품이라 할 수 있다. 공연을 보고난 후 정말 누군가가 동화책을 읽어주고, 내 머리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 **김 현 영**(서구 서대신동2가)

연극 '너무 놀라지 마라'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며느리 등의 인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너무 놀라지 마라' 를 보고 있는 동안 순간순간 그들의 말이,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생활이, 그리고 그들의 인생 자체가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그들이 이런 생활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정말 천국이라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제목이 왜 너무놀라지마라 인지 알게된다. 두둥~ 반전 또한 기가 막힌다. 정말 너무놀라지마라!!!

- **김 규 탁**(해운대구 송정동)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 모집
(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부산시립무용단 제 61회 정기공연

The 61st Bi-annual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천년의 춤 구도의 몸짓

유령

Nomad노마드

안무 · 구성 홍 기 태
(예술감독겸수석안무자)

2009. 11. 13(금) 19:30

부산문화회관대극장

입장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 5,000원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마케팅부 607-3100 부산시립무용단 607-3131~2 www. koreanfolkdance.com

예매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www.bsculture.busan.kr

BS 부산은행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54회 정기연주회

BEETHOVEN

BEETHOVEN Symphony VII

Symphony VII

로시니 「세미라미데」 서곡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4번

베토벤 교향곡 제7번

지휘 곽 승

피아니스트 플로리안 울리히

2009.

11.27 금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입장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문 의 607-3111~4 (부산시향) 607-3100 (홍보마케팅부)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ulture.busan.kr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BS 부산은행 전지점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이 시대의 음유시인

심/현/보/콘/서/트

SHIM HYUN BO

유리상자 '사랑해도 될까요?' 작사 · 작곡
성 시 경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 '더 아름다워져' 작사
주 얼 리 '니가 참 좋아' 작사

하늘아래 그콘서트 vol.3

2009년 11월 13일. 금요일. 오후 8시
하늘아래 그콘서트 (심현보)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회관
예매 | 티켓링크 1588-7890 (전석3만원) 문의 | 부산문화회관 051-607-6058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

부산문화회관 21주년 기념 **정기회원 특별 혜택**

해외여행시 5% 할인받자!!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로 예약확정 하실 때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전국 대표전화 **1544-1759**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 협찬사 **Hi!하나** www.hihana.co.kr NAVER 하이하나

한국의섬 국내여행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섬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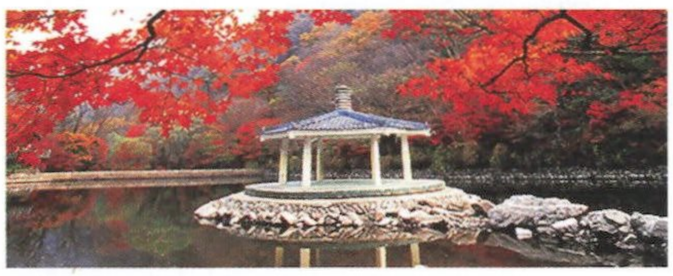
[부산출발] 천년의 신비
홍도/흑산도 (1박2일/2박3일)
AKFK01 180,000원~

셔틀포함
울릉도/독도 (1박2일/2박3일)
AKFK00 23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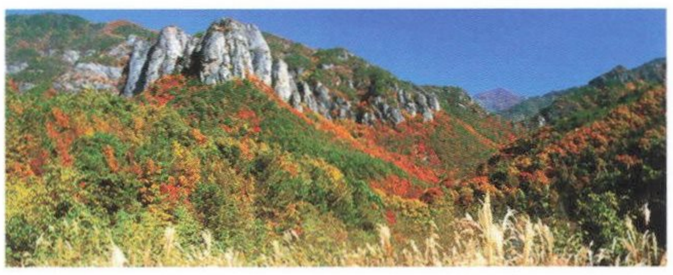
[부산출발] [관광1급호텔]
제주 세계자연유산 탐방과 新영주십경
AKPK57 254,000원~

단풍계절 가을여행

가족과, 연인과 함께
가을 단풍 여행



형형색색 단풍길
내장산 단풍/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AKFK15 36,000원



당일관광
주왕산 트래킹+촬영명소 주산지
AKFK06 4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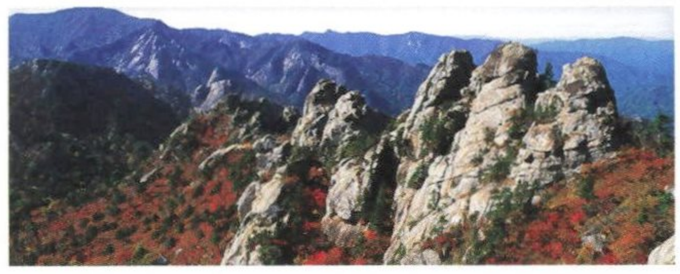
남도여행
지리산피아골 단풍+남도 한정식
AKFK09 49,000원

국내내륙 2일여행

국내 무박2일
또는 1박2일 여행

무박2일 기차여행
정동진/추암 촛대바위/환선굴
AKFK19 8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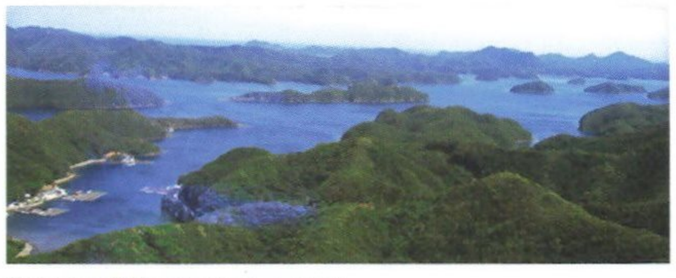
1박2일
풍천장어정식/선운사/고창읍성/내장산
AKFK22 129,000원



1박2일
설악산 국립공원 (외설악/내설악)
AKFK23 135,000원

특가상품 온천여행

저렴하고 알찬
온천 특가 여행



[부산출발] 대마도 1,2일
대마도 에코투어
JKP550 249,000원~

일본 온천여행
코비 북큐슈 온천 2일
JKP720 279,000원~

[부산출발]
방콕/파타야 4,5일
AAP701 499,000원~

HiHANA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
하나투어 HANATOUR

부산본점) 051-442-1271 서울점) 1544-1759 대구점) 053-423-1271
마산점) 055-253-1271 울산점) 052-222-1271

전화 상담시 [상품코드]를 알려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화회관 회원님들은 상담시 정기회원임을 밝혀 주시면 5%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문화회관 담당자 : 김수현 직통전화 070-8270-2579 / 박상헌 직통전화 070-8270-7774

전국 대표전화
1544-1759
www.hihana.co.kr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합창단 '가을의 기도'

▣ 프로그램

주의 기도(Pater Noster) 모음/Pater Noster(그레고리안 성가), Pater Noster(O.di 랏소), Pater Noster(O.니콜라이), Pater Noster(A.D.콘솔라송) (소프라노 솔로/남순천)

현재명/산들바람(바리톤 독창/김태우)

장일남/비목(알토 독창/손미숙)

박판길/산노을(테너 독창/김진영)

조두남/옛 이야기(소프라노 독창/이정란)

가을의 서정(김기영 편곡)/코스모스를 노래함(이흥렬 곡), 그리움(이수인 곡), 아! 가을인가(나운영 곡), 이별의 노래(김성태 곡), 저 구름 흘러가는 곳(김동진 곡) 등

▣ 출연

소프라노/이정란, 남순천, 최선희, 김나영, 양은제, 권순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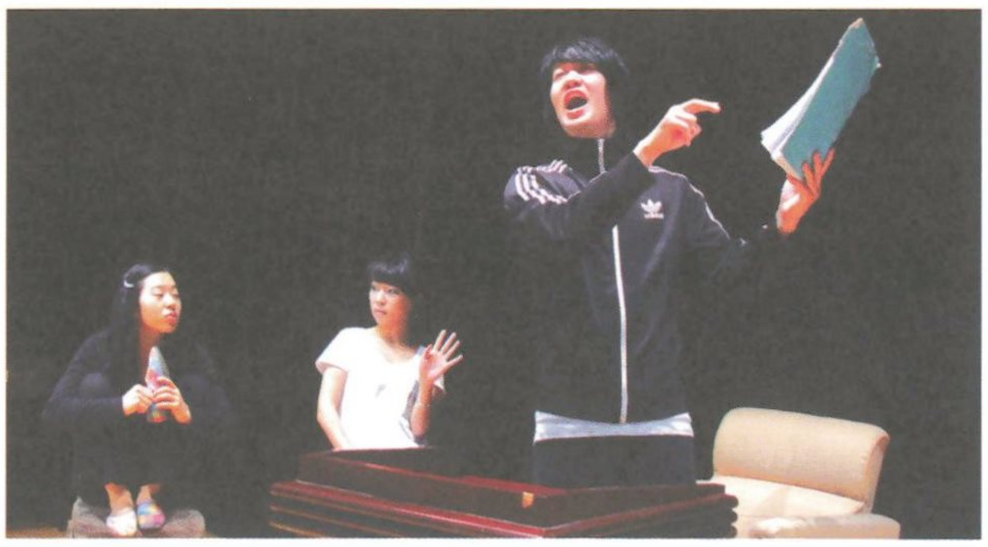
알토/손미숙, 박성혜, 정은영, 장은경

테너/강종철, 김진영, 박성환, 강은태

바리톤/최영수, 이연기, 박원한, 이정철, 구명금, 김태우

※지휘/김강규 ※ 피아노/이승윤, 이경미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극단 '거미줄'



'즐거운 분장실' '쓰레기 재활용되다' 연출에 이어 '소녀, 그리고 해답 찾기'에서 작가, 연출, 배우로 1인 3역을 소화해 낸 부산시립극단 비상임단원 이미경의 연출로 선보이는 '거미줄'.

'거미줄'은 사랑을 가볍게 여기던 홍주가 자신의 전생을 알아 가면서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 연출의도

거미줄에 걸린 똥파리를 잡아먹는 거미. 믿기는가? 그들이 사랑을 했다는 것이. 다시 태어나서 다시 만날 정도로 말이다. 사랑은 모든 걸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다. 너무도 많은 일이 벌어지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은 사랑이 아닐까 생각한다.

※작, 연출/이미정

※드라마트루기/김세환

※출연/조아라, 라세흠, 김상균, 허철녕, 이은주

11월 28일 토요일 오후 4:00
퓨전시나위 '예타래' 연주회

퓨전시나위 예타래는 1998년에 창단하여 14회의 '예타래와 함께하는 우리음악 느끼기' 기획연주와 이탈리아 5개 도시 순회연주, 전주세계소리축제 초청공연, 통영국제음악제 초청공연, '숨쉬는 땅' 기획공연, 슬로바키아 국립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 다수 연주회를 통해 우리음악의 새로운 해석과 음악의 영역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 프로그램

김동조/사물놀이와 합주를 위한 광시곡 '오륙도'(소금/이갑석 · 대금/최지환 · 해금/조위현 · 가야금/박은정 · 신디사이저, 꽹과리/정세윤 · 클라리넷, 색소폰/조익래 · 첼로/정학선 · 장구/허인대 · 모듬북/류성식)

조익래/Variation '엄마야 누나야'(소금/이갑석 · 대금/최지환 · 해금/조위현 · 가야금/박은정 · 피아노/정세윤 · 클라리넷/조익래 · 첼로/정학선 · 장구/허인대 · 모듬북/류성식) ※초연

민요/정선아라리(소리/양일동 · 소금/이갑석 · 대금/허인대, 최지환 · 피리/류성식 · 해금/조위현 · 가야금/박은정 · 피아노/정세윤 · 첼로/정학선 · 모듬북/조익래) ※초연

이경섭/바람의 유희(피리&태평소 독주/류성식 · 대금/최지환 · 색소폰/조익래 · 해금/조위현 · 가야금/박은정 · 피아노/정세윤 · 첼로/정학선 · 모듬북/이갑석 · 장구/허인대)

정세윤/아카펠라 '한오백년' '몽금포타령'(선소리/류성식 · 소리/최지환, 조익래, 이갑석, 정세윤) ※초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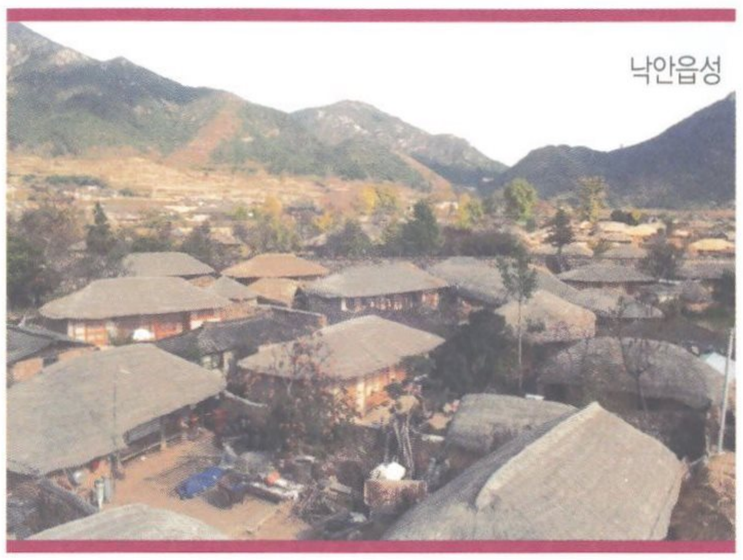
피아노, 색소폰 & 풍물을 위한 퓨전시나위 2009
(꽹과리, 징/허인대 · 피아노, 꽹과리/정세윤 · 색소폰, 태평소/조익래 · 장구/류성식 · 북/최지환 · 모듬북/이갑석)

• 관람료 : 선착순 무료 입장(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6)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낙안읍성

▶ 2009년 12월 11일(금) 시간이 멈춰 버린 곳 순천 낙안읍성, 순천만

조선시대 서민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낙안읍성을 시작으로 세계 5대 연안습지로 선정된 아름다운 순천만으로 떠나는 겨울 여행.
천연기념물 제228호 흑두루미를 비롯하여 검은머리갈매기, 황새, 저어새 등 국제적 희귀조류를 비롯한 200여종 조류들의 보금자리, 순천만으로 시간 여행을 떠난다.

▷ 07: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30 순천 낙안읍성 도착, 답사
▷ 12:00 점심식사
▷ 13:00 순천생태공원 생태 탐방
▷ 16:00 부산으로 출발

등대박물관

▶ 2010년 1월 8일 (금) 해 뜨는 도시 포항으로 떠나는 겨울 여행

동해바다의 생명, 열정이 넘치는 포항 겨울 여행.
포스코의 역사와 정신, 기업문화, 비전을 담은 포스코 역사박물관(The POSCO Museum)을 시작으로 한반도 최동단에 위치한 호미곶, 성동메뚜기 마을에서 활기찬 2010년을 설계해본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1:30 호미곶 국립 등대박물관
▷ 13:00 광남서원 등 마을 탐방
▷ 16: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7:00 부산으로 출발
▷ 10:00 포스코 역사관
▷ 12:30 성동메뚜기마을 도착, 점심식사
▷ 14:00 떡만들기, 메주만들기 체험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BUSAN CULTURAL CENTER Membership
culture.busan.go.kr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을
편리하게 예약, 관람할 수 있으며, 부산시내 전 공연정보를 담은
'예술에의 초대'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를 통해
조기예매와 다양한 공연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회원종류 및 가입회비

구 분	가입회비	할인매수
특별회원	50,000원	공연시 4매 할인
일반회원	30,000원	공연시 2매 할인
청소년회원	20,000원	공연시 1매 할인
단체가입	30명이상 가입 10%할인	

- 회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 할 인 율 : 기획공연 5~30% · 시립예술단공연 5~20% / 할인횟수 제한없음
- 좌석선택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좌석선택
- 가입신청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 탈 퇴 : 5일 이후 탈퇴시는 일정액 (수수료) 제외 후 환불
- 예약취소 : 공연 당일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Tel. 051) 051-607-3100 Fax. 051-607-3109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 184 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 184 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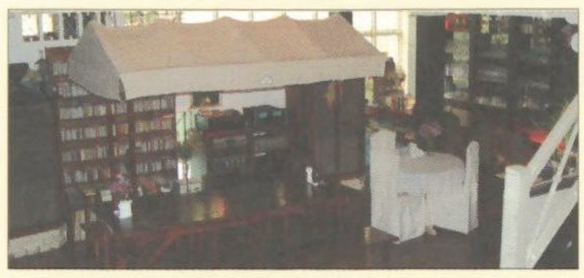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70분간의 연애 He & She 10% 할인

2009. 10. 30(금)~11. 29(일)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입장권 : 균일 30,000원
▶ 장 소 :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 문의 및 예매 : 1588-2757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전망대+세계민속악기 박물관
: 대인 5,500원, 소인 4,500원)

▶ 날짜 : 2009. 1. 1(목)~12. 31(목)
▶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 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 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예매 및 문의
051) 810-7000

JUMP
Comic Martial Arts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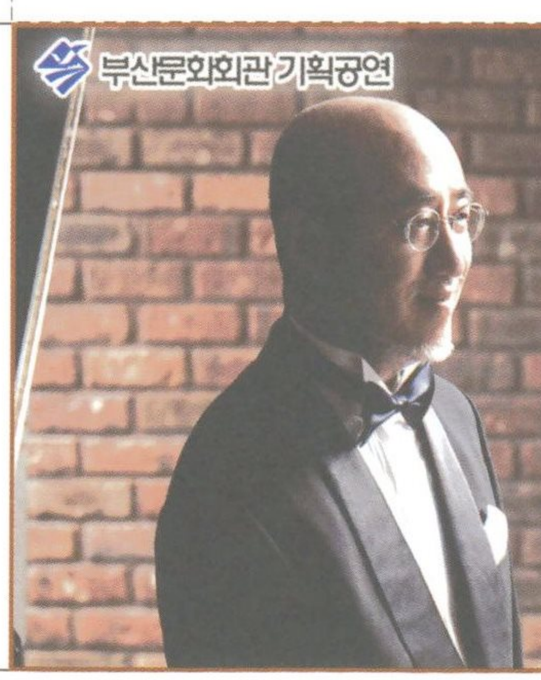
점프 20% 할인

평일 20:00 / 토 · 공휴일 17:00, 20:00 / 일요일 18:00

IBK (부산롯데호텔 롯데아트홈) 50,000원(R석) / 40,000원(S석)

*쿠폰제시 시 1매 4인까지 할인 가능 *전화 및 현장 예매 시 할인 가능 *타 쿠폰, 할인카드 중복사용 불가능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매회 전 석 매진의 신화 유키 구라모토 피아노 콘서트

Romance

2009.11.24 | 화 | 오후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70,000원 · S석 60,000원 · A석 40,000원 · B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 할인)

예 매 : ticketlink www.ticketlink.co.kr 콜센터(1588-7890)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8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특별한 혜택

"당신의 피부속을 진단해 드립니다"

맛사지 무료체험권

DR▲QU

* MBC / SBS / KBS 방송사에서 방영된 놀라운 피부혁명*

여드름 / 기미 / 아토피 / 잔주름 / 검버섯

닥터▲큐 남천점 Tel. 622-6901

지하철 남천역 4번출구 동해빌딩 4층 * 방문시간 사전 예약제 실시*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12월 응모

■ 회원명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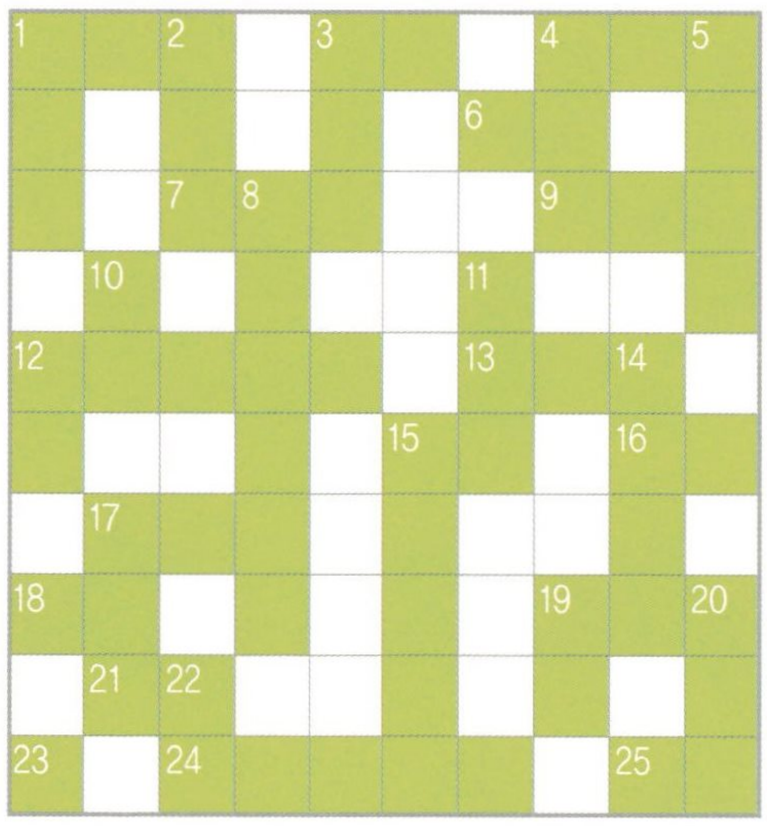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퍼즐 정답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 ?!

NO

광고하나로 천냥 빚 갚는다!!

YES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 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 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담당 : 정현철 010.8741.0555

당신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대학 ★ 동명대학교

www.tu.ac.kr

동명대학교
TONGMYONG UNIVERSITY

내 첫 번째 경력은 동명대학교

콧대높은 방송국의 까다로운 관문을
영상 공모전, 대학생 명예기자 등
동명에서 준비한 실력으로 뛰어넘었습니다.
검증된 스펙으로 내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 곳,
내 **첫 번째 경력은 동명대학교**입니다.

신문방송학과 97학번 **현기택**
MBC 보도국 영상취재 2팀 / 카메라 기자

동명대학교 2010학년도 수시2차 모집일정

▶원서접수 : www.tu.ac.kr
2009.11.23.(월)~11.27.(금)
▶문 의 처 : 051)629-1111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Cello

첼리스트 강한나 초청독주회

Brahms Cello Sonata

피아니스트 핀킨 콜린
Pianist Pinghin Collin

Program

브람스 첼로 소나타 1번
Johannes Brahms Cello Sonata No. 1
브람스 첼로 소나타 2번
Johannes Brahms Cello Sonata No. 2
쟈클린의 눈물 - 오펜바흐
Jacques offenbach - Les Larmen du Jacqueline

2009. 12. 3. |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대극장

주 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회관 TOTAL ENTERTAINMENT GROUP PMG KOREA 협 찬 | 동명대학교 TONGMYONG UNIVERSITY

문 의 | 부산문화회관 051)607-6057 홍보마케팅부 051)607-3100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예 매 | ticketlink 티켓링크 1588-789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할인